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IX

- 주요 친일단체(1937~1945)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IX

초판 1쇄 발행 2009년 10월 30일

발행인 || 성대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IX

- 주요 친일단체(1937~1945)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간사

이제 마침내 우리 위원회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4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제1기는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년~1919년), 제2기는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년~1937년), 제3기는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년~1945년)입니다.

그러나 8·15해방 후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지금은 제3기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위원회 전체 활동을 수록할 종합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과 재작년에 제1기와 제2기 조사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모두 일곱 권의 사료집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3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들을 선별하여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은 제8권에서 제16권까지 총 9권이며, 제8권에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전시총동원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총독의 훈시와 법령을 비롯하여 조선인 노동력 동원과 병력동원 관계 자료와 친일언론의 전쟁지원 논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9권에는 1937년 이후 전시체제에 조선인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등 친일단체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10권에는 일제의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조선인의 글을, 제11권에는 1937년 이후,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해외에서의 친일협력 자료를, 제12권에는 일제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한국인(조선인)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 제13권에는 유교계의 친일협력 글과

친일 한시를 모으고, 지금껏 번역되지 못하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학원, 조선유도연합회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제14권에는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의 주제로 기독교·천주교·불교·천도교의 친일관련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15권에는 문화예술계의 식민화 정책과 관련 조직들의 자료를 묶었습니다. 끝으로 제16권에는 조선인이 부일협력을 목적으로 쓴 시와 소설, 희곡과 시나리오, 악보와 가사, 미술작품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용제의 친일 시집 3권 『아세아시집』, 『서사시어동정(敍事詩御東征)』, 『보도시첩』은 조선인이 일본어로 시를 써서 단행본 시집으로 묶어낸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료집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발간하는 마지막 사료집입니다. 그래서 제3기에 조사 관련 사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1차 사료집(2007년)과 2차 사료집(2008년)에 실지는 못했으나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자료로 활용했던 조선인 훈포상 자료, 종교관련 자료, 문학예술관련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간한 사료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편찬하는 9권의 사료집뿐만 아니라 이미 간행한 7권의 사료집 내용도 함께 디지털화하여 CD에 담았습니다. 이 사료집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셨던 시민사회와 학계 여러분께서 앞으로 연구와 교육에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과거사 가운데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간된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지나사변, 대동아전쟁 등이 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필자명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 왼쪽에 표기하고 ‘(콤마)’로 연결했다.
단행본명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경우, 『 』로 표시하고 연도를 병기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 발간사 4
 * 해제 : 일제 전시파시즘기 친일단체의 동향과 활동 13

I.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 총독부,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1940) 31
 2. 충남도연맹, 『국민정신총동원연맹요람』(1939) 159
 3. 김대우, 역사적 대국민운동(상·중·하) 190
 4. 김문집, 『총동원』의 권두언 196
 5. 이승우, 정연맹(町聯盟)에 박차 - 실행하고 싶은 제안 하나 둘 197
 6. 정교원, 연맹 가입에 대하여 198
 7. 최린, 총동원 강화에 대한 사건 199
 8. 김두정, 국민정신총동원에 응소된 황국신민으로서의 각오 201
 9. 엽서문답(권상로 이각중 박희도 손홍원 임문환 이종린 하준석 이항녕) 203

II. 국민총력조선연맹

1. 총독부, 『반도의 국민총력운동』(1941) 209
 2.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의 국민총력운동사』(1945) 257
 3. 우리 연맹원에게 바란다(정교원 윤태빈 이성근 이원보 등) 336
 4. 정교원, 쑥쑥 자란다 - 애국반 강화육성 좌담회 343
 5. 동민회를 접수하다 356

III. 조선임전보국단

1. 흥아보국단 359

1) 흥아보국단 설립준비회 개최에 관한 건	359
2) 구체화하는 우국애민운동(기사)	367
3) 충후조선의 열의를 반영(기사)	367
4) 총력의 임전보국단 합동위원회서 결성 결의(기사)	369
2. 임전대책협의회(협력회)	370
1) 임전대책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370
2) 임전대책협력회서 가두로 채권봉공대(기사)	377
3) 삼천리사 주최 좌담회, 임전대책협의회, 120인사가 부민관에서 회합 - 임전대책협의회 의사록	378
3. 조선임전보국단	391
1) 『조선임전보국단개요』(1941)	391
2) 임전국책협력회의 동정에 관한 건	440
3) 조선임전보국단의 채권소화운동에 관한 건	441
4) 조선임전보국단의 동정에 관한 건	444
5) 조선임전보국단 결성식 거행에 관한 건	449
6) 임전대책보국단의 활발한 실천운동	452
7) 임전 애국자의 대사자후(大獅子吼)!! - 임전보국의 대연설회 속기록	453
8) 결성식 관계 기사	455
9) 반도 지도층부인의 결전보국의 대사자후(大獅子吼)!!	458
10) 일어서라! 부인들! 가정도 전시동원이다, 27일 임전보국단 부인대회	474
11) 부인대 주최 좌담회(1~2)	474
12) 임전보국단의 발전적 해소	478

IV.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1.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의 활동 상황	483
2.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일람』(1940)	488
3.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경성지부원의 근로봉사에 관한 건	512
4. 정삼봉(鄭三峯), 전선전향자대회 방청기 - 전조선사상보국연맹 결성	514
5. 정삼봉(鄭三峯), 전향자의 대동단결! 시국대응의 사상보국연맹	517
6. 전향자 규합 및 대회 관계 기사	518
7. 지부설치 관계 기사	521
8. 기타 활동 관계 기사	523

V. 대화숙(大和塾)

1. 『재단법인광주대화숙요람』(1941) 527
2. 오키나카(沖中守夫), 신의주대화숙 방문기 541
3. 보호전선 적성의 화(華) 대화숙 546
4. 다카하라(高原克己), 대화숙의 설립과 그 활동 548
5. 대화숙 제1회 사상선도강습회 수강생의 감상 내사에 관한 건 555
6. 설립 관계 기사 556
7. 활동 관계 기사 558

VI. 대동민우회

1. 대동민우회 발기대회 개최의 건 563
2. 대동민우회의 결성 및 그 활동개황 568
3. 동우회원의 대동민우회 가입에 관한 건 603
4. 「전향문제의 검토」라는 제목의 인쇄물 발송에 관한 건 604
5. 동우회사건 관계자의 전향성명서 발표에 관한 건 610
6. 대동민우회원의 좌담회 개최에 관한 건 612
7. 전(前) 동우회원(同友會員)의 성명서 613
8. 동우회사건 관계자의 전향성명서 발표에 관한 건 616
9. 이각중(李覺鍾)과 대동민우회의 동정에 관한 건 617
10. 양주삼의 미국귀래담청취좌담회 개최에 관한 건 618
11. 대동민우회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 621
12. 대동민우회의 성명 623

VII. 대화동맹(大和同盟)

1. 손영목, 나가자 황민대도(皇民大道)로 우리 청년 장년 동지는 쫓기하라 629
2. 김사연, 반도 참정의 감격과 요망, 중책완수에 헌신 629
3. 윤치호, 성려황공(聖慮惶恐) 적성(赤誠)으로 봉부(奉副)하자 630
4. 활동 관계 기사 631

VIII. 조선언론보국회

1. 설립 관계 기사 637
2. 활동 관계 기사 642

IX. 황도학회

1. 움직이는 지식부대 - 황도학회 발회식 647
2. 황도학회 발회식 649
3. 황도학회 최초의 행사 - 일본정신강습회를 열다 649
4. 설립 관계 기사 650
5. 활동 관계 기사 651

X. 녹기연맹

1. 강령, 녹기연맹 안내 655
2.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녹기연맹강령 해설(1~3) 656
3. 규약개정에 관한 취의서, 녹기연맹규약(1937) 672
4. 녹기연맹의 정신 676
5. 주요단체 조사 - 녹기연맹(1938) 678
6. 쓰다 쓰요시(津田剛), 지나사변의 현대전적 성격 - 비약한 우리 국력의 진상 .. 678
7. 가특한 총후미담, 녹기연맹부인회 폐품회수 헌납(기사) 681

XI. 배영동지회

1. 배영동지회 결성에 관한 외국인의 감상 내사에 관한 건 685
2. 조선배영동지회연맹 결성되다 686
3. 영국타도를 목적, 배영동지회 탄생 688
4.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조선사상 제 진영의 전망 690
5. 배영동지회 결성 관계 기사 697
6. 배영동지회연맹 결성 관계 기사 701
7. 강연회 등 활동 관계 기사 703

XII. 국민동원총진회

1. 설립 관계 기사	709
2. 역원대회 관계 기사	710
3. 강연 및 간담회 관계 기사	711
4. 응징사(應徵士) 관계 기사	713
5. 기타 활동 관계 기사	715
6. 해산 관계 기사	716

XIII. 애국금차회

1. 설립 관계 기사	721
2. 부녀헌금 관계 기사	724
3. 기타 활동 관계 기사	726
4. 동방산인(東邦山人), 애국금차회 생겨나다 - 내지인 유한부인은 뭐하는가	726

XIV. 조선부인문제연구회

1. 설립 관계 기사	731
2. 부인문제연구회 회칙	732
3. 활동 관계 기사	732
4. 지방순회강연을 마치고	735

XV.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1. 설립관계 기사	739
2.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개황(1944)	739
3.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개요	743
4. 토야마 간로쿠(頭山漢六), 국난과 일본부도(日本婦道)	745
5. 주요활동 관계 기사	747

* 찾아보기	751
--------------	-----

해제 :

일제 전시파시즘기 친일단체의 동향과 활동

박수현(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찬실장)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강력한 통제와 억압으로 조선 사회를 전시파시즘체제로 몰아갔다. 이때 일제가 내세운 명분은 내선일체(內鮮一體)였다. 내선일체의 강조는 조선인도 일본인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전쟁 발발 직후부터 불안한 국제정세와 계속되는 확전으로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제는 조선에서 보다 강력한 전시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인도 황국의 신민으로서 당연히 전쟁수행에 참여한다는 명분과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내선일체의 본질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무차별적으로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 수행에 있어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었다. 즉 내선일체는 조선에서 강력한 전시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나온 논리였다.

일제는 내선일체를 통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강력한 총동원·총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국정 전 부문에 걸친 강력한 통제정책을 추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들의 전쟁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선전에 열을 올렸다. 홍보·선전 활동의 핵심은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내선일체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홍보·선전 활동으로는 관을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의 활용, 친일단체의 조직과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 중 친일단체의 활용은 관의 개입과 강제성을 은폐하고 조선인의 자발적인 협력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전시파시즘기에는 이미 모든 합법적 단체들이 철저한 통제와 간섭을 받는 관의 보조기구로 전락해 있었고, 단체의 핵심인물들도 대부분 일제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일인물들이었다. 형식만 관변·민간단체이지 활동 방향이나 내용은 관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민간 스스로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가장할 뿐이었다. 일제가 민간 차원에서 선전·홍보하는 수단으로 친일단체를 활용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친일단체들은 일제의 대변자 역할과 보조역할을 담당하면서, 침략전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선인들의 전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전과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기에는 물론 친일세력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자료집은 전시파시즘기에 활동했던 친일단체들에 관한 주요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단체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대화숙, 대동민우회, 대화동맹, 조선언론보국회, 황도학회, 녹기연맹, 배영동지회, 국민동원총진회, 애국금차회,

조선부인문제연구회,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등 이 시기에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각 단체별 특성 및 수록자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하 정동연맹)은 1938년 6월에 조직되어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 조선 최대의 관변단체이자 가장 핵심적인 친일단체로서, 중일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총독부가 조선인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목적으로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해서 조직한 단체였다. 일본 국내에서 중일전쟁 직후 ‘거국일치(擧國一致)·진충보국(盡忠報國)·견인지구(堅引持久)’의 3개 목표를 내걸고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을 본 뜬 단체였지만, 그 성격은 일본과 달랐다. 일본과 달리 조선인의 국체(國體)관념이 희박하다는 인식에 따라 ‘내선일체’를 전면에 내걸었으며, 정치와는 무관한 정신적 실천단체를 표방했다. 또한 일본의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이 정당·군부·관료·국가주의단체 등 다양한 세력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던 반면에 정동연맹은 조선총독부가 전면에서 결성을 주도했고, 일본은 하부 조직을 갖지 않은 채 발족하였지만 정동연맹의 경우는 처음부터 행정조직과 완전히 일치된 지방조직과 각 직장을 단위로 하는 각종 연맹까지도 망라하는 철저한 하부조직 체계를 갖고 출발하였다. 즉 정동연맹은 총독정치를 보조하는 강력한 총독부 외곽 단체였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한 단체로 포장되었다. 준비위원과 발기인은 물론이고 임원 또한 민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일제가 정동연맹을 민간 주도의 기구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유는, 총동원운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한편으로 정치와 선을 그어 있을지도 모를 조선인들의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적 요구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는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과 『국민정신총동원연맹요람』 그리고 기관지 『총동원』과 『매일신보』에 게재된 주요 친일인물들의 글이다.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은 정동연맹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서 정동연맹의 결성 과정과 추이, 지방연맹과 애국반의 결성 현황, 총동원 운동의 실천 사항과 운동 현황, 조직 현황을 비롯한 각종 규약과 강령, 정동연맹과 관련한 총독의 훈시, 관련 문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정동연맹은 민간 주도의 총독부 외곽 단체로 출발했다. 1938년 6월 윤치호(尹致昊)·한상룡(韓相龍)·조병상(曹秉相)·박영철(朴榮喆)·최린(崔麟) 등을 비롯한 조선인·일본인 민간 유력자와 10명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정무총감을 명예 총재로 추대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어 하부 조직인 지방 연맹과 직장 단위의 각종 연맹이 결성되었다. 지방 연맹은 도연맹, 부·군·도(府郡島)연맹, 읍·면연맹, 정·동·리(町洞里)·부락연맹, 최말단의 애국반이 결성되었으며, 관공서·학교·회사·공장 등 직장을 단위로 한 각종 연맹은 소재지의 지방 연맹에 가입하는 형식을 취했다. 출발은 민간단체의 형식을 띠었지만, 행정력이 총동원되어 빠른 시일에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조선 최대의 관변단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애국반은 최말단의 기초적 실천기구로서 1939년 6월 말 현재 35만 개의 애국반이 결성되어 반원 수가 460여 만 명에 달했다.

정동연맹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정동연맹은 일본 국내의 거국일치, 진충보국, 견인지구라는 세 가지 목표 이외에도 내선일체의 철저와 조선인의 급속한 황국신민화 도모에 목적을 두었다. 즉 통치의 근본 방침을 항구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신적 체제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 단체로서, 총독부 외곽 단체에 불과하지만 그 본질은 조선통치의 보익(輔翼)기관으로서 정신운동의 철저한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다. 또한 정동연맹은 구체적 활동 지침으로서 모든 연맹원이 실천해야 할 20여 항목에 달하는 실천요목을 정했으며, 이 중에서도 ‘궁성요배(宮城遙拜)’와 ‘근로저축’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2원칙으로 설정해 정신적인 황민화와 물질적인 전시 동원을 동시에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종 강연 및 좌담회와 강습회 개최, 인쇄물을 통한 홍보·선전, 라디오 방송 등의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 밖에 중견청년수련소·교학연수소·유림연합회 등과 같은 단체를 조직했다. 특히 기초 조직이자 실천 조직인 애국반의 활동은 실천요목을 중심으로 한 정동연맹의 활동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별지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취지·선언·강령·각종 규약 등은 정동연맹의 활동 방향과 조직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중 선언문과 강령에는 정동연맹의 지향점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정동연맹은 “동양평화를 확보하여 팔괘일우(八紘一宇)의 커다란 정신을 세계에 양양하는 것이 제국의 변하지 않는 국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치단결하여 국민정신을 총동원하고 내선일체의 모든 능력을 발양하여 국책의 준행(遵行)에 협력함으로써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선언문을 내걸었으며, 강령으로 “황국정신의 현양, 내선일체의 완성, 생활 혁신, 전시경제정책에 대한 협력, 근로보국, 생업보국, 총후 후원, 방공 방첩, 실천망의 조직과 지도의 철저” 등을 표방했다. 또 ‘부록’으로 되어 있는 총독 훈시를 비롯한 각종 담화문은 총독부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대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건들이다. 이 문건들을 통해 총독이 강조한 핵심 내용은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내선일체의 이상을 철저한 구현할 것, 지나사변의 전과를 확보하여 신동아건설의 성업(聖業)을 관철시킬 것, 제국 전통의 황도(皇道)를 세계에 선포하여 세계 각 민족의 공존공영의 신질서를 건설할 것” 등이었다. ‘부록’에는 이 밖에도 총독부가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정동연맹의 활동에 관해 하달한 각종 구체적 지침과 행사 일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국민정신총동원연맹요람』은 1939년 3월 충청남도 연맹에서 만든 책이다. 충청남도에서는 1938년 8월 12일 대전부·연기·공주·논산·천안군 연맹을 토대로 충청남도 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이어서 읍·면연맹, 정·부락연맹 및 각종 연맹과 실천망인 애국반의 조직이 완료되었다. 이 책은 충청남도 연맹이 조직이 완료된 것을 계기로 충청남도 각 연맹원에게 정동연맹의 취지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게 하고, 시국인식의 철저와 연맹 강령 및 실천요목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정동연맹의 하부 조직 단위의 각 연맹원이 실천해야 할 지침과 활동 내용 등 정동연맹과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국인식과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중요 통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애국일 설정과 애국일 행사 요강’, ‘황국신민의 서사 낭송 방법’, ‘애국일의 일반실시에 관한 건’, ‘존칭의 봉칭(奉稱)에 관한 건’, ‘국어의 보급철저에 관한 건’,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 실시요강’, ‘국민정신총동원 정동리부락연맹 규약규칙’, ‘국어의 전면적 보급에 관한 건’ 등이다.

이 밖에 김대우(金大羽), 김문집(金文輯), 이승우(李升雨), 정교원(鄭僑源), 최린(崔麟), 김두정(金斗禎) 등의 글은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강조하거나 국민정신총동운동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들이다. 특히 김문집은 『총동원』 1939년 11월호 권두언을 통해 “내선일체는 이상도 이론도 아닌, 생생한 자기 현실이다. 문화적으로 혈연적으로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국체에 융합(溶合)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가상(假想) 하에서도 우리 조국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며 완전한 내선일체를 주장했다. 전시파시즘 기 친일세력의 동향과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2.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

국민총력조선연맹(이하 총력연맹)은 1940년 10월 조선민중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고 ‘총후(銃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동연맹을 개편한 전시 최대의 관변 통제기구이다. 일본에서는 정당을 해산하고 대정익찬회(大正翼贊會) 체제에 돌입했으나 정당조직이 없는 조선에서는 “각인(各人)이 봉사적 실천의 총력 발휘를 한다”는 취지로 총력연맹을 결성했다. 또한 정동연맹과 달리 총독이 총재, 정무총감이 부총재를 맡았으며, 총력연맹의 최고기관으로 국민총력운동지도위원회를 두었다.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총감, 위원은 조선총독부 각 국장과 국민총력국장·총력연맹 전무이사·조선군 사령관 및 총독이 위촉한 자가 맡았다. 사무국 총장은 정무총감이 맡고, 총장 산하에 총무·사상·훈련 등의 부서를 두어 부장으로는 조선총독부 국장과 조선인 유력자를 임명했다. 정동연맹과 비교해 관의 입장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또 농촌진흥운동 단체나 상공회의소 등 관변단체들과 지방 말단 조직인 정회(町會)·부락진흥회·저축조합·향약(鄉約) 등이 총력연맹 산하로 흡수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반도의 국민총력운동』과 『조선의 국민총력운동사』 그리고 기관지 『국민총력』에 실린 글 등이다.

『반도의 국민총력운동』은 1941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된 책자로 국민총력운동의 연혁, 조직 직제와 각종 규약규칙, 지도·조직 요강, 총독의 훈시 내용 등 총력연맹에 대한 기초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총력연맹 조직상의 특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총력운동의 목표는 “반도 2,400만 동포의 협력일치, 신도(臣道)실천, 지역봉공을 통해 제국의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에 기여 매진하는 것”에 두었으며, 그 근본정신은 일본의 대정익찬운동과 같지만, 조선의 특수성에 따라 운동의 내용, 성질, 방법 및 그 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① 내선일체의 철저 및 반도 동포의 황국신민화를 최대 선결의 목표로 한다. ② 본 운동은 신도실천, 지역봉공의 소위 봉사적 실천 운동으로 일본에서와 같은 정치운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일본에서는 국민협력조직인 대정익찬회 이외에 경제, 산업, 문화의 각 부문별 신체제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조선에서는 이들을 모두 국민총력운동으로 통합 포괄한 일원적 운동체제로 정비하였다. ④ 실천기구는 그 말단조직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구와 완전히 표리일체를 이루었고, 더욱이 각종 단체를 빠짐없이 그 산하에 포섭하였다. ⑤ 조선의 현황을 감안하여 지도진영도 민간에게만 위탁하지 않고, 군관민이 진정으로 협력 일치하여 만전의 기구를 정비하였다. 총력연맹의 강령으로 “국체의 본의에 의거하여 내선일체의 내실을 거두고, 각각 그 지역에서 멸사봉공의 정성을 바쳐 협심육력(協心戮力)으로 국방국가체제의 완성,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매진

한다.”를 내걸었으며, 조직체계는 지도기구인 지도위원회와 실천기구인 중앙조직·지방조직으로 나누었다.

『조선의 국민총력운동사』는 1945년 국민총력연맹에서 펴낸 책으로 국민총력운동의 변천사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총력연맹의 조직·활동상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1940년 12월 일본의 대정익찬회를 모방하여 문화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자, 총력연맹 산하에 사상부를 이분화하여 문화부를 설치했으며, 각 방면의 60여 명을 문화부 문화위원으로 선정했다. 1941년 1월에는 상공업 분야에서 각 도·부·군·읍의 경제단체 업자조합으로 도부군읍협력회를 구성하였고, 그 대표자 및 전선지구경제단체 대표자로 조선경제통제협력연락회를 조직하여 그 지도를 실시하였다. 3월에는 각 광산을 조직한 국민총력 조선광산연맹이 결성되었다. 4월에는 국민총력 조선수산연맹이 결성되었고, 도·부·군·도(島)에 수산연맹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그 지부를 두어 어업조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함과 동시에 그 실천사항의 구현에 노력하였다. 4월부터는 부여신궁 어조영(御造營)에 근로봉사가 개시되었고, 7월에는 의례의 간소와 엄숙화를 도모하여 혼례장식의 기준이 제정되었다. 또한 그해 가을에는 근로보국대의 조직요강이 결정되어 14세부터 40세 미만의 남자 및 14세부터 25세까지의 미혼 여성은 부·읍·면연맹, 동·정·리연맹, 학교연맹 기타 각종 연맹으로 편성되어 특정 기간 동안 근로 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어 1942년 전쟁이 격화되면서 각 지역연맹을 사봉대(仕奉隊) 조직으로 강화하였고, 각 도연맹의 조직을 정비했다. 또한 이해 11월 본부의 사무국을 간소하면서 강력한 기구로 개편했다. 총래의 11부를 총무, 연성, 후생, 경제, 선전의 5부로 축소하고 14개 과를 두어 그곳에는 모두 순진한 민간인을 배치하여 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 새로운 부장은 칸규우 다다오(簡牛凡夫, 총무), 오야 도라노스케(大家虎之助, 연성), 김연수(金季洙, 후생), 다나가 에이(田中英, 경제), 츠다 고우(쓰다剛, 선전) 등이었다. 1943년 11월에는 징병제 실시에 발맞추어 징병후원사무국이 신설되었으며, 연맹 사무국 총장에 한상룡(韓相龍)이 임명되었다.

또한 ‘부록’은 각종 규약, 운동방침과 목표, 예산, 사무국 기구·인사의 변천 내용과 연표 등 총력연맹의 구체적 활동에 관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연도별 사업계획은 1940년대 국민총력운동의 방향과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1941년에는 사상의 통일, 국민 총훈련, 생산력의 확충, 운동 능률 증진 및 연맹정신의 양양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1942년에는 필승체제 확립에 대한 계도, 지도자의 연성, 국민개로운동, 부인계발운동, 국어생활의 철저 등에 중점을 두었다. 1943년에 들어서는 도의(道義) 조선의 확립, 황민의 연성, 결전생활의 확립, 필승 생산력의 확충, 징병제도 실시의 준비 등을 운동 방침으로 내걸었다. 또 전쟁 막바지인 1944년에는 “신민의 총력을 직접 전력 증강의 한 점으로 결집함으로써 대동아전쟁의 완승을 도모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국민신앙의 확립, 황민 연성의 철저, 내선일체의 철저, 황도문화의 작흥(作興), 사봉(仕奉)증산의 강화, 결전생활의 철저, 징병제도의 완수 등을 총력운동의 목표로 삼았다.

3.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조선임전보국단은 1941년 9월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의회(임전대책협력회로 개칭)를 통합해 발기

인을 구성하고 10월에 결성된 조선 최대의 민간 전쟁협력단체로서, 조선인 민간 유력자 대부분이 망라되었다. 수록된 자료는 흥아보국단, 임전대책협의회(임전대책협력회), 조선임전보국단 등 3단체의 관련 자료들이다.

흥아보국단 자료는 설립 과정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흥아보국단설립준비회 개최에 관한 건」과 『매일신보』의 관련 기사 등이다. 이에 따르면 흥아보국단은 1941년 8월 윤치호·항상룡·박흥식·조병상·김연수·고원훈·김사연(金思演) 등 조선인 유력자 50여 명이 모여 일제의 전시체제에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로 논의한 뒤, 조선총독부와 협의 하에 결성하였다. “시국하의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가지고 그 본분을 다하여 임전체제에 대비할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활동 목표로 황국정신의 양양, 강력한 실천력의 발휘, 시국인식의 철저와 그 대응결의, 근로보국의 실행 등을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쿄에 흥아보국훈련소를 설치할 계획까지 세웠다.

임전대책협의회(임전대책협력회로 개칭) 자료는 경기도 경찰부 문건인 「임전대책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과 『매일신보』의 관련 기사 등이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임전대책협의회는 1941년 8월 삼천리사 사장 김동환이 각계 인사 약 120여 명을 부민관에 초청하여 임전체제 하에서 자발적 황국신민화운동을 위한 실천방책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실천 방침으로는 물질(物質)·노무(勞務) 공출의 철저화, 국민생활을 최저표준으로 인하, 전시봉공(戰時奉公)의 의용화(義勇化) 등을 표방했으며, 민간 차원에서 전쟁에 철저히 협력하기 위해 명사들을 동원한 채권판매운동, 저축보국운동 등에 앞장 서기로 했다. 이어 단체 명칭을 임전대책협력회로 개칭한 뒤, 9월 초 김동환·이성환·최린 등의 주도로 동일한 목적을 지닌 흥아보국단과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조선임전보국단 자료는 『조선임전보국단개요』 경찰 문건, 『매일신보』의 관련 기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조선임전보국단개요』는 조선임전보국단에 관한 기초 자료로서 설립 개황과 참여자 명단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임전보국단은 강령으로 “황국신민으로서 황도정신을 선양하고 사상통일을 기한다. 전시체제에 즉하여 국민생활의 쇄신을 기한다. 근로보국의 정신에 기초해서 국민개로의 실을 거두기를 기한다. 국가 우선의 정신에 기초해서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 물자의 공출, 생산의 확충에 매진하기를 기한다. 국방사상의 보급을 하는 동시에 유사시에 의용방위의 실을 거두기를 기한다.” 등을 표방하고, 조선 최대의 민간단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전국의 조선인 유력자를 임원 또는 발기인으로 참여시켰다. 수백여 명의 조선인 참여자 가운데 주요 임원을 살펴보면 고문에 윤치호 이진호 한상룡 박중양(朴重陽), 단장에 최린, 부단장에 고원훈(高元勳), 이사장에 한규복(韓圭復), 상무 이사에 신흥우(申興雨) 김연수(金季洙) 민규식(閔奎植) 박흥식(朴興植) 김사연(金思演) 이성근(李聖根) 정교원(鄭僑源) 김시권(金時權) 박기효(朴基孝) 이용신(李容愼) 이성환(李晟煥) 김동환(金東煥) 원덕상(元惠常) 조병상(曹秉相) 이종린(李鍾麟) 이종욱(李鍾郁) 방의석(方義錫) 등이 선임되었다. 이사는 안종철(安鍾哲) 최창학(崔昌學) 이병길(李丙吉) 유억겸(俞億兼) 현상윤(玄相允) 방응모(方應謨) 등 비롯한 수십 명이며,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은 고허경(高鳳京) 김선(金善) 김활란(金活蘭) 박마리아 박순천(朴順天) 박승호(朴承浩) 박은혜(朴恩惠) 박인덕(朴仁德) 배상명(裵祥明) 서은숙(徐恩淑) 송금선(宋今璇) 손정규(孫貞圭) 유각경(俞玉卿) 이숙중(李淑鍾) 임숙재(任淑宰) 임영신(任永信) 차사백 최이권 황신덕(黃信德) 홍승원(洪承媛) 등이다.

또한 경찰문건과 신문기사 자료는 대부분 조선임전보국단의 활동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에 따르면 1941년 10월 500여 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결단식이 거행되었으며, 활동 목표로 국민생활쇄신 운동, 국채의 소화·저축의 장려·물자의 공출운동, 근로보국도장의 설치, 계(契)조장의 설치, 지도자 단기 이동 강좌의 개최, 기타 필요한 애국운동을 내걸었다. 1941년 10월 초 경성부 내 유력자 70여 명이 ‘꼬마’ 채권을 가지고 가두에 나와 팔아 ‘국채소화(國債消化)’ 협력활동을 전개했고 11월에는 지원병 제도의 취지를 선전하는 각종 강연대회가 개최되었다. 12월 긴급 임시전선대회를 개최하고 태평양전쟁 발발에 따라 전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결의 사항은 중앙과 지방조직을 통해 저축 강조, 금속회수운동 전개, 청년체력검사 취지 철저, 부인계몽운동 강화, 군복의 근로수리작업 철저 등이다. 이와 함께 영미 타도 대강연회를 개최했다. 1942년 1월에는 조선임전보국단 산하에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婦人隊)가 발족했으며, 같은 해 2월 부인대 주최로 근로봉사운동을 전개하여 군복 수리작업을 연중무휴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5월에는 단장 최린이 징병제도 시행에 대한 감격과 “황국군인의 명예를 연마하고 성은에 보답하여 자자손손 변영”하자는 담화를 발표했으며, 각 지부에서 징병제 선전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해 10월 전체 임원대회를 소집해, 발전적 해소를 결의하고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조직이 흡수되었다.

4.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1938년 7월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조직된 전향자 단체였다. 1938년 6월 도쿄에서 열린 전향자들의 모임인 시국대응전국위원회에 박영희(朴英熙)와 권충일(權忠一)이 조선 대표로 참석한 뒤, 귀국 후 경과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조직이 결정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의 활동상황」,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일람』, 『사해공론』과 『매일신보』의 관련 기사 등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의 설립 과정과 활동내용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1938년 7월 “우리들은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정신의 양양에 노력하고 내선일체의 강화철저를 기한다. 우리들은 사상국방전선에서 반국가적 사상을 파쇄, 격멸하는 육탄적 전사가 되기를 기약한다. 우리들은 국책 수행에 철저히 봉사하고 애국적 총후활동의 강화철저를 기약한다” 등의 3개 항목의 결의문 채택과 함께 결성되었으며, 일본정신을 파악하여 내선일체를 정화하고, 사상을 정화해서 품성을 연마하며, 생활의 쇄신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후 전국에 7개의 지부와 80여 개의 분회가 결성되어 각지의 보호관찰소와 연계, 협력하여 취직을 알선하는 등 비전향자들의 전향 촉구에 나섰다. 그 밖에 군인원호행사, 신사참배단 파견, 부여신궁 건설을 위한 봉사수양단 파견 등의 활동과 함께 황국신민화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상전’을 수행했다. 1940년 12월 전국 7개 지부 83개 분회 및 맹원 3,300여 명으로 확대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해소하고 재단법인 대화숙(大和塾)으로 통합되었다.

5. 대화숙(大和塾)

대화숙은 1940년 12월 일제가 사상통제와 전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개편해 조직한 전향자 단체였다. 수록된 자료는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요람』, 『조선』과 『매일신보』 등에 실린 대화숙의 주요 활동에 관한 자료들로서, 대화숙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화숙의 구체적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들이다.

이에 따르면 1940년 10월 정동연맹이 총력연맹으로 재편되면서 각지의 보호관찰소는 “사상보국운동의 합리화와 사상범보호사업의 진전을 꾀하고, 내선일체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대화숙으로 재조직했다. 이에 따라 종래 경성·함흥·청진·평양·신의주·대구·광주에 있던 사상보국연맹의 지부는 각기 독립된 재단법인 대화숙으로 재편성되었다. 이후 대화숙은 “보호관찰대상자나 대화숙의 취지에 찬동하고 그 사업에 봉사 협력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황도정신의 진기(振起) 양양(昂揚)과 내선일체 심화·철저”를 기하고 사상사건 관계자를 선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주요활동은 “황도정신 수련도장(修鍊道場)의 신설, 일본어 보급, 강습회·강연회·좌담회 등의 개최, 기관지 및 출판물 간행, 수산(授産) 경영” 등이다.

특히 대화숙은 황국신민 연성기관으로서 일본어 강습회에 중점을 두었다. 일본어 강습소는 경성대화숙 12개소, 함흥대화숙 2개소, 청진대화숙 1개소, 평양대화숙 2개소, 신의주대화숙 7개소, 대구대화숙 1개소, 광주대화숙 3개소로 모두 28개소가 있었으며 1941년 8월 현재 약 2천명이 일본어강습회를 수료했다. 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화가정숙(大和家政塾)을 운영하였으며, 전향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일종의 직업보도기관인 수산장(授産場, 응용미술·간판·포스터 작성, 종이상자 제작, 명찰 인쇄, 양재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대화숙에서 활동한 주요 조선인은 유억겸(俞億兼) 이묘묵(李卯默) 장덕수(張德秀) 김한경(金漢卿) 조일명(趙一明·趙斗元) 한상건(韓相健) 민병회(閔丙會) 최용달(崔容達) 윤치호(尹致昊) 이용설(李容高) 현제명(玄濟明) 이종만(李鍾萬) 이재경(李載璟) 이재숙(李在淑) 등이다.

6.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

대동민우회는 1936년 9월 민족·사회주의 양 진영의 사상 전향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반공산주의운동을 전면에 내걸고 조직된 전향자 단체였다. 이각중(李覺鍾)이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조직된 전향자 단체 백악회가 그 전신이었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대동민우회의 결성 및 그 활동 개황」 등 조직 결성에 관한 문건, 「동우회원의 대동민우회 가입에 관한 건」 등 동우회를 중심으로 대동민우회 가입과 전향에 관한 문건, 「대동민우회의 동정에 관한 건」 등 동정과 활동에 관한 문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동민우회는 1936년 9월 이각중·차재정(車載貞)·안준(安浚) 등이 중심이 되어 과거의 사상운동 관계자 가운데 전향자를 망라하여 백악회를 조직하여 사상선도, 전향권장 등 황민화운동을 하다가 대동민우회로 개칭했다. 반공산주의운동을 전면에 내걸고 일본의 대국가주의(大國家主義) 사상을 추종했으며, 강령으로 “대

국가주의 의식을 강조하여 국가전체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함. 조선인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함. 국가적 통제경제의 확립을 달성하며 대중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 공산 기타 반국가적인 일체의 사상 계열을 배척함. 시대의 진운에 적응한 도덕을 수립하여 국민의 정신적 통일을 기함” 등을 표방했다. 창립위원은 안준(安浚) 이각중(李覺鍾) 이동락(李東洛) 연재선(延在璇) 유공삼(柳公三) 이승원(李承元) 박형남(朴亨南) 김도산(金濤山) 차재정(車載貞) 김연식(金演植) 주련(朱鍊) 진공섭(陳公燮) 이민희(李旻熙) 사현필(史鉉必) 장인송(張寅松) 등이며, 1940년 3월 현재 임원은 중신고문에 이각중, 이사장에 안준, 이사에 차재정 이승원 주련 김연식, 위원에 이효진 정홍교(丁洪教) 김동일(金東日) 인정식(印貞植) 최봉칙(崔鳳則) 등이다.

창립 직전인 1936년 8월 대동민우회 창립위원회 명의로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937년 7월에는 중일전쟁에 관한 시국 슬로건 발표 및 유인물 3만매를 살포하고, 경성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시국강연회 개최해 「사변(事變)의 본질 및 금후(今後)의 동향침로(動向針路)」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938년 6월 전영택(田榮澤)·현제명(玄濟明)·홍난파(洪蘭坡) 등 흥사단·수양동우회 사건 관련자 18명이 전향 성명을 발표하고 대동민우회에 가입했으며, 12월 삼천리사 주최 시국유지지원탁회의에 참가했다. 또 1941년 11월 회장 이각중이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제휴하여 경성 등 각지에서 일반 민중에게 ‘개로(皆勞)운동’을 선전하겠다고 언명했다. 12월에는 미영배격렬전대 동맹을 조직하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미영배격렬전대(美英排擊舌戰隊)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전향문제의 검토」라는 제목의 인쇄물 발송에 관한 건」에 수록된 「전향문제의 검토」는 이각중과 차재정이 전향자들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고찰한 글로서, 전향자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 이각중과 차재정은 당시의 전향자들을 잠행운동자, 중간파적 기회주의자형, 시민형, 의장(擬裝) 시민형, 청산파적 합법주의형, 신사회 개혁 체계로서의 적극형 등으로 구분하고, 대동민우회를 적극형에 해당하는 전향자들의 모임으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비판과 자기 반성의 과정을 경험한 새로운 목표의 건립으로 과학적 사상에서 나온 전환과정으로서 가장 정상적인 경로라고 주장했다.

7. 대화동맹(大和同盟)

대화동맹은 일제 패망 직전인 1945년 2월부터 8월까지 존속한 단체로서 ‘미영격멸(米英擊滅)’·‘내선단결(內鮮團結)’·‘성전필승(聖戰必勝)’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한 전쟁협력단체였다. 수록된 자료는 결성 과정과 활동에 관한 『매일신보』 기사 내용들이다. 이에 따르면, 대화동맹은 징병·증산·황국신민화를 통해 침략전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학무국장이던 엄창섭(嚴昌燮)과 손영목(孫永穆)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1945년 2월 조선상공경제회관에서 열린 대화동맹 발회식에서 손영목은 “우리 동맹은 반도 2천만의 총력을 집중시켜 성전완수에 돌입하는데 추진력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대화동맹의 운동 목표는 첫째, 황국공민(皇國公民) 자질의 연성과 향상, 둘째, 결전태세의 강화(특히 학병권유, 징병, 징용에 중점을 둠), 셋째, 내선동포(內鮮同胞)의 정신적 단결 촉진, 넷째, 증산자(增産者)의 공출(供出) 책임 완수 등이었다.

조선인 임원은 위원장에 윤치호(尹致昊), 이사에 강병순(姜柄順) 박춘금(朴春琴) 손영목(孫永穆) 이광수(李光洙) 이성근(李聖根) 조병상(曹秉相) 진학문(秦學文), 심의원에 고원훈(高元勳) 김동진(金東進) 김동환(金東煥) 김사연(金思演) 김성진(金晟鎭) 김신석(金信錫) 노성석(盧聖錫) 박흥식(朴興植) 설의식(薛義植) 이승우(李升雨) 이원보(李源甫) 이충영(李忠榮) 이해용(李海用) 장직상(張稷相) 정연기(鄭然基) 조동식(趙東植) 주요한(朱耀翰) 최정묵(崔廷默) 최준집(崔準集) 홍승표(洪承杓) 등이었다.

8. 조선언론보국회(朝鮮言論報國會)

조선언론보국회는 1945년 6월 조선총독부와 총력연맹의 주도로 언론인들이 ‘총력전(總力戰)의 사상 전사(思想戰士)’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서, 언론·선전활동을 통한 황국신민화와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했다. 수록된 자료는 조선언론보국회의 동향에 관한 『매일신보』의 기사 내용들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언론보국회는 결성 시 황군감사결의문(皇軍感謝決議文) 채택을 발표하고 부민관 대강당에서 언론총진격대강연회를 개최했으며, 강령으로 “조국(肇國)의 대정신을 헌양하고 성전완수에 매진함. 내선일체의 이상을 구현하고 대동아건설에 정신(挺身)함. 언론의 총력을 결집하고 사상전에 감투함” 등을 내걸었다. 이어 1945년 7월 각 지방 신문사와 공동주최로 언론인 25명을 경기도를 제외한 주요 도시에 파견하여 ‘본토결전과 국민의용대 대강연회’를 개최했으며, 경성에서는 본토결전부민대회(本土決戰府民大會) 개최했다.

결성 당시 조선인 주요 임원은 회장에 최린(崔麟), 사무국장에 정인익(鄭寅翼), 상무이사에 이성환(李晟煥), 이사에 김활란(金活蘭) 김기진(金基鎭) 최백순(崔白洵) 박인덕(朴仁德) 신태악(辛泰嶽) 유광열(柳光烈), 고문에 윤치호(尹致昊) 이성근(李聖根) 등, 참여에 안인식(安寅植) 김동진(金東進) 함상훈(咸尙勳) 이종수(李鍾秀), 평의원에 이영근(李永根) 박남圭(朴南圭) 차재정(車載貞) 송금선(宋今璇) 배상하(裴相河) 이창환(李昌煥) 유진오(俞鎭午) 이충영(李忠榮) 이창수(李昌洙) 등이었다.

9. 황도학회(皇道學會)

황도학회는 1940년 12월 ‘내선일체의 완성’을 목표로 황도사상을 교육·선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이광수가 발기인 대표를 맡았다. 수록된 자료는 『매일신보』, 『신시대』, 『국민총력』 등에 실린 황도학회 동정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에 따르면, 결성 취지로 “본시의 조선 사람 그대로는 황국신민이 될 수가 없다. 황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는 참으로 황국신민이 될 것이다. 황도학습은 참으로 긴요 절실한 바로서 이 사업의 지속 여하에 따라 내선일체의 완전한 실현의 지속이 결정될 것이며 고도 국방국가의 국민으로서 반도인이 응분의 총력을 바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기인은 이광수 정인섭(鄭寅燮) 박영희(朴英熙) 김동환(金東煥) 주요한(朱耀翰) 오장환(吳章煥) 계용묵(桂鎔默) 안희남(安懷南) 신봉조(辛鳳祚) 최효정(崔孝貞) 노성석(盧聖錫) 최영주(崔泳柱) 이선행(李善行) 박순천(朴順天) 이운재(李允宰) 안윤숙(安允淑) 박현환(朴賢煥) 허연(許然) 곽행서(郭行瑞) 이묘묵(李卯默) 손홍원(孫弘遠) 오용탁(吳龍鐸) 김동원(金東元) 최옥희(崔玉禧) 심형구(沈亨求) 안종화(安鍾和) 김동준(金東駿) 이영근(李

永根) 이창용(李創用) 이재명(李載明) 이규환(李圭煥) 김택용(金澤勇) 등이며, 회장에 신봉조, 이사에 구자옥(具滋玉) 박영희 손홍원(孫弘遠) 정인섭(鄭寅燮) 현영섭(玄永燮) 김택용 등이었다.

주요 활동은 황도사상의 학습, 황도정신의 일반에 대한 보급, 신사참배의 실천과 장려 등이었으며, 학습교재로는 『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칙어집(勅語集)』 등을 사용했다. 첫 행사로서 1941년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일본정신강습회를 개최하여 시국 하 반도의 지식인들의 분기를 촉구하였다. 5월에는 부여신궁 건립공사에 회원 및 일반인으로 근로봉사대를 조직하여 파견하기도 했다.

10. 녹기연맹(綠旗聯盟)

녹기연맹은 1933년 2월부터 1945년까지 존속했으며, 중일전쟁 이후 조선인의 자발적인 전쟁동원과 황민화를 목표로 한 가장 대표적인 민간 내선일체 단체였다. 중일전쟁 이전까지는 조선 내 일본들이 사회교화단체를 표방하며 일본인의 국가주의 사상의 일상화와 생활화를 목표로 하는 수양단체였으나, 1937년 현영섭(玄永燮)을 비롯한 조선인 내선일체론자들이 연맹에 가입하면서 내선일체의 이념과 실천을 조직의 중심목표로 설정하고 친일적 조선인을 포함하는 정치단체로 변모하였다. 이후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내선일체론을 전파하고, 창씨개명·특별지원병·징병 등의 국책에 적극 협력하는 사상운동을 전개했다. 녹기연맹의 이념은 ‘급진적 동화일체론(同化一體論)’으로 조선인의 민족적 성격을 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일본과 일체화되고 내선차별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수록된 자료는 대부분 녹기연맹의 기관지인 『녹기』에 실린 내용으로서, 강령을 비롯한 각종 규약과 녹기연맹이 추구하는 사상적 내용들이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녹기연맹의 전신은 1930년 경성천업청년단(京城天業靑年團, 1925년)을 개칭한 녹기동인회(綠旗同人會)였으며, 강령으로 “사회발전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낙토건설에 기여한다. 일본국체의 정신에 따라 건국의 이상실현에 공헌한다. 인간생활의 본질에 의거하여 각자의 인격완성에 노력한다.” 등을 표방했다. 특히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녹기연맹 강령 해설」을 통해 녹기연맹의 강령인 세 개의 커다란 이상은 과거의 인류가 지향했던 이상이며, 종교·도덕·철학·정치 등 모든 문화건설의 최종목표는 이 세 가지에 포용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본국체의 정신이란 만세일계 천양무궁의 국체를 기초로 더욱이 만세일계 천양무궁을 계속하려는 정신, 다양한 민족문화를 동화통용(同化通融)한 국체에 의거하여 더욱 넓은 동화통용을 실행하려는 정신, 사회조직의 변혁에 항상 중추가 되는 국체를 자각하고 지금 정체된 사회조직을 변혁하려는 정신, 외부의 강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천황에게 바치고 지켜온 조국(祖國)의 앞날을 천황 중심의 단결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외부모순의 극복에 매진하려는 정신이라고 규정했다.

녹기연맹의 주요 사업으로는 강령 실현에 필요한 이론 및 방법의 연구, 국가의 중견이 될 인물의 양성, 사회교화사업 등이며, 이를 위해 강습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여자수양을 목적으로 청화여숙(淸和女塾)을 설립하여 장기강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일전쟁 이후에는 폐품회수운동과 국방헌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 밖의 주요 활동으로는 1937년 7월 교화단체연합회의 후원으로 북지사변(北支事變) 대강연회 주최했으며, 1938년 1월 현영섭이 『조선인(朝鮮人)의 나아갈 길』(일문)을 출간했을 때, 책

의 홍보와 발매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또 1939년 5월 제7회 총회에서 '내선일체의 실천'을 조직의 목표로 공식화했으며, 11월에는 『금일의 조선문제강좌』 전6권을 발간했다. 1940년 1월에는 창씨개명 정책에 발맞추어 '씨창설(氏創設) 상담소'를 녹기연맹에 개설했다.

11.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

배영동지회는 1939년 7월부터 9월까지 영국타도를 주장하며 전국적 차원에서 배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된 한시적인 단체였다. 배영운동은 중일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이 중국의 장개석 정권을 지원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1939년 4월 일본 측이 임명한 신해관(新海關) 감독 정석강(程錫康)이 텐진(天津)의 영국조계 안에서 항일분자에게 암살되었을 때, 영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일본 측의 범인 인도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일본군은 6월 텐진의 영·불조계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일본과 조선·만주 등지에서 영국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관제운동을 전개했다.

수록된 자료는 『동양지광』·『조광』 등의 잡지와 『매일신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들의 관련 기사들이다. 이에 따르면 배영운동은 '언론보국'을 표방하며 언론사들이 모여 결성한 조선춘추회(朝鮮春秋會)가 경성의 6개 신문사(경성·동아·매일·조선·조선신문·조선일일신문)와 함께 '배영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배영국민대회는 지방 신문사, 기자단, 총력단체 등의 주최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39년 8월에는 각 지방에 결성된 30개의 배영동지회가 모여 배영동지회연맹을 결성했다. 강령으로 "영국의 모든 원장(援莊) 행동의 절멸을 도모한다. 동양화평의 공적(公敵)인 영국의 부정세력의 구축을 도모한다. 일치 협력하여 모든 장애를 배제하고 흥아대업의 달성을 도모한다."를 내걸었다.

그러나 반영(反英)여론을 선전하고 반영궐기대회를 조직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기세를 올린 배영동지회의 활동은 관제적이고 일회적이었으며 '과시적' 성격이 강했다. 이에 따라 1939년 8월 23일, 독소불가침조약이 체결되자 배영운동과 배영동지회는 곧바로 수그러들었고 언론매체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녹기연맹의 대표적 이론가인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동양지광』에 기고한 「조선사상 제진영의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전국이 모두 그 당시만 반짝 기세를 올리고 독소불가침조약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배영운동을 평가했다. 이어 "영국배격을 외친다면 입으로만이 아니라 영국과 전쟁을 할 준비태세를 취하도록 촉진하고 조선에서 영국배격은 어떤 구체성을 띠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 국민동원총진회(國民動員總進會)

국민동원총진회는 1944년 9월 이성환(李晟煥)을 중심으로 한 친일 유력자들이 결성한 민간 전쟁협력 단체였다. 수록된 자료는 대부분 『매일신보』의 관련 기사로서 국민동원총진회의 결성 과정과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1944년 9월 민간유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근로의 진의(眞義)를 계몽'한다는 취지로 발회식을 갖고 임원을 결정했다. 임원은 이사장에 이성환, 이사에 조병상 손영목 한규복 정연기 김동환 신태악, 감사에 박홍식 등이었다. 그해 10월 정무총감이 참여한 가운데 고문, 이사, 지방

각 도위원, 간사 등 100여 명이 모여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의 양양과 국민운동 전개, 근로 동원, 응징사(膺懲士) 원호와 생활상태 조사’ 등의 안건 토의를 하였다. 같은 달 경성 부민관에서 『매일신보』·『경성일보』 후원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 내용은 이성환의 ‘2,600만의 총진군’, 김동환의 ‘부산부두 유감’, 신태약의 ‘장려운동에 대하여’, 최재서(崔載瑞)의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장덕수(張德秀)의 ‘대의에 철(徹)하라’ 등이었다.

1945년 2월 경기도 임원대회가 열려 운동방침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원호운동 시찰로 각 도에 이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경기도에 한상룡 김동훈, 충북에 한규복, 경북에 손영목, 전남·강원에 정연기, 황해도에 이성근 등을 결정했다. 그해 3월 회기가 끝나면서 해산되었다. 이에 대해 경무국장은 “국민동원총진회는 국가가 위급할 때 반도에서 자발적으로 발족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엔 만기되어 해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3.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

애국금차회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8월 조선총독부 조선중앙정보위원회의 총용에 따라 조직된 전쟁후원단체로서 귀족 부인과 지도층 여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애국금차회의 결성 과정과 활동에 관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기사들이다.

애국금차회는 여성들의 ‘황군원호(皇軍援護)’를 위한 금제품 헌납, 총후보국(銃後報國), 시국인식 주입, 국방헌금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금차회’라는 명칭은 여성들이 전쟁 지원을 위해 금비녀까지 뽑아 바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1937년 8월 한상룡 등 39명이 모여 애국금차회 발기인회가 열렸으며, 같은 달 김활란(金活蘭)의 사회로 결성식이 개최되었다. 취지서에서 “남자들이 의도(義刀)를 휘두르며 성전에 나서는 비상한 때에 조선여성은 분기하여 애국금차회를 조직하여 내선일체로 협심하여 황군의 행동을 도와 국은(國恩)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황군의 환송, 총후 가정의 위문과 조문, 일반 조선부인에 대한 황군원호의 강화와 국방비 헌납 독려 등이었다. 결성식 당일 금비녀 11개, 금반지 3개, 금귀고리 2개, 은비녀 1개, 현금 889원 90전을 모금하여 헌납했다. 애국금차회의 국방헌금 헌납 소식은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으며, 11월에는 김은호(金殷鎬)가 애국금차회에서 금비녀, 금가락지, 백금귀걸이 등을 헌납하는 광경을 그린 「금차봉납도」를 제작하여 총독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14. 조선부인문제연구회(朝鮮婦人問題研究會)

조선부인문제연구회는 1937년 1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의 주도로 조선부인의 수양향상을 도모하여 사회의 진보 발달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전시체제하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내핍적 소비생활을 유도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단체였다.

수록된 자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발행한 『조선사회교화요람』과, 『매일신보』의 조선부인문제연구회 관련 기사 내용이다. 『조선사회교화요람』은 규약을 비롯한 단체의 개황에 관한 내용이며, 『매일신보』의 기사들은 대부분 결성 과정과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조선

부인문제연구회는 1936년 말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 주최로 열린 지식계층 부인의 좌담회에서 “생활개선, 가정생활의 합리화, 가정교육의 개선을 비롯하여, 일반 부녀자의 근로정신의 작흥, 부인의 수양향상”에 관해 연구, 실천할 기관을 설치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이듬해 1월 29일 서린정 소재 애국부인회 인보관에서 사회교육과장 김대우(金大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부인연구회 제1차 모임을 갖고, 조선부인문제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사진을 확정했다. 이날 모임의 참여자는 방신영(方信榮) 조기홍(趙祈烘) 이숙중(李淑鍾) 손정규(孫貞圭) 송금선(宋今璇) 고향경(高鳳京) 홍승원(洪承媛) 김현실(金顯實) 김활란(金活蘭) 김복인(金福仁) 차사백(車士百) 서은숙(徐恩淑) 등이었다. 또 이날 선임된 임원은 이사에 이숙중 조기홍 송금선 김활란 고향경 홍승원, 상무이사에 김활란 손정규, 서무간사에 조기홍 등이었다.

사업 내용은 부인문제조사연구, 부인단체 연락제휴, 부인지도자 양성, 사회봉사, 매월 토요일 월례회 개최 등이었다. 조선부인연구회의 조사연구활동은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을 작성하여 일반에게 배포하는 활동을 했다. 직제(職制)는 이사제도로서, 이사는 각 방면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들을 교대로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이후 1937년 2월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미신타파와 부인의 자각심과 활동력 환기에 관해 토의를 했으며, 1938년 9월에는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 후원으로 부인국방복 착용과 생활개선에 관한 각 도 순회강연을 열었다. 같은 달 국민생활기준양식을 제정했다.

15.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大日本婦人會 朝鮮本部)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는 1942년 3월 총력전체제에 여성들을 동원시키기 위해 조직된 여성 대중단체였다. 20세 미만의 미혼자를 제외한 전 여성이 조직대상이었다. 수록된 자료는 『조선의 국민총력운동』의 부록인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개황」과 『조선연감』, 『매일신보』의 관련 기사 내용이다.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개황」과 『조선연감』은 주로 결성 동기와 결성 과정, 단체 동정에 관한 내용이고, 『매일신보』 기사는 대부분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1941년 6월 일본의 애국부인회, 대일본국방부인회, 대일본부인회 등 3개의 여성단체를 해소하고 고도국방국가 건설의 요청에 부응하는 일원적인 신부인단체를 결성하자는 각의 결정에 따라 1942년 2월 신체제운동의 일환으로 3개의 단체가 대일본부인회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1942년 3월 애국부인회와 국방부인회가 해산되고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가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고도 국방국가체제에 즉응(卽應)하기 위하여 황국 전통의 부도(婦道)에 따라 수신제가 봉공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다. 사업 내용은 “국체관념의 함양과 부덕(婦德) 수련, 내선일체 구현, 국방사상의 보급 철저, 가정생활의 정비 쇄신 및 비상시 준비 확립에 관한 사항, 제2세 국민 육성과 가정교육 진흥, 군인 원호, 국방상 필요한 훈련, 직분(職分) 봉공(奉公) 인보(隣保) 협동에 관한 사항, 저축 장려” 등이다. 조직 체계는 본부는 경성에 두고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며 본부장은 총독 부인, 부분부장은 조선군사령관 부인과 정무총감 부인, 고문은 총독·정무총감·군사령관·진해경비부 사령장관·기타 군 수뇌부 등이었다.

1942년 4월에는 경북지부·경기도지부·시흥지부·경기도 부천 소사읍 지부·강원지부·개풍지부

등이 결성되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본부장인 총독 부인 주재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협의한 뒤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황국 부인으로서 부덕 함양, 충용한 군인으로 활약할 자녀 육성, 주부 재훈련으로 생활 합리화, 군사원호와 방공훈련 참가 등을 독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2월에는 동원의 본격화를 위한 방책을 논의한 뒤, 여성의 동원 본격화를 위해 근로보국대를 편성·운영하고, 각종 표창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1943년 6월에는 건강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6만여 분회에 건민(健民)주임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주임대상자는 보통여학교 졸업생, 국민학교 선생, 위생보건에 상식이 많은 직업자 등으로 하기로 했다. 또 결핵상담소와 모성건강상담소, 탁아소를 각 지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문헌〉

- 高元燮 편, 『反民者罪狀記』, 백업문화사, 1949.
민족정경문화연구소 편, 『親日派群像』, 1948.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 1986.
최유리, 『日帝末期 植民地支配政策研究』, 국학자료원, 1997.
林鍾國, 『親日文學論』(재간행본), 민족문제연구소, 2002.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협력단체사건』, 2003.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I.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 총독부,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1940)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황국신민의 서사 (1)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황국신민의 서사 (2)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한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친애 협력하고 단결을 굳게 한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 단련,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한다.

<목차>

-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조직
- 제72회 제국의회 개원식에 내려진 칙어
- 내각 고유(告諭), 1937년 9월 9일
- 내각 훈령, 1937년 9월 9일
- 조선총독 유고(諭告), 1937년 9월 9일
- 제73회 제국의회 개원식에 내려진 칙어
- 지나사변 1주년에 즈음하여 내려진 칙어, 1938년 7월 7일
- 내각 고유, 1938년 7월 7일
- 조선총독 유고, 1938년 7월 7일
- 제74회 제국의회 개원식에 내려진 칙어
- 기원 2600년 기원절에 내려진 조서(詔書)
- 내각 고유, 1940년 2월 21일
- 조선총독 유고, 1940년 2월 21일
- 제국정부 성명, 1937년 7월 11일
- 제국정부 성명, 1937년 8월 15일
- 제국정부 성명, 1938년 1월 16일
- 제국정부 성명, 1938년 6월 23일
- 제국정부 성명, 1938년 11월 3일

제국정부 성명, 1938년 12월 22일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

1.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유래
2. 총독부 내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기구
3.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선연맹 결성 및 이후의 경과
 - 1) 조선연맹의 결성 경과
 - (1) 조선연맹 결성의 동기
 - (2) 조선연맹 창립총회
 - (3) 조선연맹의 발회식
 - 2) 조선연맹 결성 후의 경과
 - (1) 총재의 추대
 - (2) 임원의 충실
 - (3) 조선군의 협력
4. 지방연맹 및 애국반의 결성
 - 1) 지방연맹의 결성
 - 2) 애국반의 결성
5. 조선연맹의 목적 및 본질
6.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개황
 - 1) 일반실천사항
 - (1) 정동운동 개시 전의 사항
 - (2) 정동운동 개시 후의 사항
 - ① 애국일의 설정
 - ② 황국신민의 서사 제정
 - ③ 주간행사의 실시
 - ④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실천요목의 결정
 - ⑤ 비상시국민생활개선기준의 결정
 - 2) 시국인식과 계발선전 및 지도
 - (1) 강연 및 강습
 - ① 순회강연
 - ② 전선중견청년의 지도
 - ③ 지도책임자의 강습
 - ④ 경찰좌담회
 - (2) 인쇄물을 통한 지도계발 및 선전
 - ① 『통보(通報)』의 발행
 - ② 기타 소책자

- (3) 활동사진을 통한 선전 및 계발
- (4) 뉴스사진의 배부
- (5) 종이연극을 통한 지도계발
- (6) 라디오를 통한 선전 및 지도계발
- (7) 전람회를 통한 지도계발
- 3) 국민정신총동원 진전 조장시설
 - (1) 시국대책조사회의 검토
 - (2) 중견청년수련소의 건설
 - (3) 정동운동에 대한 국고보조
 - (4) 교학연수소의 설치
 - (5) 유림연합회의 결성
- 7.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현황
 -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직체 활동의 현황
 - 2)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현황
 - (1) 당면 필행 2칙
 - (2) 애국일 행사
 - (3) 연맹추진대의 설치
 - (4) 애국반의 활동상황
 - ① 일반적 사항
 - (ㄱ) 애국일 행사
 - (ㄴ) 근로봉사
 - (ㄷ) 폐품회수
 - (ㄹ) 군사원호
 - (ㅁ) 저축장려
 - (ㅂ) 근로보국
 - (ㅅ) 식량대책에의 협력
 - (ㅇ) 지원병의 후원
 - ② 한해와 애국반의 활동
 - (ㄱ) 애국반의 활동과 민심안정
 - (ㄴ) 한해대응대책과 애국반의 활동
 - (5) 가맹단체 활동의 특이사항
 - ① 전 조선 유림도 일어나 정동에 합류하다
 - ② 기독교도의 일본화운동
 - ③ 전 조선 문인도 정동운동에 적극참여
 - ④ 상공업자의 경제보국운동

8. 연맹운동과 기존운동과의 관계

〈별지첨부서류〉

1. 조선총독부의 국민정신총동원 기구
 - 1)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규정
 - 2)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위원 및 간사 명부
2.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개요
 - 1) 취지
 - 2)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설립 연혁
 - 3) 선언
 - 4)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직대강
 - 5) 국민정신총동원 정동리부락연맹 규약 준칙
 - 6)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강령
 - 7)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규약
 - 8)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약
 - 9)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가맹단체 명부
 - 10) 국민정신총동원 결성 상황 조(調)
 - 1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표준복 양식

〈부록〉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자료

1. 총독 고사(告辭), 담화 기타
 - 1) 조선연맹 발회식에서의 총독 고사
 - 2) 국민정신총동원연맹 타합회에서의 총독 고사
 - 3) 총재추대식에서의 총독 훈시
 - 4) 연맹 지도자에 바라는 총독 담화
 - 5)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총독 담화
 - 6)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임원총회 석상 총독 인사
 - 7) 기원 2600년 기원절에 즈음한 총독 담화
 - 8) 국민정신총동원 전매연맹 지도자 강습회에서의 정무총감 훈화
 - 9) 국민정신총동원 지방연맹 대회 총독 고사 훈시
 - (1)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북도연맹 지도자 대회 총독 고사
 - (2)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남도연맹 대회 총독 고사
 - (3)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 정읍면 연맹 이사장 대회 총독 훈시
 - (4) 국민정신총동원 강원도 군읍면 연맹 지도자 대회 총독 고사

- (5)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북도연맹 대회 총독 고사
- (6)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남도연맹 대회 총독 고사
- (7) 국민정신총동원 함경남도연맹 대회 총독 고사
- (8) 한해극복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남도연맹 대회 총독고사
- (9)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연맹 대회 총독 고사
- (10)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남도연맹 대회 총독 고사

부(附)

- (1) 각 도 정동연맹 사무담당자 타합회에서의 문서과장 인사
- (2) 국민정신총동원 전매연맹 1주년 기념식에서의 문서과장 축사

2. 정동 기본 통첩류집

- 1)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에 관한 건
- 2) 국민정신총동원 비상시 재정경제에의 협력강조의 건
- 3)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 및 조직대강 제정에 관한 건
- 4)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관한 건
- 5)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건
- 6)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에 대한 군 측의 협력에 관한 건
- 7)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건(기존 운동과의 연락조정)
- 8)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원 필행 2칙 제정의 건
- 9) 조선에서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
- 10) 지방출장시의 애국반 활동상황시찰요항의 건
- 11) 국민정신양양순회강연회 실시의 건
- 12) 흥아봉공일에 관한 건
- 13) 휴일시의 애국일(흥아봉공일) 실시방침에 관한 건
- 14) 애국일(흥아봉공일)의 방송자료에 관한 건
- 15) 애국일(흥아봉공일) 행사실시의 건
- 16) 공사생활을 쇄신하여 전시대세화하는 구체적 방책에 관한 건
- 17) 애국반의 활동을 적극적 자발적으로 만드는 방책에 관한 건
- 18) 만주사변 8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 19) 포상(褒賞)조례 제2조에 의한 공익단체로서의 인정 건
- 20) 100억 저축 강조실시에 관한 건
- 2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직도해에 관한 건
- 22)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사무분장의 건
- 23)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특수사항 실시에 관한 건
- 24) 세모(歲暮)의 증답(贈答) 폐지에 관한 건

- 25) 경제전강조운동 실시에 관한 건
- 26) 경성부 내 애국일 행사 등에의 참가 건
- 27) 경제통제에 대한 국민적 협력에 관한 건

3. 지방연맹대회 기타

- 1)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북도연맹대회
- 2)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남도연맹대회
- 3)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 정읍면연맹 이사장대회 및 지도자 강습회
- 4) 국민정신총동원 강원도 군읍면연맹 지도자 대회
- 5)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북도연맹대회
- 6)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남도연맹대회
- 7)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북도연맹 지도자 강습회
- 8) 국민정신총동원 함경남도연맹대회
- 9) 한해극복국민정신총동원 충청남도연맹대회
- 10)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연맹대회
- 11)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남도연맹대회
- 12) 국민정신총동원 황해도연맹 사무담임자 타합회
- 13) 국민정신총동원 함경북도연맹 지도자 타합회
- 14)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북도 군연맹 지도자 타합회 및 부인단체 좌담회

4. 통첩, 시설 및 행사일람표

○ 팔괘일우(八紘一宇)의 조치

내가 동쪽을 정벌하기 시작한지 6년이 되었다. 천황의 위세를 받아 적을 쳤는데 주변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남은 자들은 저항하기도 힘들고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광대한 황도와 황궁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지금 태초의 습성이 이어져 백성의 마음은 소박하여 발가벗고 동굴에 거주하는 풍습이 여전하다. 천황제를 세워 의를 항상 지켜 백성을 이롭게 한다면 누가 천황의 길을 방해할 것인가. 산림을 개척하고 황실을 측량하여 궁을 만들고 예로써 권좌에 앉아 만민을 다스려야 한다. 위로는 하늘 나라를 받들고 덕으로 답하며, 아래로는 황손의 올바름을 배양하는 마음을 넓혀야 한다. 그런 후에 육합(六合)¹⁾을 합하여 수도를 열고, 천하를 통일하여 한 집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울 것인가. 대개 우네비야마(畷傍山) 동남(東南)의 가시하라(檣原) 땅은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곳(경단)이 되니, 이를 다스려야 한다.

○ 제72회 제국의회 개원식에 내려진 칙어

짐은 여기에 제국의회 개원식을 행하며 귀족원 및 중의원 각 원에게 고하노라.

짐은 제국과 중화민국과의 제휴협력에 따라 동아의 안정을 확보하여 공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중화민국이 깊이 제국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 이번 사변을 보기에 이르렀다. 짐은 이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 짐의 군인은 백난(百難)을 물리치고 그 충용(忠勇)을 떨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중화민국의 반성을 촉구하고, 빨리 동아의 평화를 확립하고자 함이다.

짐은 제국신민이 오늘날의 시국을 감안하여 충성을 바치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찬양(贊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

짐은 국무대신에게 명령하여 특히 시국에 관해 긴급한 추가예산안 및 법률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였다. 경(卿)들이 짐의 뜻을 받아들여 화충협익(和衷協翼)의 임무를 다하기 바란다.

○ 내각 고유(告諭) 호외(1937년 9월 9일)

제72회 제국의회 개원식에 즈음하여 우약(優渥)한 칙어를 받들어 제국의 앞날을 밝히고, 국민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성려(聖慮)가 광원(宏遠)하여 진정으로 몸 둘 바 모르겠고 감격스럽기 그지없다.

삼가 생각건대 제국은 동아의 안정을 기대하여 항상 일본과 지나 양국이 서로 제휴함으로써 세계평화의 기초를 수립하기 바란다. 이는 이웃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 나라와 행복을 함께 하는 길이라는 제국의 일관된 국시이다. 그런데 지나는 항상 인교(隣交)의 우의를 잃고 신의를 상실하여 오랜 기간 배일과 항일을 국책으로 삼았다. 제국의 권익을 침범하는 폭상(暴狀)을 드러내어 결국 이번의 사태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출정한 장병 이외에 총후의 국민은 안으로 응징(膺懲)의 보무(步武)에 힘쓰며 봉공의 지성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변은 그 연유가 멀고, 사태의 추이 또한 결코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이번에 국민 모두는 시국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더욱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지조를 견지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1) 상하 사방 십방세계,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라는 여섯 개의 장소. 즉 하늘 아래 모든 곳.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내어 소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과감히 매진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모든 난국을 타개하고 국운의 융창을 도모하는 길은 우리의 존엄한 국체에 의거하여 진충보국의 정신을 더욱 떨쳐 일으키고, 이를 국민 일상의 업무생활 사이에 실천하는 것에 있다. 이번 국민정신의 총동원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예전부터 우리 국민은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나 이를 극복하여 국가흥융의 성과를 거두어왔다. 어려운 시국에 즈음하여 국민은 깊이 이러한 취지를 체현하여 충성을 다하고 모두 협심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본정신을 양양하여 거국일치의 내실을 거두고, 이를 실천에 옮겨 더욱 국력의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본 대신은 모든 국민이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고 받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1937년 9월 9일

내각총리대신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 내각 훈령 호외(1937년 9월 9일)

각 관청

제72회 제국의회 개원식에 즈음하여 우악(優渥)한 칙어를 받들어 제국의 앞날을 밝히고, 국민이 나아가 갈 길을 제시하였다. 성려굉원(聖慮宏遠)하여 참으로 몸 둘 바 모르겠고 감격스럽기 그지없다.

삼가 생각건대 이번 사변은 그 연유가 멀고, 사태의 추이 또한 결코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이번에 관직에 봉사하는 자는 모두 시국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더욱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지조를 견지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내어 소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과감히 매진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모든 난국을 타개하고 국운의 융창을 도모하는 길은 우리의 존엄한 국체에 의거하여 진충보국의 정신을 더욱 떨쳐 일으키고, 이를 국민 일상의 업무생활 사이에 구현하는 것에 있다. 이번 국민정신의 총동원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현하의 시국에 이르러 일본정신을 양양하고 솔선하여 이를 실천에 옮겨 더욱 국력의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황운을 부익하고 받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내각총리대신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 유고(諭告, 1937년 9월 9일)

천황 폐하께서 임시제국의회 개원식에 친히 임석하시어 우악(優渥)한 칙어를 내리셨다. 제국 용무(用武)의 정신의 하나는 다름 아닌 중화민국의 반성을 촉구하고, 신속히 동아의 평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을 밝히셨다. 군인의 충용을 기뻐함과 더불어 일반 국민에 대해 충성봉공, 화협일심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깨우쳐주셨다. 성지(聖旨)가 숭광(崇曠)하여 몸 둘 바 모르겠고 감격을 금할 수 없다.

본 총독은 우리 조선에서는 사변 이후 국민적 신념을 하나로 하여 애국의 지성을 구현하고, 거국의 급변에 대응하여 내선일체의 내실을 거두는 것에 깊이 감명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국가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변은 지금 확대되어 장기의 시련을 참아낸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반도 국민 모두 시국의 추향(趨向)을 명찰(明察)하는데 힘을 기울이면서 견인지구(堅引持久), 생업보국(生業報國)의 신념을 견지하고 협심육력(協心戮力)하여 성지에 보답하여야 한다.

모든 관민은 각각 모름지기 뜻을 굳건히 하고 각기 본분에 따라 시난(時難)의 극복에 매진하기를 바라노라.

1937년 9월 9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 제73회 제국의회 개원식에 내려진 칙어

짐은 여기에 제국의회 개원식을 행하며 귀족원 및 중의원 각 원에게 고하노라.

제국과 체맹(締盟) 각국과의 교제는 더욱 친후(親厚)를 더하여 짐은 정말 기쁘다.

짐의 장병은 매번 전첩(戰捷)을 아뢰고 커다란 용무(勇武)를 중외에 떨치고 있고, 짐의 충후의 신민 또한 잘 협력 일치하여 시난(時難)에 대응하고 있다.

짐은 거국신민의 충성을 의지하고 믿으며 신속히 중국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짐은 국무대신에게 명하여 1938년도 및 임시군사비의 예산안을 제반 법률안과 더불어 제국의회에 제출하였다. 짐은 경(卿)들이 시국의 중대함에 비추어 화충심의(和衷審議)를 통해 협찬(協贊)의 임무를 다하기 바란다.

○ 지나사변 1주년에 즈음하여 내려진 칙어(1938년 7월 7일)

이번 사변의 발발 이후 1년간 짐의 용무(勇武)한 장병은 과감히 역투하여 전국(戰局)이 진행되었다. 짐의 충량(忠良)한 신민은 협심육력(協心戮力)하여 충후의 대비를 견고히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생각건대 지금 적년(積年)의 화근을 단절시키지 못한다면, 동아의 안정은 영구히 얻을 가망이 없다. 일본과 지나의 제휴를 견고히 하여 공영의 내실을 올린다면, 이는 세계평화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관민 모두 그 본분을 다하여 어려움을 물리치고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더욱 국가의 총력을 함께 모아 이 세국(世局)에 대처하고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라마지 않는다.

○ 내각 고유(1938년 7월 7일)

오늘 지나사변 발발 1주년에 즈음하여 성려굉원(聖慮宏遠)함을 알 길이 없다. 친히 우악(優渥)한 칙어를 내리시니 참으로 몸 둘 바 모르겠고 감격스럽기 그지없다.

삼가 생각건대 항일 용공 정권의 궤멸을 도모하여 일본과 지나의 제휴를 견고히 하는 것이 바로 동아의 안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사변의 전도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에 조야일체 견인지구의 태세를 정비하면서 모든 시책은 국가의 총력을 모아 사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진충보국의 일념으로 만난을 물리치고 성려(聖慮)에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본 대신이 모든 국민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다.

1938년 7월 7일

내각총리대신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 유고(1938년 7월 7일)

지나사변 1주년에 즈음하여 친히 우악(優渥)한 칙어를 내리시고 평원(宏遠)한 성려(聖慮)를 받아 모시니 참으로 몸 둘 바 모르겠고 감격스럽기 그지없다.

삼가 생각건대 밖으로는 황군의 위무(威武)에 의한 혁혁한 전과(戰果)를 올리고, 안으로는 조야일심(朝野一心)으로 총후의 태세를 하나로 하면서 조종(朝宗)의 유열(遺烈)을 계승하여 건덕(乾德)이 모든 곳을 비추고 있다. 이는 천황 폐하의 커다란 능위(稜威)에 의한 것이다. 지금 사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국가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 정말로 억조숙연(億兆肅然)의 감명을 새롭게 하여 총후의 충절을 다해야 한다. 본 총독은 이미 설시(說示)한 강요(綱要)에 의거하여 다만 관내의 모든 관민의 일치결속을 통해 만난을 극복하고 반도의 부하(負荷)를 완수함으로써 성지에 보답하고자 한다.

1938년 7월 7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 제74회 제국의회 개원식에 내려진 칙어

짐은 여기에 제국의회 개원식을 행하며 귀족원 및 중의원 각 원에게 고하노라.

제국과 체맹(締盟) 각국과의 교제는 더욱 친후(親厚)를 더하여 짐은 정말 기쁘다.

짐의 장병은 능히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나의 요역(要域)을 감정(戡定)하였다. 하지만 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동아의 영원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로 국민정신의 양양과 국가총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짐은 거국신민의 충성을 의지하고 믿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짐은 국무대신에게 명하여 1939년도 및 임시군사비의 예산안을 제반 법률안과 더불어 제국의회에 제출하였다. 경(卿)들은 시국의 중대함에 비추어 화총심의(和衷審議)를 통해 협찬(協贊)의 임무를 다하기 바란다.

○ 기원 2600년 기원절에 내려진 조서(詔書)

짐이 생각건대 신무(神武)천황은 유신(惟神)의 대도(大道)를 우러러 일계무궁(一系無窮)의 실조(實祚)를 계승하고,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비기(丕基)를 정하여 천업(天業)을 경륜하였다. 역조(歷朝)는 이후 계승하면서 인애(仁愛)로써 백성을 돌보았고, 백성은 충후(忠厚)로써 짐을 받들었다. 군민일체로 짐을 세상에 붙잡아 이에 기원 2600년을 맞이하였다. 逮

지금 비상 세국(世局)에 즈음하여 그 기원의 가절(佳節)에 신민 모두가 신무천황의 창업에 예를 갖추고, 황국의 평원(宏遠)으로 황모(皇謨)의 웅심(雄深)함을 생각하기 바란다. 화총협익(和衷協翼)하여 더욱 국체의 정화를 발휘하고 시난(時難)을 극복하여 국위를 선양함으로써 조종(祖宗)의 신령(神靈)에 보답해야 한다.

1940년 2월 11일

○ 내각 고유(1940년 2월 21일)

기원 2600년 기원의 가절(佳節)을 맞이하여 성려(聖慮)가 굉원(宏遠)하게도 친히 우악(優渥)한 조서(詔書)를 환발(渙發)하시어 신민 부익의 길을 친히 밝히시니 참으로 몸 둘 바 모르겠고 감격스럽기 그지없다.

삼가 생각건대 신무(神武)천황 유신(惟神)의 대도(大道)를 우리러 일계무궁(一系無窮)의 실조(實祚)를 계승하고,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비기(丕基)를 정하여 천업(天業)을 경륜함으로써 황통이 여기에 2600년간 연면히 이어졌다. 역조창생(歷朝蒼生)을 혜무자양(惠撫慈養)하시어 신민을 이끌었고, 진충보국의 정성을 다하여 황기(皇基)가 더욱 견실해지면서, 보조(寶祚)는 융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국사(國史)의 성적(成跡)이 우내(宇內)에 빛나고 있다. 우리는 신주(神洲)에서 삶을 누리는 광영에 감격하여 정신(挺身)으로 신절(臣節)을 다하고, 국가의 흥륭(興隆)과 국위의 선양에 힘써야 한다.

지금 제국은 동아신질서 건설의 위업에 매진하고 있다. 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밖으로는 출정 장병의 용전분투와 안으로는 충후국민의 봉공지성으로 착착 전과를 거두어 동아시아의 안정, 일본과 지나의 제후를 통해 앞으로 그 실마리가 잡힐 듯하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지극히 복잡한 지금에 즈음하여 제국의 원대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도에 수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성지를 격존(格尊)하고 일역일심과 화충육력(和衷戮力)으로 각각 그 업무에 정려(精勵)해야 한다. 엄히 황태(荒怠)를 경계하고 실질강건(實質剛健)하면서, 백난(百難)을 물리치고 만고(萬苦)를 참아내어 국가흥륭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는 모두 천양무궁한 황운을 부익하고 받드는 신민보익(臣民輔翼)의 대의이다. 또한 이는 우리 조선(祖先)의 유풍(遺風)을 현창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대조(大詔)를 받들어 모든 국민은 마땅히 결의를 새롭게 하고 동심협력으로 성지를 받들어야 한다.

1940년 2월 11일

내각총리대신 요나이 미쓰마사(米内光政)

○ 유고(1940년 2월 21일)

기원 2600년 기원의 가절(佳節)을 맞이하여 외람되게 우악(優渥)한 조서(詔書)를 환발(渙發)하시니 성려(聖慮)가 굉원(宏遠)하여 참으로 몸 둘 바 모르겠고 감격스럽기 그지없다.

감히 생각건대 신무(神武)천황 유신(惟神)의 대도(大道)를 우리러 일계무궁(一系無窮)의 실조(實祚)를 계승함으로써 여기에 2600년간 역조만민(歷朝萬民)을 안무(安按)하시었다. 신민익찬(臣民翼贊)의 정성으로 더욱 황운이 높아지고 국익을 떨치면서 군민일체를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천황 폐하의 능위(稜威) 아래, 출정 장병의 용전분투와 충후국민

의 지성봉공으로 흥아유신(興亞維新)의 실장(實將)을 크게 거두었다. 하지만 세계의 정세가 지극히 복잡하여 여전히 전도에 수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번에 천황 폐하께서는 외람되게 시난(時難)을 극복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다. 본 총독은 이미 설시(說示)한 강령에 의거하여 다만 관내의 모든 관민의 협력일치를 통해 만난을 극복하고 반도의 사명에 매진함으로써 성지에 보답하고자 한다. 관민은 이를 받들어라.

1940년 2월 11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 제국정부 성명(1937년 7월 11일)

지나 주둔군은 지나 측의 모일(侮日) 행위에 대해 은인정관(隱忍靜觀) 중인 바, 종래부터 우리와 제휴하여 북지(北支)의 치안을 맡던 제29군의 7월 7일 야반의 노구교 부근에서의 불법사격을 계기로 결국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평진(平津) 방면의 정세는 긴박해졌고, 우리 재류민은 정말로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다. 우리는 화평 해결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건 불확대의 방침에 따라 국지적 해결에 노력하였다. 일단 제29군에서 화평적 해결을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7월 10일 밤에 이르러 그들은 더욱이 불법적으로 우리를 다시 공격하여 아군에서는 상당한 사상자가 나왔다. 그들은 제1선의 병력을 증가시키고 서원(西苑)의 부대를 남진시켰다. 더욱이 중앙군에게 출동을 명하는 등 무력적 준비를 진행함과 더불어 평화적 교섭에 응하려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북평(北平)에서의 교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완전히 지나 측의 계획적인 무력 항일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생각건대 북지 치안의 유지가 제국 및 만주국에게는 긴급한 일라는 것은 여기에서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는 바이다. 지나 측이 불법행위는 물론 배일 모일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당히 보장하는 것이 동아의 평화유지에서 극히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북지 파병에 관해 정부로서 취해야 할 소요(所要)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지나 측의 신속한 반성을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 또한 열국의 권익 보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를 고려하겠다.

○ 제국정부 성명(1937년 8월 15일)

제국은 동아의 영원한 평화를 바라면서 일본과 지나 양국의 친선 제휴에 힘을 쏟아온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남경정부는 배일과 항일을 국론양양과 정권강화의 도구로 삼으면서 자국 국력의 과신과 제국의 실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었다. 나아가 그들은 적화세력에 구합(苟合)하여 반일과 모일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제국에 적대하려는 기운을 양성(釀成)하였다. 근년 여러 번 야기된 불상사건은 모두 여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변의 발단 또한 이러한 기세가 그 폭발점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통주(通州)에서 신(神)일지라고 용서할 수 없는 잔학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욱이 중남지(中南支)에서는 지나 측의 도전적 행위로 인해 제국신민의 생명과 재산이 이미 위태한 상태에 빠졌다.

우리 거류민은 다년간에 걸쳐 건설한 안주의 땅에서 눈물을 머금고 결국 일시적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면 사변 발생 이후 수차례 성명한 바와 같이, 제국은 은인(隱忍)에 은인을 거듭하면서 사건의 불확대 방침을 취해왔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평화적이고 국지적으로 사태를 처리하려고 노력하였다. 평진(平津) 지방 지나군의 누차에 걸친 도전 및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지나 주둔군은 교통선의 확보와 우리 거류민의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자위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제국정부는 남경정부에 대해 도전적 언동의 즉각적인 정지와 현지 해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남경 정부는 우리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대해 더욱 전비(戰備)를 정비하고, 엄존하는 군사협정을 파기하는데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군을 북상시켜 우리 지나 주둔군을 위협하고, 한구(漢口)와 상해 기타 지역에서도 병(兵)을 모으는 등 더욱 도전적 태도를 노골화시켰다. 상해에서는 드디어 우리를 향해 포화를 열었고, 제국 군함에 폭격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나 측은 제국을 경모(輕侮)하고 불법적인 포학을 멈추지 않았다. 지나 전역에 걸쳐 우리 거류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태한 상태에 빠졌다. 제국으로서는 더 이상 참는 것이 한계에 달하였다. 지나군의 폭거를 응징하고, 남경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동양평화를 염원하고 일본과 지나의 공존공영을 바라는 제국으로서 이번 사태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제국이 바라는 바는 어디까지나 일본과 지나의 제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에서의 배외(排外) 항일운동을 근절시키고, 이번 사변과 같은 불상사 발생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일만지(日滿支) 3국간의 융화 제휴의 내실을 거두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제국은 원래부터 조금도 영토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지나 국민을 항일로 내몰고 있는 남경정부 및 국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지, 일반대중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의를 품고 있지 않다. 또한 열국 권익의 존중에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이다.

○ 제국정부 성명(1938년 1월 16일)

제국정부는 남경 공략 이후에도 여전히 지나 국민정부의 반성에 최후의 기회를 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민정부는 제국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항전을 획책하고 있다. 도탄에 신음하는 민중의 고통을 보살피지 않고, 동아 전국(全局)의 화평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에 제국정부는 이후 국민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겠다. 제국과 진정으로 제휴할 수 있는 신흥 지나 정권의 성립 발전을 기대한다. 제국은 양국의 국교를 조정하여 신생 지나의 건설에 협력하고자 한다. 또한 제국이 원래부터 지나의 영토와 주권 및 재지(在支) 열국의 권익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은 조금도 변함없다.

지금 동아의 화평에 대한 제국의 책임감은 무겁다. 정부는 국민이 이러한 중대한 임무수행을 위해 더 한층 발분(發奮)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제국정부 성명(1938년 6월 23일)

지나사변은 서주(徐州) 함락을 계기로 커다란 진전을 보기에 이르렀지만, 아직 그 전도가 요원하다.

제3국의 지원을 바라며 장기저항을 표방하는 국민정부의 철저한 궤멸을 위해 제국은 병력을 점차 증강시키고 있다. 지금 아국의 유사 이래의 대군은 육해공에 걸쳐 분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충후시설의 작전행동에 지장을 주지 않음으로써 제국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시책을 전쟁 목적의 관철에 집중해야 한다. 관민일체와 장기지구의 전시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시국에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당면의 급무는 물자의 통제운용을 가장 유효 적절히 실시하는 것에 있다.

즉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수출의 진흥, 생산의 증가, 배급소비의 통제에 관한 정책의 철저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긴박해졌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사태에 즉응하고 군수품 및 수출원료 충족을 우선시하는 물자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긴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방책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국방의 안고(安固)와 국민경제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1. 군수자재의 공급확보, 수출의 진흥 및 국민생활 유지, 외환시장의 건지를 위해 현재 이상의 물가 등귀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강구, 기준가격 또는 공정가격의 설정, 이밖에도 소비절약 및 배급통제의 강화를 통해 물가의 인하를 유도할 것
2. 일반물가에 대해 극력 소비절약을 도모할 것. 특히 수입물자는 필요에 따라 사용제한 내지 금지, 대용품 사용강제 등의 방법을 통한 국내불급용도에 대한 물자의 소비절약을 철저히 강화할 것
3. 수출증진을 위해 종합계획 아래 일반적 촉진책을 강화할 것 이외에,
 - 가. 제품의 수출과 그 원료의 수입을 링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출용 원료재료의 수입을 확보할 것
 - 나. 수입원료 재료를 국내소비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여 수출용 원료재료의 국내소비 전용을 철저히 방지할 것
4. 주요 물자에 대해 수입 및 배급의 적정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제도 기타 기구의 완비를 도모할 것
5. 저축의 보급 및 철저를 도모할 것
6. 관민일체가 되어 간소한 비상시국생활양식의 확립에 노력할 것
7. 주요 물자의 증산 특히 □산의 증강에 철저한 조치를 강구할 것
8. 군수공업 능력증진을 위해 교대제의 채용 및 노무자의 급속 충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9. 폐품회수를 위해 종래의 업자 이외에 각종단체의 협력을 요구하여 그 조직화를 도모할 것
10. 전업 및 이에 따른 실업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제국정부 성명(1938년 11월 3일)

지금 폐하의 능위(稜威)로 제국의 육해군은 광둥(廣東), 무한삼진(武漢三鎮)을 공략하여 지나의 요역(要域)을 감정(戡定)하였다. 국민정부는 이미 지방의 일개 정권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정부는 항일용공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제국은 이의 궤멸을 보기까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국이 추구하는 바는 동아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할 신질서의 건설에 있다. 이번 정전(征戰)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신질서의 건설은 일만지(日滿支) 3국이 제휴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에 걸쳐 상호 연환(連環)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근간이다.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정의의 확립, 공동방공의 달성, 신문화의 창조, 경제 결합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이는 실로 동아를 안정시키고 세계의 진운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국이 지나에게 바라는 바는 이러한 동아시아신질서 건설의 임무를 분담하는 것에 있다. 제국은 지나 국민이 우리의 진의를 이해함으로써 제국의 협력에 보답하는 것을 기대한다. 설령 국민정부라 하더라도 종래의 지도정책을 일소하고, 그 인적 구성을 바꾸어 갱생의 내실을 올리면서 신질서의 건설에 참여한다면 이를 거부하지 않겠다.

제국은 열국 또한 제국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동아시아신질서에 적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가운데 맹봉(盟朋) 제국의 후의가 아주 깊어 마음 든든하다.

생각건대 동아시아에서의 신질서 건설은 우리 조국(肇國)의 정신에 그 연원이 있다. 이를 완성하는 것은 현대 일본국민에게 부과된 영광스러운 책무이다. 제국은 필요한 국내 제반의 개신을 단행하여 더욱 국가총력의 확충을 도모하고 만난(萬難)을 극복하여 이의 달성에 매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는 제국 부동의 방침과 결의를 성명한다.

○ 제국정부 성명(1938년 12월 22일)

정부는 금년에 다시 한 번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종일관 항일 국민정부의 철저한 무력 파탕(播蕩)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나의 동우구안(同憂具眼)의 인사와 제휴하여 동아시아신질서의 건설을 향해 매진하고자 한다. 지금 지나 각지에서는 갱생의 움직임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건설의 기운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이 갱생하는 지나와의 관계를 조정하고자 근본방침을 중외에 천명함으로써 제국의 진의를 철저히 도모하고자 한다.

일만지(日滿支) 3국은 동아시아신질서의 건설을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하여 상호의 선린우호, 공동방공, 경제제휴의 내실을 거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나는 먼저 무엇보다도 구래의 편협한 관념을 청산하고, 항일의 어리석음과 만주국에 대한 잘못된 역매임을 버릴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은 지나가 나아가 만주국과 완전한 국교를 수립하는 것을 솔직히 요망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천지에는 코민테른 세력의 존재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독일과 이탈리아와의 방공협정의 정신에 따라 일지(日支) 방공협정의 체결을 일지 국교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삼는다. 그리고 지나의 현존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방공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 협정의 계속기간 중에 특정 지점에 일본군의 방공 주둔을 인정할 것과 내몽고 지방을 특수 방공지역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일본과 지나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일본은 지나에서의 경제적 독점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 또 새롭게 동아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여 행동하려는 선의의 제3국의 이익을 제한하도록 지나에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어디까지나 일본과 지나의 제휴와 협력을 통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즉 일본과 지나의 평등의 원칙 위에서, 지나의 제국신민에게 지나 내지에서의 거주 영업의 자유를 용인하면서 양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해야 한다. 또 양국의 역사적 경제적 관계를 감안하여 특히 북지 및 내몽고 지역에서 그 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해 일본에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이 지나에 요구하는 것의 대강은 이상과 같다. 일본이 일부러 대군을 움직이지 않는 진의를 이해한다면, 일본이 지나에 요구하는 것은 결코 영토가 아니고, 또한 전비(戰費)의 배상도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일본은 실로 지나가 신질서 건설의 분담자로서의 직능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나의 주권을 존중함은 물론, 나아가 지나의 독립 완성을 위해 필요한 치외법권을 철폐하고, 조계(租界)의 반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

1. 조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유래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은 일시동인의 성지에 순종하여 반도동포의 국체관념을 확립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견확(堅確)하게 만들어 내선일체를 통해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고 받들어 황도를 선양하는 데 있다. 이는 역대 총독의 시정에서 특히 강조해온 바이다. 특히 미나미(南) 총독은 1937년 4월 도지사회의 훈시 중에 총독 시정의 근본 5정강의 벽두에 ‘국체명징(國體明徵)’을 내걸었다. 더욱이 ‘교학쇄신(敎學刷新)’이라는 강목을 내건 이후 이의 강화 철저를 강조하였다. 같은 해 7월 7일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지나사변이 발발하고, 일본 전국은 모두 사변 처리에 집중하여 동아신질서 건설의 대업에 매진하게 되었다. 물심양면에 걸쳐 국가총력발휘 체제를 취하였고, 대륙에서의 일본의 일익(一翼)인 조선의 지위 또한 중대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조선은 대륙에 있어서 제국의 전진병참기지로서의 지위에 위치하고, 지나사변은 물론 장고봉 및 노몬한 사건 등 국경분쟁을 통해 대소(對蘇)관계로부터 바라본 현시국 하에서 떠안아야 할 책무는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사태에서 반도동포 2300만 모두는 황국신민으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체제 아래 내선일체, 협심육력(協心戮力)하여 시국의 급무에 대응하는 것이 제국의 대륙정책 수행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에 조선에서는 반도동포의 급속한 황국신민화 및 내선일체의 구현을 최급무로 삼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최선의 방책으로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철저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나사변 발생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임시 도지사회의, 중추원회의, 민간유력자 또는 언론기관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총독은 시국인식 및 정신총동원에 관한 중대결의를 둘러싸고 훈시 또는 간담을 통해 관민이 일치하여 난국에 대처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 가운데 지나사변 발발 직후인 1937년 7월 15일 임시 도지사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시국에 대처할 방책으로 다음 3항목을 내걸었다.

- (1) 반도 주민에게 널리 시국의 중대성을 철저히 주지시킬 것
- (2) 오늘날 진정으로 동아의 안정 세력으로서 전국(全局)의 안위(安危)를 짊어진 일본제국의 지도적 지위를 내선일체인 반도의 민중에게 확인시킬 것
- (3) 지나의 전모를 올바르게 일반에게 이해시킬 것

더욱이 총독은 “국력이라고 칭하는 것의 근원은 물론 발랄강건(潑刺剛健)한 국민정신이다. 반도 관민

의 모든 계층은 앞에서 말한 3항목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강한 신념을 지니고 각자 각각의 업무에 적응하는 수단방법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총후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즉 이것이 다른 아닌 거국일치의 내실을 거두어 봉공의 의의를 완수하는 것이다"고 부연 강조하였다. 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민정신의 양양을 촉구하면서 반도 민중이 나아갈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이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발단이였다.

2. 총독부 내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기구

앞에서 말한 임시 도지사회의에서 총독의 지시에 의거하여 올바른 시국인식과 국민정신의 양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1937년 7월 22일 총독부 내에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 부장과 관방과장을 위원, 관계 각 과장을 간사로 하는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여기에서는 계발(啓發)선전에 힘을 기울여 총후민심의 계도(啓導)에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 총독부를 비롯해 모든 관계기관을 통해 반도 민중 2,300만 모두가 빠짐없이 철저한 시국인식과 거국일치, 진충보국 정신의 함양과 계발에 노력함으로써 일본정신을 양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국의 진전과 더불어 조선동포의 총후의 적성(赤誠)을 집중 통일할 필요에서 일대 조직의 단체를 결성하고 국민운동의 통제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관민을 서로 하나로 묶어 드디어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기구의 확충에 따라 총독부 내의 기구도 강화 확충이 필요하였다. 이에 1939년 4월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및 동 간사회를 설치하여 총독부 내에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함과 동시에, 그 기본방책을 결정하여 조선연맹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는 등 본 운동을 기획 지도하였다.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규정 및 동 위원과 간사는 부록에 제시한 바와 같다.

또한 본 위원회, 간사회 및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관한 사무는 1부국(部局)에 편중될 수 없다는 명분에서 관방문서과를 설치하고, 총독부 내에서의 기구의 정비강화 및 본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로써 진정으로 총동원제제가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3.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선연맹 결성 및 이후의 경과

1) 조선연맹의 결성 경과

(1) 조선연맹 결성의 동기

관민 모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철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에 협력하여 측면으로부터 총독정치를 보조하고, 국민의 자주적 활동을 촉구할 지도계발의 실천기관으로서 강력한 외곽적 단체를 창설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기운 속에서 총독부의 알선에 따라 1938년 6월 12일 야나베 에이사부로(矢鍋永三郎), 마에다 노보루(前田昇), 니와 세이지로(丹羽清次郎),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윤치호(尹致昊), 한상용(韓相龍), 가다 나오지(賀田直治), 조병상(曹秉相), 박영철(朴榮喆), 최린(崔麟) 등 내선 민간유력자 10명이 총독부에 모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결성 준비위원이 되었다. 이들은 거듭된 협의의 결과를 의견서로 정리하고, 같은 달 14일 총독부에서 정식으로 발기인 준

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선연맹규약안을 만들고 발기인의 인선과 연맹사무소를 결정하였다. 6월 22일에는 경성부민관에서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조선연맹 설립의 취지 및 연맹규약 각안을 심의 결정한 다음, 오노(大野) 정무총감을 명예총재로 추대하였다. 더욱이 이사장은 전형위원이 이를 전형하기로 결정하고, 본 연맹의 하부조직인 지방연맹의 결성을 중용하기 위해 지방장관 및 지방 각 방면(중추원 참의, 부윤, 도회 의원, 부회 의원, 상공회의소 회두, 금융조합 각 도연합회 이사, 읍장, 군도청 소재지 면장 등)에 지방연맹의 결성과 조선연맹에 가맹을 촉구하는 의뢰장을 발송하였다.(지방연맹의 결성 및 조선연맹에의 가맹상황은 부록과 같다.)

(2) 조선연맹 창립총회

앞의 발기인회의 회합 결과에 따라 1939년 7월 1일 오전 11시 경성부민관 대강당에서 조선연맹(경성연맹도 동시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참가한 발기인은 500여 명이었고, 야나베 에이사부로를 좌장으로 추대하여 별항의 조선연맹 설립의 '취지' 및 '연맹규약'을 결정하였다. 또 이사장에는 시오하라(鹽原) 학무국장을 추천하고, 이어서 각 임원을 결정한 다음 총회를 마쳤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임원 일동은 조선신궁에 참배하여 연맹 결성 봉고제(奉告祭)를 집행하였다.

(3) 조선연맹의 발회식

반도가 모두 하나가 된 조선연맹의 발회식은 경성연맹과 합동으로 7월 7일 지나사면 발발 1주년 기념일을 오전 10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미나미 총독, 고이소(小磯) 조선군사령관을 비롯해 각 관서 직원, 각 관공사립학교 학도 대표, 연맹가맹 각 단체 등 무려 5만 명이었다. 각 단체는 국기 및 표어기를 앞세웠고, 악대의 연주는 회장에 생기를 불러일으켜 경성은 애국의 감격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기념식은 우중에도 불구하고 아주 엄숙하게 이루어졌다. 미나미 총독은 비를 맞으며 별항과 같이 '동양평화수립의 핵심은 내선일체이다'는 뜻을 강조하여 참석자 일동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이어서 전몰자 위령제를 집행하고, 마지막으로 남북 2반으로 나누어 시내를 행진한 다음 행사를 마쳤다.

조선연맹의 발회식은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종료하였다. 조선연맹은 명실공히 진정으로 영광스럽고 강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 조선연맹 결성 후의 경과

(1) 총재의 추대

조선연맹은 오노 정무총감을 명예총재로 추대했는데, 시국의 진전에 따라 더욱 본 운동의 강화철저가 필요해지자 전임(專任) 총재를 추대할 필요가 있어 1938년 12월 6일 육군대장 가와시마(川島) 각하를 추대하였다.

(2) 임원의 충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총재의 추대는 마쳤지만, 아직 전무이사가 임명하지 않아 운동의 추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인선 결과, 1939년 2월에 육군 중좌 유카미 치사부로(由上治三郎)를, 또 같은 해 5월에는 충청남도지사 정교원(鄭橋源)을 각각 위촉하여 진용을 정비함과 동시에 같은 해 4월에는 앞에서 말한 총독부 내에 설치된 국민정신총동원 위원회에 연맹이사를, 동 간사회 간사에 연맹참사를 각각 위촉하였다. 이로써 특별히 총독부와의 긴밀한 연락의 강화확충을 도모하려는 진용이 정비되었다.

(3) 조선군의 협력

조선군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실시기구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연맹의 본질 및 그 사명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발전에 적극적으로 원조하였다. 조선연맹 총재의 고문 위촉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사회 및 참사회 등에서의 참여와 원조를 수락하였다. 더욱이 지방연맹에 대해서도 중앙에 준하여 각각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조선연맹은 군관민의 협력을 통해 명실공히 기구의 강화정비를 마치고 가장 강력한 민간단체로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4. 지방연맹 및 애국반의 결성

1) 지방연맹의 결성

조선연맹 결성준비위원회의 중용을 받은 조선 지방관민들은 곧바로 이에 찬동하여 각 도에 도연맹을, 각 부군도에 부군도연맹을, 각 읍면에 읍면연맹을, 각 정동리부락에 정동리부락연맹을 각각 연맹조직대강에 의거하여 결성을 마쳤다. 더욱이 각 관공서,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대상점 등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단체에 각종연맹을 조직하고, 각기 소재 부읍면연맹에 가맹하였다. 이들 지방연맹 또한 조선연맹의 조직적 구성으로 정비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본 운동단체인 연맹의 체계적 기구의 완비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맹은 관공민의 각 수뇌자 또는 유력자가 간부로서 운동을 실천하고 지도하였다. 조선연맹의 구성과 더불어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조선 소유계급의 수뇌자와 대표자를 망라하고 조선을 하나로 만든 명실공히 강력한 단체가 되었다.

2) 애국반의 결성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직망 가운데 최말단의 기저적(基底的) 실천기구로서 가장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동리부락연맹 및 각종연맹 밑에 대개 10호(각종연맹은 적당한 인원)로 하나의 애국반을 조직하였다. 애국반은 인보공조(隣保共助)를 통해 본 운동의 중심기구가 되었고, 연맹운동이 자발적, 적극적이면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제1선의 실천기구로서의 애국반의 존재 및 그 활동은 앞에서 말한 하부연맹의 조직망 완성과 더불어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의 큰 특징이었다. 애국반은 본 운동의 조직을 강력하고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실천적 활동을 통해 '반도동포의 황국

신민화' 및 '내선일체'의 완성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939년 6월 말 현재 도별 연맹 및 애국반 결성상황은 별표와 같다. 애국반 총수는 약 35만개, 애국반 원 수는 약 460여만 명으로, 반원 수의 대부분은 호수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가족을 감안하면 반도 주민 전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조선연맹의 목적 및 본질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목적은 앞에서 말한 조선연맹 결성의 취지 및 강령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약술하면, 즉 조선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내지와 같이 거국일치(擧國一致), 견인지구(堅引持久),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세 가지 목표 이외에, 일시동인의 성지에 의거하여 내선일체의 통치방침의 철저 및 반도 동포의 급속한 황국신민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정신총동원운동은 단순히 지나사변에 대처하는 응급적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조선통치의 대방침의 항구적 실천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운동에 의한 정신적 체제는 단순히 지나사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소련 또는 구미와의 관계 기타 어떠한 중대 사태에 대해서도 반도동포의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단순한 지도기관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소위 실천 및 지도 단체이다. 따라서 조선연맹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강력한 단체이다. 중앙본부적 단체인 조선연맹 아래 각지에는 도 이하 부락연맹 및 애국반의 결성과 여기에 더하여 각종연맹을 결성하였다. 각각의 조직은 조직목적 존재로서 조선연맹으로 통합 귀일되어 전 조선적 실천망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연맹의 본질은 조선총독부의 정신총동원에 관한 외곽단체로서 민간단체에 불과하지만, 그 성질상 조선통치의 보익(輔翼)기관으로서 관에 협력하여 조선에서의 정신운동의 철저강화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6.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개황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변 발생 후 1년 만에 결성되었지만, 이 운동은 연맹 결성 이전부터 전개되었다. 즉 일반 사회교화시설, 농산어촌진흥운동, 별도의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설립 후의 위원회 시설 등 그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연맹 결성 이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취지' 및 '동 강령'의 보급실천에 노력하였다. 그 주요한 사항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실천사항

(1) 정동운동(精動運動)²⁾ 개시 이전의 사항

조선에서는 종래 농촌의 자력갱생 및 물심양면에 걸친 농민생활의 개혁을 위해 농산어촌진흥에 힘

2)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약칭.

을 쏟아 농민의 종래 악습을 타파하고, 스스로 의식하면서 생활을 개선해나갈 목적 아래 농산어촌진흥운동의 주요 지표의 하나로 근로호애(勤勞好愛)의 철저한 지도를 도모하였다. 본건은 비상시국에 직면한 오늘날 단지 농산어촌에만 한정되지 않고 물론 특히 일반 사회에도 필요하다. 이에 사변 발발 이후는 국민정신총동원의 지도정신 밑으로 귀일시킨 다음 특별히 추진하고 있다.

(2) 정동운동 개시 이후의 사항

① 애국일의 설정

1937년 9월부터 애국일을 설정하여 학교 교직원 학생 생도 및 관계자로부터 점차 전선(全鮮) 도시, 지방부락으로 퍼져나갔다. 애국일에는 시국의 올바른 인식, 국제명징, 내선일체의 철저, 시난(時難) 극복의 정신을 더욱 강화 확립시키고자 국기계양,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근로봉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 당일은 전지(戰地)를 우러러 히노마루 도시락을 지참시키는 등 인고단련의 풍습을 강조하였다. 1939년 8월 내각에서 매월 1일을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로 결정함에 따라 조선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애국일 즉 흥아봉공일로서 이를 철저히 실시하였다.

② 황국신민의 서사 제정

1937년 10월 2일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정한 이후, 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각종 의식이나 행사 기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낭송시켰다. 특히 반도민이 황민이라는 신념을 강화시키고 이의 자각을 촉구하여 국민정신의 양양에 힘쓰고 있다.

③ 각종 주간행사의 실시

조선에서는 매년 국민정신 작흥에 관한 조서환발일(詔書換發日)을 중심으로 전후 1주간을 '국민정신 작흥주간'으로 정하여 적절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였다. 1937년 이후에는 더욱이 '국민정신총동원 강조주간', '국민정신총동원 충후보국강조주간', '국민정신총동원 저축보국주간', '국민정신총동원 경제전 강조주간', '국민정신총동원 충후후원 강화주간', '연말연시 충후보국 강조주간' 등을 설정하여 그 실천에 노력하였다. 1939년에 들어와서는 조선연맹의 연중행사로서 '일본정신 발양주간', 황실에 대한 '보국감사일', '근로보국주간', '무신(戊申)조서 환발기념일'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등 각종 주간행사를 강조하고 있다.

④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실천요목의 결정

1938년 7월 조선연맹이 결성되자 같은 해 9월 동 연맹 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요목'을 결정하여 모든 연맹원에게 일반적 실천지표를 주어 그 실천궁행에 노력하고 있다.

〈실천요목〉

1. 매일 아침 궁성 요배
2. 신사참배 장려
3. 조상의 제사 장려
4. 기회 있을 때마다 황국신민의 서사 낭독
5. 국기의 존중, 계양의 장려

6. 국어생활의 장려
7. 비상시 국민생활 기준양식의 실행
8. 국산품 애용
9. 철저한 소비절약과 저금의 장려
10. 국채응모 권장
11. 생산의 증가 및 군수품 공출
12. 자원의 애호
13. 근로보국대의 활약 강화
14. 1일 1시간 이상 근로증가의 장려
15. 농산어촌갱생 5개년 계획의 완전 실행
16. 전가(全家) 근로
17. 응소(應召) 군인의 환송 환영, 부상병의 위문
18. 출정군인 및 순국자 유가족의 위문 위령, 가족방문
19. 기회 있을 때마다 순국자 영령에 묵도
20. 유언비어의 삼가와 간첩의 경계
21. 방공방첩의 협력

⑤ 비상시국민생활개선기준의 결정

위의 실천요목과 동시에 동 요목 7에 해당하는 다음에 제시한 비상시 국민생활개선 기준을 결정하여 그 실행에 노력하고 있다.

〈비상시 국민생활개선 기준〉

■ 의(衣)

1. 의료 애호사상의 철저한 함양
2. 의료 자원의 배양
3. 사장(死藏) 의료의 활용
4. 재제(再製) 재료의 동원운동
5. 신조(新調)의 억제
6. 신조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 1) 남자 조선복은 색복을 본지(本旨)로 하고 골무를 폐지할 것
 - 2) 여자 조선복은 조선부인문제연구회 안을 기준으로 할 것
 - 3) 양복 상용자는 본 연맹 소정의 표준복으로 하고 지질 및 색은 임의로 할 것
7. 길흉 기타 의례의 경우는 평상복에 본 연맹 소정의 휘장을 차용하여 예복으로 대신한다.
8. 고재료(古材料)의 공예회를 통한 이용

■ 식(食)

1. 식사는 보건 및 영양을 중시하여 간소히 할 것
2. 식사 시에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모든 가족이 같은 시각에 식탁에 앉을 것

3. 잔치에 따른 향응 및 연회는 검소하게 하고 쓸데없이 경쟁하듯이 설비를 성대하게 준비하는 기분을 배제할 것
4. 내객의 접대에 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
접대에 차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를 것(조선인 가정에서)

■ 주(住)

1. 주거는 청결을 중시할 것
2. 간단한 구멍창고를 마련하여 평소에는 물건을 쌓아두는데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방공의 목적으로 충당할 것
3. 거실은 통풍, 채광을 좋게 할 것
4. 조선가옥의 행랑채를 없앨 것
5. 조선가옥 건축의 표준규격 제정을 요망할 것

■ 의례

1. 일가(一家)는 매일 아침 궁성을 요배하고 황실의 안태(安泰)를 빌 것
2. 축제일에는 국기계양은 물론 신사(神社)나 신사(神祠)에 참배할 것
3.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낭독할 것
4. 혼례상이는 간단 엄숙하게 허세를 부리지 않고, 혼례 피로연 기타 각종 연회는 절대로 필요한 범위에 한해 간단히 할 것(조선인은 총독부 제정 의례준칙을 따를 것)
5. 모든 답례, 계절 인사, 역 앞에서의 송영(送迎) 등 형식적인 것은 단연코 이를 폐지할 것
6. 조문용 조화 증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지할 것
7. 사제(師弟)와 장유(長幼)의 주종(主從) 및 집회의 예의를 올바르게 할 것

■ 사회풍조

1. 물자의 애용과 소비절약
 - 가. 폐품의 이용 회수를 위해 각 지방에 폐품회수 시설 실행을 촉진할 것
 - 나. 군수 관계품(면, 종이, 양모, 마, 고무, 피혁, 금속 등)은 물론 생활용품은 새로 만들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할 것
 - 다. 서신은 절대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엽서를 사용할 것
2. 사교상의 관례 개선
 - 가. 연회에 대해서
 - (ㄱ) 오후 11시를 넘지 않을 것
 - (ㄴ) 헌수(獻酬)의 전폐
 - (ㄷ) 주류는 국산품으로 한정
 - 나. 연두(年頭)에는 각지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명함 교환회 또는 인사모임을 열고 소재지에서의 회례(廻禮) 및 연하장을 전폐할 것
3. 음력을 폐지하고 태양력 사용을 장려할 것
4. 미신 타파에 힘쓸 것

5. 시간을 엄수할 것(특히 엄중한 약속이 필요함)

2) 시국인식과 계발선전 및 지도

(1) 강연 및 강습

사변의 추이 및 시국 관계와 앞의 강령의 취지 철저 혹은 실천지도계발을 위해 각종 활동을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2-3개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순회강연

전 도지사, 중추원 참의, 종교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선인(부인을 포함) 100여 명을 각지에 파견하여 순회 공연시켰다.

② 전선(全鮮) 중견청년의 지도

매년 1회 실시 중인 전선 중견청년강습회 종료 후, 시국에 관한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강연회를 개최하고, 시국인식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③ 지도책임자의 강습

지방에서의 지도책임자에 대한 시국인식의 철저와 지도정신의 강화를 도모함과 더불어 현재 비상시국에 대처할 농산어촌진흥운동의 사명 수행에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1937년 9월 조선의 각 부윤, 군수 및 각 도 지방과장, 농무과장 등을 회동시켜 시국인식강연회의 개최 및 생업보국의 행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지도를 도모하였다. 이후 매년 이런 종류의 행사와 강연 또는 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진의를 철저강화하기 위해 조선연맹 및 지방연맹에서는 수시로 지도자 타합회(打合會) 또는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④ 경찰좌담회

조선의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시국인식의 심화를 위해 조선 각 경찰 및 주재소원을 동원하여 각 부락에 출장시키고, 일반 부락민을 모아 시국좌담회를 개최하여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인쇄물을 통한 지도계발 및 선전

① 『통보(通報)』의 발행

총독부 시정상의 중요사항의 평이한 해설, 정부 공표의 내외정세와 시국 해설, 총후국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항 기타 널리 시국인식 및 계발선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게재하여 각 계층의 깊은 이해를 위하여 1937년 8월 이후부터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통보』 2만부(이 가운데 1만부는 관보 부록, 나머지 1만부는 독립된 책자로 발행)을 발행하였다. 잡지는 조선 국내는 물론 만주와 지나 방면에까지 배포하고, 일부는 유상으로 배포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② 기타 소책자

시국에 관한 문답, 지나사변과 조선과의 관계, 지나사변에 대한 국민의 각오, 지나사변과 관련된 제반 사항 및 미담 등 시국인식 내지는 계발선전용 소책자와 다양한 인쇄물 및 전국(戰局)을 알리는데

편리한 지나 대지도 등을 각각 배포하여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의 각오 및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지나사변과 조선인의 각오』와 『한구(漢口) 함락과 지금부터의 각오』라는 언문 소책자를 각각 50만부를 제작하여 조선의 모든 읍면에 배포하여 반도민 필독의 방법을 강구하여 9호마다 1책씩 배포하여 회람시켰다. 또 내지, 타이완, 만주, 지나, 몽골 각지에 거주하는 반도인에게도 각각 배포하는 등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3) 활동사진을 통한 선전 및 계발

‘사변뉴스’, ‘황국신민의 서사’, ‘총후의 조선’, ‘총후를 받들다’ 기타 각종 영화의 제작 및 시국영화의 구입, 영사(映寫) 및 대여, 불하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민중에게 앞의 각 항을 철저히 앙양시키고 있다.

(4) 뉴스사진의 배부

지방에 대한 시국인식의 자료로서 매월 ‘뉴스 사진’ 약 1500매를 조선의 각 도·부·군·읍·면, 경찰서, 중등 이하의 각종 학교 등 합계 10,520개소에서 각각 게시판에의 게시, 순회 회람 또는 다수가 모이는 시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황을 알리고 지방민에게 다대한 시국인식을 제공하고 있다.

(5) 종이연극을 통한 지도계발

활동사진과 더불어 특히 오지의 주민에 대한 시국인식의 철지와 국민의 각오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일부 오락을 가미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은 오락기관이 결여된 지방에서 특히 유효하다. 종이연극은 철저한 시국인식에 효과적인 것을 작성하여 각 도군도(道郡島) 및 경찰서에 배포함으로써 시국인식 및 계발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미 작성 배포한 것은 ‘지나사변과 반도’ 이외에 총 14종류에 달한다.

(6) 라디오를 통한 선전 및 지도계발

앞에서 서술한 각 사항의 주지 및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총독과 정무총감 이하 각 주관 국부 과장 기타 유식자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7) 전람회를 통한 지도계발

조선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람회에 시국인식 내지는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계발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1938년 11월 하순부터 1939년 2월 상순에 걸쳐 총독부 주최 내각 정보부 후원 아래 경성, 부산, 대구, 관주, 평양, 함흥, 청진 등 각지에서 사상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 및 방공방첩에 관한 얻기 어려운 자료를 제공하여 국제적 사상전의 실상을 알렸다. 국민정신총동원 및 방공방첩에 대한 반도 민중의 자각을 촉구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다. 또한 전람회에 직접 출진함과 동시에 수시로 학교전람회 등에 대해서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3) 국민정신총동원 진전(進展) 조장 시설

(1) 시국대책조사회의 검토

본 운동의 지도개발에 관해서는 물론 앞에서 서술한 기관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1938년도에 이르러 총독부 내에 시국대책준비위원회 및 동 조사회를 설립하여 물심양면에 걸친 중요사항에 대해 토의 검토하고 있다. 국민정신총동원의 강화방책 및 내선일체의 철저방책을 시국대책의 중요문제로서 검토를 거듭하였다. 이에 대한 답신을 받아 그 구현화에 노력하고 있다.

(2) 중견청년수련소의 건설

사회의 중견적 지위에 있는 청년남녀를 대상으로 건설한 국가 관념과 견고한 국민적 신념을 함양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긍지를 확보시켜 사회지도의 중견인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연성한다는 취지 아래, 1939년 4월부터 내선일체의 영지(靈地) 충남 부여에 중견청년수련소를 설치하여 인물의 연성에 노력하고 있다.

(3) 정동운동에 대한 국고보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사명과 본질을 고려하여 동 운동을 조장하고 사명완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 조선연맹 이하 각 도연맹, 부군도연맹, 읍면연맹에 이르기까지 매년 국고를 보조하게 되었다. 1939년도 보조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대한 국고보조	156,110원
국민정신총동원 도연맹에 대한 국고보조	26,000원
국민정신총동원 부군도연맹에 대한 국고보조	16,730원
국민정신총동원 읍면연맹에 대한 국고보조금	47,160원
합계	246,000원

(4) 교학연수소의 설치

중등, 초등학교 교원에 대해 국체의 본의에 의거하여 황국신민 교육의 진수를 체득하고 사도(師道)의 진흥 및 교학의 쇄신을 도모할 목적 아래, 1939년 4월 4일 경성에 교학연수소를 설치하고 학생 생도를 통해 국민정신의 계발 양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

(5) 유림연합회의 결성

조선의 약 40만 유림을 하나로 묶어 유도(儒道)의 본의에 따라 대동단결하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동아정신문화에 공헌하고자 1939년 10월 경성에 전선유림대회를 개최하여 정동운동의 진전 조장에 기여하고 있다.

7.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현황

이상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개요를 서술하였는데, 더욱이 본 운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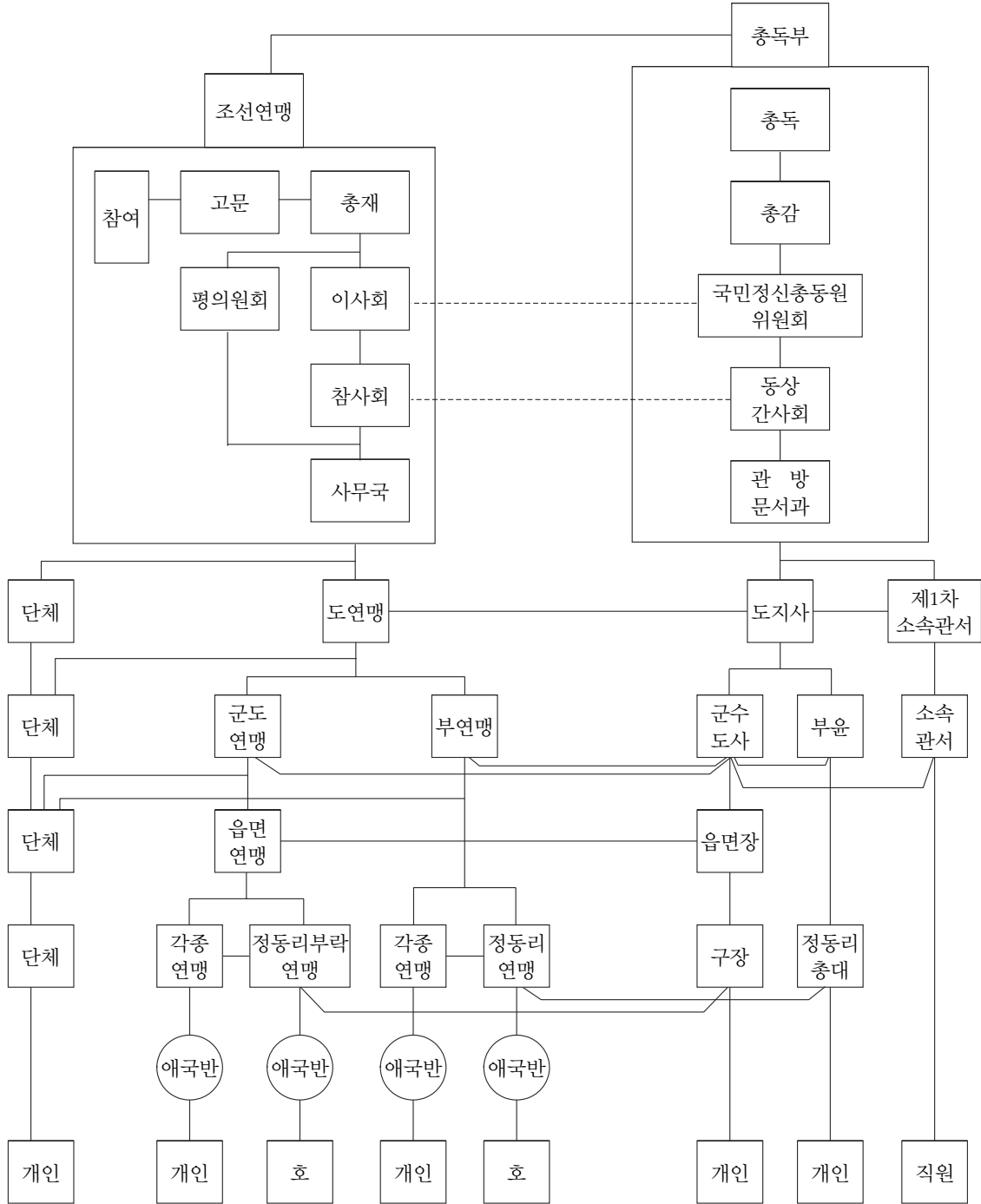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직체 활동의 현황

조선의 본 운동 기관에 대해서는 이상 서술한 바와 같지만, 그 실제 활동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즉 총독부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와 동 간사회를 중심으로 조선중앙정보위원회와 연계를 취하면서 운동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획과 심의를 주도하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의 연락을 통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 실시에 있어서는 총독부 각 국부 관방, 각 과 및 각 도 이하의 행정 각 기관을 총동원에서 조장 및 지도계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 조선연맹은 총독부 및 관계 관공서 학교의 협력 및 조선군 당국의 지원 아래, 연맹 이사회를 중심으로 실천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각각 실천조직망에 시달하여 실천 및 운동에 착수한다. 지방의 각 도연맹 이하는 조선연맹과 동일하게 각각 이사회를 중심으로 지방에 맞는 실천사항을 토의 결정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연맹운동의 진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하부 조직망인 애국반은 연맹운동의 전반에 걸쳐 제1선에서 활약하고 운동의 실천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직도해는 다음과 같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조직도해



2)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현황

(1) 당면필행(當面必行) 2칙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실천요목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1개 항목이지만, 그 가운데 정신적 방면과 물질적 방면의 근본을 이루는 사항, 즉 궁성요배와 근로저축을 당면한 필행 2칙으로 정하였다. 현재 그 실행에 주력을 힘쓰면서 본 운동 발전의 초석으로 삼음으로써 장래 다방면에 걸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실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궁성요배

충군애국의 사상함양을 도모하고, 특히 반도동포가 황국신민이라는 확실한 신념을 지니게 하여 급속히 내선일체의 내실을 구현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라디오 호령에 따라 조선에서 일제히 궁성요배를 실행하고 있다. 물론 기타 일반 의식 및 회동 시에도 필히 실시하고 있다.

② 근로보국

관민을 불구하고 자기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여 봉공하는 소위 '생업보국(生業報國)' 및 작업을 통해 봉사는 '근로봉사' 등 철저한 근로보국관념을 통해 황군에 감사하고 그 노고를 받들어 완전한 충후봉공을 도모하고 성전(聖戰) 달성에 기여하고자 그 실천공행에 매진하고 있다.

③ 저축장려

조선에 저축조합을 결성시키고 일반 가정에게 애국저금, 절미저금 등을 장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애국저금은 각 호마다 자력(資力)에 따라 금액을 할당하여 의무화하고, 관공서, 학교 직원을 비롯해 은행, 회사, 공장 등에서는 종전의 규약저금의 증액 또는 별도 애국저금의 장려, 기타 국채의 구입 등에 힘을 기울여 국책에 부응하고 있다.

(2) 애국일 행사

애국일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1939년 8월 내각에서 매월 1일을 '홍아봉공일'로 정해졌다. 특히 전쟁터를 우러러 자숙, 자성, 적확(的確)을 실제생활에 구현하고 항구 실천의 원천으로 삼았다. 조선에서는 이후 애국일 즉 홍아봉공일의 철저강화를 도모하였다. 즉 1939년 9월 1일부터 종래의 애국일 행사 이외에 자숙, 자성, 생활쇄신의 원천이 될 사항, 예를 들면 금주절연, 기타 기호품의 금지, 요리가게와 음식점의 휴업, 연극 및 활동사진 등은 오락적 방면의 자숙, 백화점의 휴업, 일체주의(一菜主義)의 장려, 동물원,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무료공개 또는 할인, 통학통근의 도보장려 등을 병행하면서 국민정신의 집결과 총력발휘를 통해 성전완수에 기여하고 있다.

(3) 연맹추진대의 설치

1939년 9월 연맹의 취지달성을 위해 특히 정신(挺身) 추진의 임무를 달성할 목적으로 연맹원 가운데 가장 실행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예를 연맹 추진대원으로 삼아 도연맹에 부설했다. 이들은 지방연맹 및 애국반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정동운동 실행의 추진력이 되었다. 대원은 앞에서 서술한 중견 청년수련소를 수료한 자, 육군특별지원병훈련소를 종료한 자로서 입영, 제대한 다음 국민정신총동원조

선연맹의 강습을 받은 자 및 조선연맹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연맹에서 특히 추진대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조선연맹의 승인을 거친 자 등을 임명하고 있다.

(4) 애국반의 활동상황

애국반은 연맹의 기저조직으로서 국민정신총동원의 실천조직체로서 특히 애국반 자체의 자발적 적극적 활동을 통해 국제관념의 명징, 황국신민 의식의 심화, 시국인식의 철저를 비롯해 근로, 저축, 절약, 생산증진 등 물질양면에 걸쳐 국민정신총동원 체제의 완성에 공헌하고 있다. 애국반의 활동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연맹의 조직망으로서 단체운동임과 동시에 그 구성상 연맹원의 가정생활에까지 나아가는 본 운동의 원천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애국반에 대한 지도 목표도 아무런 유감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다. 애국반의 활동은 물론 연맹운동의 모든 방면에 걸쳐 제1선에 서서 활약하고 있다. 그 일반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 사항

(ㄱ) 애국일 행사

애국일의 요배식(遙拜式)은 애국반을 단위로 집합하고 정동리부락(町洞里部落)연맹 이사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ㄴ) 근로봉사

애국일 이외에 다른 날에 실시하는 근로봉사 예를 들어 신사(神社)나 신사(神祠)의 청소 또는 보수공사, 도로공사, 반원 자택 부근의 정화청소작업, 헌납 말 여물 채취 근로봉사 또는 국방현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작업 등은 모두 애국반의 사업이다.

(ㄷ) 폐품회수

자원애호의 건전(健全)으로부터 전 조선의 폐품회수의 철저를 도모하고 있는데, 본 회수도 애국반을 중심으로 회수하여 이를 폐품협회 등에 매각하여 재활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ㄹ) 군사원호

국방현금, 위문보따리 등도 물론 애국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정군인 유가족의 원조, 예를 들면 농가군인 유가족의 근로봉사작업 등도 애국반이 실시하고 있다.

(ㅁ) 저축장려

앞에서 말한 애국저금의 장려 또한 애국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장은 저금을 모집하거나 각자 저축한 통장을 검열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다.

(ㅂ) 근로보국

근로보국의 철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부락을 통해 시종(時鐘)을 신호로 일어나 각각 가업에 힘쓰고 있지만, 시기나 작업의 성질상 공동 작업이 적당하고 유리할 때는 애국반을 중심으로 공동근로에 임하고 있다. 또 국방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 작업에도 애국반으로서 반원이 충출동하고, 더욱이 철도 기타 토목공사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는 근로보국의취지 아래 애국반을 중심으로 출역하여 이를 도우는 등 소유방면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ㅅ) 식량대책에의 협력

비상시 식량정책에 대한 협력 및 한해극복 대책으로서의 절미운동, 즉 7분도 이하의 쌀밥, 배아미, 잡곡혼식, 죽(粥食) 장려 및 보건과 관련된 현수(獻酬)의 폐지 기타 앞에서 말한 절미저축 등의 실행을 도모하고 있다.

(o) 지원병의 후원

내선일체 정책의 희망으로서 반도인을 위해 실시된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활용하고자 취지의 철저, 군사사상의 보급, 지원병 유가족에 대한 인보공조의 철저를 위해 지금 지원병 후원을 연맹운동으로 내세워 애국반을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 적기한 것 이외에 자원애호, 생산확충과 더불어 한해대책의 하나로서 짚의 절약 및 벼짚의 대용과 제품의 증산, 금(金)의 정부집중에의 협력, 방공방첩에의 협력, 물자의 소비절약, 조선에서의 '씨' 창설 취지의 철저, 기타 신동아건설 수행 상의 국책 및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시설 등 소유사항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거나 협력하는 등 그 활동은 물심양면에 걸쳐 아주 광범위하다. 그리고 조선의 2,300만 동포는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애국반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총독과 정무총감일지라도 총독부내의 애국반에 있어서는 관방애국반의 일원으로서 일반 반원과 더불어 조선신궁 봉찬전(奉贊殿) 광장의 확장공사나 혹은 헌납 말 여물 채취봉사 등에 참가하고 있다. 또 가정에서는 총독과 정무총감을 비롯해 국과장도 각각 마을 안의 한 애국반원으로서 애국반의 각종 행사의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애국반의 활동은 연맹정신의 철저와 함께 더욱 커다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한해와 애국반의 활동

애국반의 일반적 활동 상황은 이상과 같지만, 애국반의 실천조직망은 1939년의 중남선(中南鮮) 지방의 한해 재변 때 강력한 조직력과 실천적 경험의 실효를 여실히 증명하였다. 한해 시책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이 많다. 그 활동 및 성과의 사례를 약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ㄱ) 애국반의 활동과 민심안정

이번 여름 한발의 경향이 증대하여 재화(災禍)가 극심하고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 이를 신속히 간파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기구 특히 애국반은 활동을 재촉하여 민심안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해의 대타격에도 불구하고 인심은 비교적 안정되었고 쓸데없이 상심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도 적었고, 유언비어에 현혹된 사례도 없었다. 이는 관의 시책을 신뢰하여 관계 당국의 적절한 지도를 받은 결과이지만, 여기에는 애국반이 협력일치와 인보상조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자분공려(自奮共勵)와 전화위복의 신념을 양양한 바가 크다고 믿는다. 또 한편으로는 종전의 농촌진흥운동에 따른 결과이지만, 애국반 결성 이후 이미 1년여 동안 실시한 매월 1회의 애국일(홍아봉공일)의 행사 및 단체적 근로봉사, 생업보국 작업 등의 체험과 훈련 덕분이기도 하다. 더욱이 사변 발생과 더불어 반도 민중에게 항상 지도한 시국인식, 생활쇄신, 자숙자계의 효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스스로 애국반 전원에게 부식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ㄴ) 한해대응대책과 애국반의 활동

한해지에서 애국반은 하늘만 바라보거나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관의 지도 및 정동연맹의 지도 아래 가능한 한, 한해 응급대책을 실시하여 곤란한 사태를 차마내고 참화의 심대화를 막았다. 그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재 부락의 애국반 전원이 출동하여 갈수상태에 있는 하천의 보(洑) 유수의 도입작업 또는 지하수의 굴하(堀下)작업 등에 정진하여 물의 획득에 노력하였다.
2. 한 부락의 한해지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자 곧바로 애국반원이 공동으로 일제히 호미를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벼를 심고, 식부(植付) 불능지대에서는 필요한 대용작물 파종에 공동 작업으로 전력을 기울였다.
3. 전작의 공동 작업으로 고사상태에 빠진 작물에 전력을 쏟아 회생시켰다.
4. 이번 한해로 인해 당연히 예상된 미곡의 감수에 대처하기 위해 절미의 국민운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애국반을 중심으로 대용식, 잡곡의 혼식 장려를 실시하고 있다.
5. 애국반을 중심으로 철저한 부업장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민가의 초가집 지붕갈이를 금년은 일제히 중지하고, 재료인 벗짚을 원료로 가마니와 기타 제품의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6. 이번 한해로 인한 흉작을 둘러싸고 통산 발생하는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곤란한 관계를 미리 선처하기 위해 양자 간의 협조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5) 가맹단체 활동의 특이사항

정동연맹에 가입한 각 단체는 그 분야에서 정동의 실천 또는 지도개발 등 본 운동의 진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 가운데 특이사업의 2~3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 조선 유림도 일어나 정동에 합류하다

전 조선 40만 유림도 적극적으로 동아정신문화에 공헌하기 위해 모두 하나가 되어 정동운동의 일으로서 정동운동에 참가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들 유림은 각자 소재한 각 도 각지에서 유림대회를 개최하여 적극적 활동에 착수하고 있다.

② 기독교도의 일본화운동

예전에는 구미 의존의 잘못된 평화애호사상에 빠져 신사불참배 등 불상사건을 야기하던 반도 기독교도들도 결국 이번 성전(聖戰)을 인식하고, 일본정신으로 귀일하고자 사상적 대전환을 이루었다. 반도 일본인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여 국은(國恩)을 입고 있는 외국인도, 황국이 진정한 동양평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오늘날, 종교적 사상에 빠지지 않고 황국신민으로서 신절(臣節)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여 정동운동에 적극 참가 협력하기에 이르렀다.

③ 전 조선 문인도 정동운동에 적극참여

조선의 문인도 모든 반도민에게 팽배한 내선일체 황민화운동을 좌시할 수 없어 결국 대동단결하여 문인협회를 결성하는 등 정동운동에 참가 협력하기에 이르렀다.

④ 상공업자의 경제보국운동

성전 완수를 위한 전시경제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바, 물가는 오히려 더욱 폭등하여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수조달, 국채의 소화, 수출입의 확보, 물동계획의 수행 등 소유방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상공업자는 경제전사로서 함께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협력일치 국책을 지지함으로써 경제보국의 정성을 바쳐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조선상공회의소의 제창에 따라 1939년 12월 일제히 경제보국운동을 개시하고 정동운동에 활력을 불어일으켰다.

8. 연맹운동과 기존운동과의 관계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운동은 시국을 감안하여 일본정신의 양양, 특히 반도 민중의 황국신민화를 도모하고, 거국일치의 태세를 견확(堅確)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정동운동이다. 따라서 위로는 조선연맹부터 밑으로는 애국반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반도가 일제히 계통적, 세포조직 아래 흐트러짐이 없는 통일된 운동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각종 단체 운동도 그 정신적 지도에서는 연맹의 지도 원리의 목표로 귀일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선에서는 독특한 조직과 훈련을 쌓은 농산어촌(農山漁村)진흥운동과 표리일체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 기초에서 경제개생을 도모함으로써 총량한 황국신민의 육성과 국력의 증강을 최종 목적으로 한 운동의 진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농산어촌에서 이러한 기존 조직의 진흥운동과 직접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더욱이 진흥조직이 없는 도읍지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각종 기설 단체에 대해서도 체계와 통제를 통해 모든 조선을 하나로 만드는 조직을 완성하고, 정동운동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총력발휘에 유감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완비된 조직망과 조선의 각종 정신운동의 통합귀일을 통해 강력히 전개되었고, 그 최종 목적인 성업보익(聖業輔翼)의 사명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그 지도진영은 전력을 기울여 경주하고 있다. 모든 연맹원 또한 이에 호응하여 상하 일체를 통해 총노력, 총진화의 내실을 거두고 총독정치의 완수를 기하여 성지(聖旨)에 보답하고자 한다.

〈별지첨부서류〉

1. 조선총독부의 국민정신총동원 기구

1)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규정

제1조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국민정신총동원 위원회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 명으로 이를 조직한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이를 담당한다.

위원은 조선총독부 내의 고등관 가운데 조선총독이 이를 임명한다.

임시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조선총독이 이를 촉탁한다.

제4조 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한다.

위원장 사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사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선총독부 내의 고등관이나 기타 적당한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조선총독부 내의 고등관 가운데 조선총독이 이를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정리한다.

제7조 위원회에 서기를 두고 조선총독부 내의 판임관 가운데 조선총독이 이를 임명한다.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2)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위원 및 간사 명부

위원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오다케(大竹十郎)
조선총독부 재무국장	미즈다(水田直昌)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
조선총독부 농림국장	유무라 다츠지로(湯村辰二郎)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시오하라(鹽原時三郎)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즈하시 코우이치로(三橋孝一郎)
조선총독부 체신국장	야마다(山田忠次)
조선총독부 철도국장	야마다(山田新十郎)
조선총독부 전매국장	스즈키(鈴木壽男)
조선총독부 외사부장	마쓰자와(松澤龍雄)
조선총독부 기획부장	니시오카(西岡芳次郎)
조선총독부 사무관	다카오(高尾甚造)
동	우스이(碓井忠平)
동	노부하라(信原聖)
동	단케 유타로(丹下郁太郎)

간사

조선총독부 사무관	노부하라(信原聖)
동	야규(柳生繁雄)
동	야마지 야스유키(山地靖之)
동	이사카(井坂圭一良)
동	기시 유이치(岸勇一)
동	이원보(李源甫)
동	후루카와 카네히데(古川兼秀)
동	야기 노부오(八木信雄)
동	하야시 가쓰도시(林勝壽)
동	도오모토 요시오(堂本敏雄)
동	유자와(湯澤茂彌太)

2.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개요

1) 취지

생각건대 이번 지나사변은 동아의 화근 항일정권을 타도하고 광휘(光輝) 있는 황도정신을 발양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하려는 성전으로서 우리 건국의 정신, 일본의 대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후 1년 황군은 연전연승하여 한토(漢土)의 절반을 석권하였고, 총후의 국민은 거국일치 진충보국의 정성을 다하고 있다. 우리 반도에서는 총독이 반도의 방위를 분명히 하고 민중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였다. 또한 반도의 민중은 국민적 자각을 환기하고 내선일체가 되어 총후의 적성을 다하고 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존엄한 위세를 보이고, 황국신민이 되었다는 감격에 겨워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제정세는 복잡다단하고 점점 미묘한 사태의 추이를 보여 낙관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용이하지 않은 시국을 재인식하여 더욱 국민정신을 강화하고, 금후 어떠한 난국에 조우하더라도 항상 견인지구하여 만남을 극복함으로써 국민적 사명의 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당국은 이러한 정세를 감안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철저히 시행하여 존엄한 우리 국체를 본받아 진충보국의 정신을 양양하고, 이를 국민의 일상생활의 실천으로 구체화하고 항상화(恒常化)하여 소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는 또한 국민 전체의 의지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결성하여 사회 각 방면에 걸쳐 동일한 지도정신 아래 운동을 통제 강화하고, 진정한 관민협력 내선일체 국체에 순응하여 총후를 간고히 지킴으로써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1938년 6월 22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2)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설립 연혁

조선총독부에서는 1923년 11월 10일 다이쇼(大正) 천황이 환발(渙發)한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詔書)의 취지를 봉체(奉體)하고, 1932년 이후 조선 관민의 총의(總意)에 따라 이의 실천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강구하였다. 특히 11월 10일을 중심으로 국민정신작흥주간을 설정하고, 농촌경제운동과 더불어 그 근본 취지를 평소 일상생활에 구현하는데 노력해왔다. 이후 일반 민중의 세계대전의 인식,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 등을 통해 적성봉공(赤誠奉公)의 기운이 팽배해졌다. 그리고 이번에 사변이 발발하자 애국의 열성은 조선 전역에 걸쳐 퍼져나가고 총후의 적성은 더욱 견고해졌다. 반도 2300만 동포는 일치단결 내선일체, 황국신민으로서의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시난(時難) 극복의 임무를 떠안았다. 총독부 당국에서는 내지와 호응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강화철저를 더욱 도모하고, 국체관념의 명징, 내선일체의 심화, 생업보국 근로보국에의 매진, 사회풍조의 쇄신, 비상시 경제정책에의 협력, 생활개선 등 거국일치의 세태를 정비하고자 온갖 노력을 계속해왔다. 반도 거주 내선 동포의 진충보국의 정신은 더욱 떨쳐 일어났다. 자주적으로 형성된 애국심의 결정(結晶)은 드디어 반도 미증유의 커다란 국민운동, 즉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결성으로 분출되었다. 1938년 7월 1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의 제정과 임직원 등을 선임하였고, 7월 7일 사변 1주년에 즈음하여 조선연맹의 발회식을 거행하였다. 더불어 조선 모두를 빠짐없이 세포 조직화하였다. 별지 계통도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조선연맹 조직망인 도부군도읍

면부락연맹과 기타 각종단체의 결성은 물론, 이의 실천망이자 연맹의 기저단위인 애국반에 이르기까지 결성을 완료하여 모든 민중은 연맹원이 되었다. 지금 조선은 대륙의 병참기지로서, 또한 장래 동양문화 경제교류의 가교로서 그 지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조선민중의 국민정신배양운동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한다. 이번 사변 발발 이후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이 현저하게 양양되고 있음을 계기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의 촉진을 도모하고 향상조장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절실했다.

본 연맹은 이번 사변을 계기로 설립되었지만, 단순히 사변처리 기관이 아니다. 정동운동으로서의 본질적 사명에 따라 문무(文武) 각 관아는 물론, 각종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연락협조를 취하면서 관의 힘이 미치지 않은 부면을 개척하여 상의하달 하의상달로 조선통치의 보익(輔翼)기관이 되고자 한다.

3) 선언

동양평화를 확보하여 팔굉일우의 커다란 정신을 세계에 양양하는 것이 제국의 변하지 않는 국시이다. 아리는 여기에서 일치단결하여 국민정신을 총동원하고 내선일체의 모든 능력을 발양하여 국책의 준행(遵行)에 협력함으로써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관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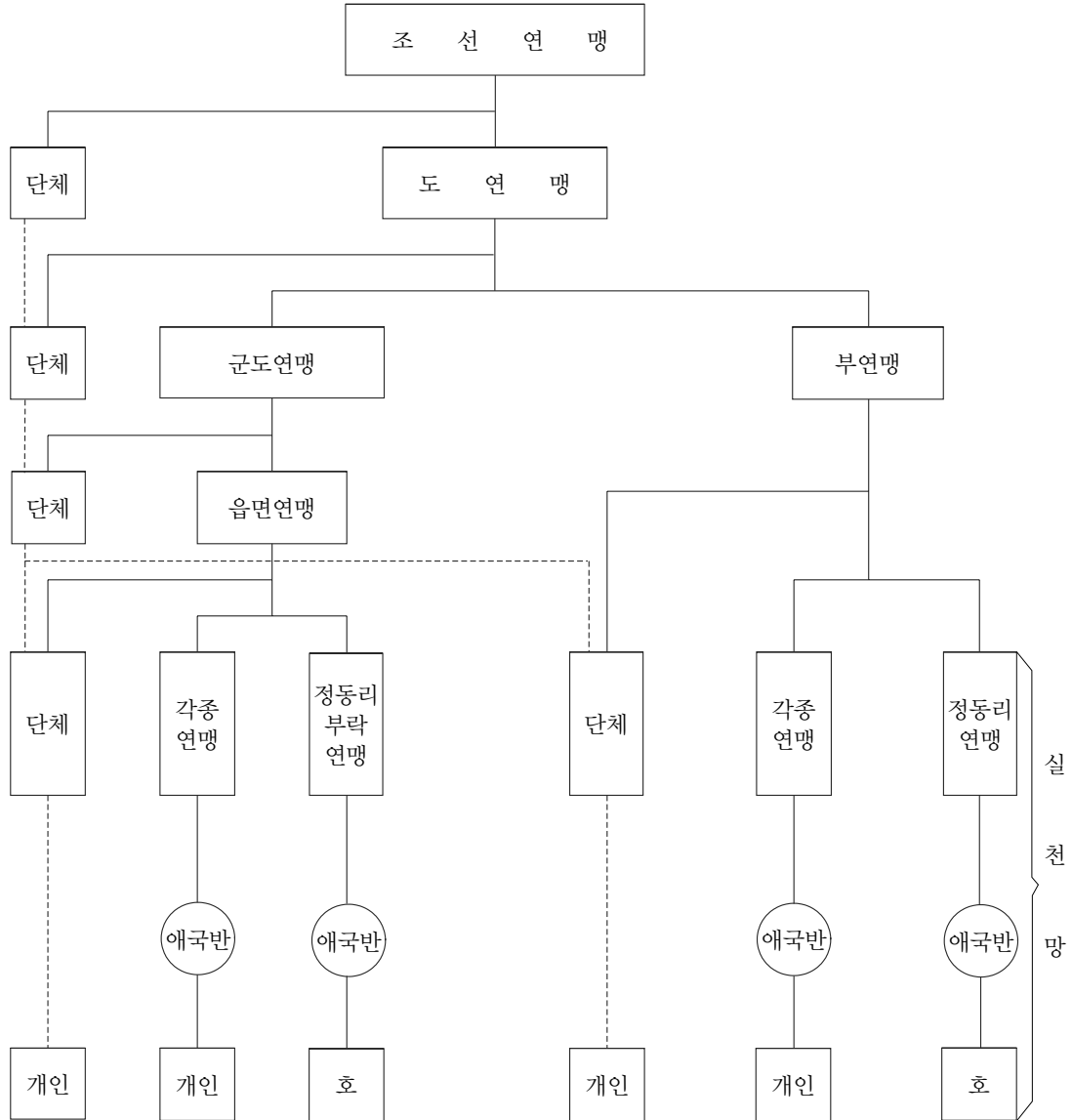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4)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직대강

1. 조선연맹 : 도연맹 및 전 조선을 구역으로 한 단체로 구성한다.
2. 도연맹 : 부군도연맹 및 도를 구역으로 한 단체로 구성한다.
3. ① 부연맹 : 정동리연맹 및 부를 구역으로 한 단체, 기타 부내의 각종 연맹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② 군도(郡島)연맹 : 읍면연맹 및 군도를 구역으로 한 단체로 구성한다.
 ③ 읍면연맹 : 정동리부락 및 읍면 내의 각종 단체, 기타 각촌 연맹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4. ① 정동리부락(町洞里部落)연맹 : 부에서는 정동리, 읍면에서는 정동리부락을 구역으로 하고 구역 내의 개인으로 구성한다. 읍은 토지의 정황에 따라 부연맹의 조직에 준할 수 있다.
 ② 각종 연맹 : 부읍면 내의 관공서,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대상점 등 일상적으로 다인수를 포용하는 것으로 각기 소속 인원으로 구성한다.
5. 애국반
 - ① 정동리부락연맹 및 각종 연맹은 그 기저조직으로서 애국반을 조직한다.
 - ② 정동리부락연맹의 애국반은 모두 10호로 조직한다.
 - ③ 각촌 연맹의 애국반은 해당 연맹의 정황에 따라 적당히 구분하여 조직한다.
 - ④ 애국반은 인보 협력하여 본 연맹의 기저조직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⑤ 빌딩, 아파트 기타 일상적으로 다인수를 포용하는 사무소 등에서는 실정에 따라 앞의 각 항에 따라 연맹 또는 애국반을 조직할 수 있다.
 - ⑥ 연맹의 정황에 따라 애국반의 조직을 생략할 수 있다.

조직계통도해



5) 국민정신총동원 정동리부락연맹 규약 준칙

제1조 본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 '무슨' 연맹이라 칭한다.

본맹의 사무소는 '어디'에 이를 둔다.

제2조 본 연맹은 내선일체 거국일치 국민정신총동원 취지의 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맹은 '어느' 도, '어느' 부, '어느' 정동리('어느' 군, '어느' 도, '어느' 읍면, '어느' 정동리, '어

느' 부락)을 구역으로 한다.

제4조 본 연맹 가맹지는 모두 10호씩으로 하나의 애국반을 조직하고 일치단결하여 그 실천을 도모한다.

제5조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이사장 1명

이사 약간 명

반장 약간 명

제6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를 추천한다.

이사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여 회무를 총리한다.

이사장의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이사는 이사장이 이를 지명하며 본 연맹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8조 반장은 1개의 애국반에 1명으로 하고, 반원 중으로부터 이사장이 이를 지명한다.

반장은 반원을 통솔하고 전달, 연락에 종사한다.

반장 사고 시에는 반장이 지명한 반원이 이를 대리한다.

제9조 본 연맹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이사장이 이를 임면한다.

부칙

본 연맹 설립 당초의 이사장은 설립발기인에서 이를 추천한다.

6)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강령

하나. 황국정신의 현양

본 연맹 결성의 최초의 동기이자 마지막 이상(理想)은 황국 일본의 정신을 반도 곳곳에 이르기까지 고루 미치게 하고 국민의 마음에 침투시켜, 반도 민중 모두가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으로 불태워 항상 황실을 존숭하고, 국가를 사랑하며 신사를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하여 자기의 소아(小我)를 버리고 국가 유구(悠久)의 대의(大義)에 합체하는 숭고지상의 정신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연성하여 이를 발양하는 것에 있다. 다음의 여러 강령의 근본정신도 그 연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연맹원은 모두 그 진의를 체득하여 스스로 다스려 사린(四隣)을 고치고 후진을 이끌어 다음 세대에 미치게 함으로써 그 이상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하나. 내선일체의 완성

반도 민중의 진정한 행복과 향상은 내선일체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내선은 오래도록 바다를 경계로 언어 풍속을 달리했지만 원래부터 뿌리가 동일하다. 이제 시절이 도래하여 고대의 모습으로 환원하여 그 병합을 보기에 이르렀다. 황도에 의거하여 인정(仁政)은 일시동인의 성지를 본받아 다만 양지 일가(兩地一家)의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아의 맹주로서 대륙에 영년(永年)에 걸쳐 군림하던 요기(妖氣)를 일소하고 명량한 신생 아시아 건설의 중임을 떠안아 많은 어려움을 물리치면서 소신 있게 매진하고 있다. 조선은 그 전진기로서 중대한 사명을 떠안고 있다. 이번엔 우리 연맹원은 서로 성의를 피력하여 내선을 상호이해하고 서로 친목하여 융합일체의 실질을 거두었다. 또 반도의 일

반 민중에게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신아시아 건설의 성전에 협력 참가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더 없는 영예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반도의 영원한 안녕과 향상에 있어 정도(正道)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 생활의 혁신

구래의 관습을 타파하고 천지의 공도(公道)에 따르는 것이 메이지 신정의 커다란 이상이자 황국 일본이 세계로 비약한 원유(原由)의 하나이다. 이러한 국시는 병합 이후 반도에서도 착착 실현되어 예전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일반 민중의 생활은 그 양식이 신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오래된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국민이란 항상 시대의 진운과 국가의 이상을 통찰(洞察)하고 스스로 생활을 반성해야 한다. 불합리와 번잡스러움에 빠져 민력의 신장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혁신하려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지금 우리 황국은 동아시아의 지도자로서 아시아의 대중을 구제 향상시키고, 손을 맞잡고 일대약진을 이루려는 도상(途上)에 있다. 우리 연맹원은 현하시국을 고려하고 먼저 분기하여 반도 민중의 선도가 되어야 한다. 합리와 능률의 원칙에 비추어 생활의 혁신을 도모하고, 도덕적 물질적으로도 생활의 내용을 풍부히 해야 한다. 선풍미속의 보급과 내선의 풍속과 관습의 내선용화에 힘써 국운의 진전에 강력히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하나. 전시경제정책에 대한 협력

근대 전쟁은 실로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하는 종합적인 국력전이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최고도로 동원된 일국의 모든 정신력과 경제력을 전쟁 목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쟁 필수품의 종류는 다방면에 걸쳐 거의 모든 물자를 망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직접 전투용으로만 제공되는 물자도 일반 국민생활에 소요되는 한, 국가 총력전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은 논할 필요도 없다. 물자동원에 관해서는 여러 법규가 규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정부도 지시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침에 물론 따르겠지만, 그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열성적으로 협력하여 전쟁 목적 수행에 유감이 없도록 단단히 결심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모하는 공사(公私) 생활상의 물자는 종이 한 장이라도 국가자원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절약에 유념하고, 국가가 명령하는 제한통제의 취지를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더욱이 생업보국의 정신에 따라 생산의 증가를 도모하고, 물자를 통해 국가의 전쟁목적 수행에 참가 협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하나. 근로보국

우리는 각자의 생업에서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단체나 한 부락 전부가 집단적 근로를 통해 공익에 봉사하는 것은 특히 거국일치의 비상시에 국민훈련으로서 그 의의가 중대하다. 즉 공공적 근로를 통해 개인의 소아(小我)를 전체 속에 융합하여 희생협력의 정신을 연마하고, 친화적이고 화목하며 규율적 계획적 작업에 순종하여 인고지구(忍苦持久)와 근로호애(勤勞好愛)의 정신을 조장하는 등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덕(德)을 체험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에 기여하여 국력의 증강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 연맹원은 이러한 의의를 이해하여 일반 민중이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나. 생업보국

우리가 일상 종사하는 업무는 원래 각 개인의 생활에 밀바탕일 뿐 아니라, 국가적 대분업 체제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업을 통해 국력증강의 일부분을 담당할 책무가 있다. 이를 자각하여 항상 총력전의 한 전사(戰士)로써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를 합리화하여 그 효율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소비절약과 물자이용에 유의하면서 특히 산업방면에서는 그 장점에 따라 생산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통제를 감수하고 직간접적으로 군수품의 조달과 국제수지의 균형에 힘써야 한다. 국민 모두가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장기 경제력의 충실과 유지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하나. 충후의 후원

미증유라 불리는 비상시국에 즈음하여 우리 충후의 국민이 날마다 그 생업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크고 끝없는 황은(皇恩)의 덕택이자 존엄한 위세로 제일선에 있는 장병의 밤낮을 불구한 고투 덕택이다. 우리의 친애하는 동포는 우리가 다리를 펴고 편히 쉬는 사이에도 잘 먹지도 잠들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호국의 귀신이 될 각오로 오직 성전 그 하나에 몸을 바치고 있다. 우리 충후에 있는 자 모두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물심양면에서 장기지구전에 대비함과 동시에 적성(赤誠)을 피력하여 응소 출정한 장병을 고무 격려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여 후원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또한 물질과 노력으로 군국의 필요성에 희생을 아끼워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다.

하나. 방공방첩

싸우려는 자는 먼저 적의 상황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 현대의 종합적인 국력전(國力戰)에서 국가의 의도와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내치, 외교, 군사의 기밀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적국의 상황은 어떤지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 그 실정을 탐지할 필요가 있다. 간첩은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상상 밖의 교묘한 수단과 모습으로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단한 제방 독도 바늘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특히 우리나라가 모든 힘을 바쳐 황도 선포의 커다란 이상에 매진하는 지금에 즈음하여 우리의 일상적이고 불필요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가의 목적 수행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고 행동과 주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에게 한 치의 틈이라도 주면 안 된다.

공산 적화의 사상은 인류의 적으로 우리 국풍으로 보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항상 정치(精緻)한 주의와 왕성한 전의를 품어야 한다. 방공에 노력하여 이 방면에 관해서는 특히 방첩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방공협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는데, 동 협회의 회원은 물론 그렇지 않은 자도 이 정신을 체득하여 행동해야 한다. 방공협회에 대한 외적 원조는 연맹의 목적에서 보아 지당한 일이다.

하나. 실천망의 조직 및 지도의 철저

연맹은 국민총동원을 이상으로 삼는다. 철저한 연맹의 실천망 보급은 총동원운동의 근본을 결정한다. 애국반원은 거국일치의 중핵이 되어 동료 반원의 증가에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즉 황화(皇化)를

심화시키는 일이다. 가령 반원 1명씩을 우리의 맹우로 만든다면 연맹 교화의 힘은 배가될 것이다. 신중히 연맹의 취지를 이해시켜 기꺼이 자발적인 결의로 황도선포의 전사라는 포부를 지니고 참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맹의 궁극적인 이상은 반도 2,300만 동포 모두를 참가시킨 중흥의 조직망을 철저히 확립하고, 전원 일혼(一魂)의 힘으로 황도선양의 추진력이 되겠다는 각오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한편 연맹원 상호간의 원만한 친화는 연맹의 결속을 확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연맹원은 각각 스스로 황국신민으로서의 책무를 지님과 동시에 다른 연맹원 동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서로 친하게 돕고 고락을 함께하여 화복을 나눔으로써 애국반을 비롯해 연맹 내부의 화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맹 외부의 일반 민중에 대해서도 온화와 자혜의 태도로 대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공존공영을 융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7)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규약

제1조 본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라 칭한다.

본 연맹의 사무소는 경성부 내에 둔다.

제2조 본 연맹은 내선일체 거국일치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 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 취지에 찬동하는 조선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조직한다.

제3조 본 연맹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행한다.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실시 계획 및 그 실행
2. 가맹단체 및 개인 상호간의 연락협조 및 가맹단체 이외의 단체 및 본 운동 실시 기관의 활동 원조
3. 기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본 연맹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5조 본 연맹은 총재 1명을 추대한다.

제6조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평의원 약간 명

이사장 1명

이사 약간 명(이 가운데 약간 명을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한다)

참사 약간 명(이 가운데 약간 명을 전무참사로 한다)

간사 약간 명

제7조 총재의 추대는 이사회가 한다.

총재는 본 연맹을 통리(統理)한다.

제8조 본 연맹에 고문 약간 명을 두고, 총재가 이를 위촉한다.

고문은 본 연맹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 본 연맹에 참여 약간 명을 두고, 총재가 이를 위촉한다.

참여는 본 연맹의 시설계획에 대해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 임원은 총재가 이를 위촉한다.

제11조 평의원은 평의회회를 조직하고, 본 연맹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재가 심의에 회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 이사장은 총재를 보좌하고 본 연맹의 전무를 장리한다.

총재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연맹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전무이사는 총재 및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사고 시에는 총재가 지명한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무이사는 상무이사회를 조직하고,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 참사는 본 연맹의 전무를 참여한다.

전무참사는 본 연맹의 전무에 상시 참여한다.

제15조 감사는 본 연맹의 경리를 감독한다.

제16조 이사회 및 평의회회는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본 연맹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전 항의 직원은 총재가 이를 임면한다.

8)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약

제1조 본 사무국에 총재실 및 사무실을 둔다.

제2조 총재실은 이사장, 전무이사 기타 임원이 출근하여 본 연맹의 운영 및 각 하급연맹의 지도감독 및 조장(助長)에 관한 모든 기획을 담당한다.

제3조 사무실에는 다음 직원을 둔다.

주사 약간 명

서기 약간 명

고원 약간 명

전항 이외에 필요에 따라 촉탁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무실의 주임은 전무참사로 이를 담당하고,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주사, 서기, 고원 및 용인(傭人)을 지휘하면서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인사 발령에 관한 사항

문서의 기안 수수 발송 정리에 관한 사항

부책(簿冊)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결산표의 조제에 관한 사항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회합에 관한 사항

임원회에 관한 사항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사무참사가 사고 시에는 총재가 지명하는 사무이사가 그 직무를 관리한다.

9)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가맹단체 명부

단체명	단체소재지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경성부 남산정 3정목 32
일본독지원호부인회 조선본부	경성부 남산정 3정목 32
동아일보사	경성부 광화문동
동맹통신사 경성지국	경성부 명치정 1정목 64
동민회 본부	경성부 화천정 6
조선일일신문사	경성부 황금정 2정목
조선일보사	경성부 태평동
조선방송협회	경성부 정동정 1
조선무진협회	경성부 영락정 2정목 25
조선농회	경성부 황금정 2정목 195
조선무역협회	경성부 장곡천정 21
조선변호사협회	경성부 서소문정 38
조선장로회총회	경성부 종로 2정목 조선야소교서원 내
조선토지개량협회	조선총독부 농림국 내
조선지적협회	조선총독부 재무국 내
조선실업구락부	경성부 종로 2정목 100
조선해사회(海事會)	경성부 광화문동 체신국 내
조선체육협회	조선총독부 학무국 내
조선잡사회	경성부 옥정 1정목 63
조선기독교연합회	경성부 장곡천정 112
조선군사후원연맹	조선총독부 내무국 내
조선경찰협회	경성부 광화문동 82
조선부인문제연구회	경성부 서린정 42
조선문예회	경성부 금정 13
조선불교중앙교무원	경성부 수송정 44
조선광업회	경성부 남미창정 4
조선국방교회연합회	경성부 삼판동 105
조선항공연맹	경성부 광화문동 체신국 항공과 내
조선체신협회	경성부 광화문동
조선체신사업협회	경성부 태평동 1정목 60
조선철도협회	경성부 고시정 14

조선전기협회	경성부 태평통 1정목 60
조선산림회	조선총독부 농림국 내
조선춘추회	경성부 태평통 경성일보사 내
조선교육회	조선총독부 학무국 내
조선교화단체연합회	조선총독부 학무국 내
조선어업조합중앙회	경성부 장곡천정 111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경성부 죽첨정 1정목 75
조선재무협회	조선총독부 재무국 내
조선소방협회	조선총독부 경무국 내
조선상공신문사	경성부 황금정 1정목 199
조선상공회의소	경성부 장곡천정 111
조선사회사업협회	조선총독부 내무국 내
조선자금조정단	경성부 장곡천정 은행집합소
조선신문사	경성부 태평통 2정목
조선신직회(神職會)	경성부 남산정 조선신궁 사무소 내
조선자동차교통협회	경성부 고시정 14
조선수산회	경성부 장곡천정 111
조선감리교총리원	경성부 냉천정 31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	경성부청 내
국민정신총동원 전매연맹	경성부 영락정 전매국 내
국민협회	경성부 태평통 2정목 366
경성일보사	경성부 태평통 1정목 31
경성토목건축업협회	경성부 육정 1정목 63
경성불교각종연합회	경성부 약초정 107
경성여자중등학교동창회연맹	경성부 황금정 6정목(경성여자실업학교 내)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단연맹	경성부 서대문정 38
철도국우회(局友會)연맹	경성부 한강통 15 철도국 내
대판(大阪)매일신문 경성지국	경성부 육정 2정목 소화빌딩 내
대판(大阪)조일신문 경성지점	경성부 남대문통
대일본국방부인회 용산지부	경성부 제20사단 사령부 내
대동민우회	경성부 중학정 1
천도교중앙협회	경성부 경운정 88
천도교본부	경성부 경운정 88
천리교 조선포교소	경성부 고시정 15
천주공교 경성교구	경성부 명치정 2정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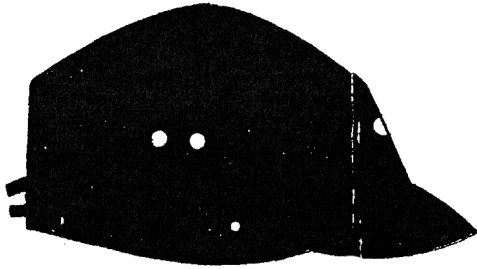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경성부 서린정 42
애국금차회	경성부 서린정 42
해운협회 조선본부	경성부 한강동 경성철도병원 내
매일신문사	경성부 태평동
금광교(金光敎) 조선관리소	경성부 원정 2정목 55
계명구락부	경성부 인사정 152
재향군인회 용산연합회 지부	경성부 제20사단 사령부 내
구세군 조선본부	경성부 서대문정 1정목 58
사법협회	경성부 서소문정 고등법원 내
치형(治刑)협회	조선총독부 법무국 내
수양단 조선연합회	경성부 청엽정 3정목 118
성공회	경성부 정동정 3
보덕회 조선사무소	경성부 영락정 2정목 73

10)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 상황 조(調) (1939년 6월 말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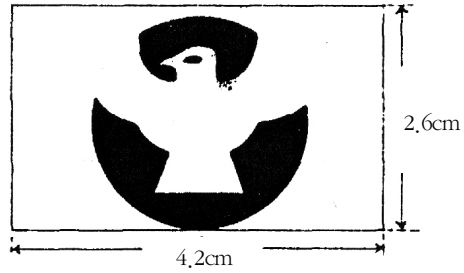
	부군도연맹		읍면연맹		정동리부락연맹		각종 연맹 수	애국반	
	부군도 수	결성 수	읍면 수	결성 수	정동리 부락 수	결성 수		반수	인원
경기	23	23	236	236	6,541	6,541	702	35,260	496,648
충북	10	10	106	106	3,695	3,695	333	15,024	203,570
충남	13	13	174	174	6,334	6,333	668	24,294	231,556
전북	16	16	176	176	6,241	6,087	237	23,300	268,327
전남	24	24	232	232	22,182	7,423	432	33,327	613,149
경북	24	24	231	231	11,030	6,392	603	37,992	423,830
경남	21	21	245	245	9,114	6,821	738	60,344	364,499
황해	18	18	212	212	5,096	4,657	227	21,155	299,388
평남	16	16	140	140	2,166	2,212	399	19,840	419,260
평북	20	20	178	178	1,481	2,914	909	18,426	317,753
강원	21	21	176	176	3,288	4,121	691	22,582	303,466
함남	18	18	131	131	2,979	3,441	1,082	19,446	254,010
함북	13	13	77	77	963	1,056	869	14,519	204,988
합계	239	239	2,352	2,352	81,310	61,915	7,914	347,728	4,622,444

1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표준복 양식 부(附) 경조의례휘장 기준

모자형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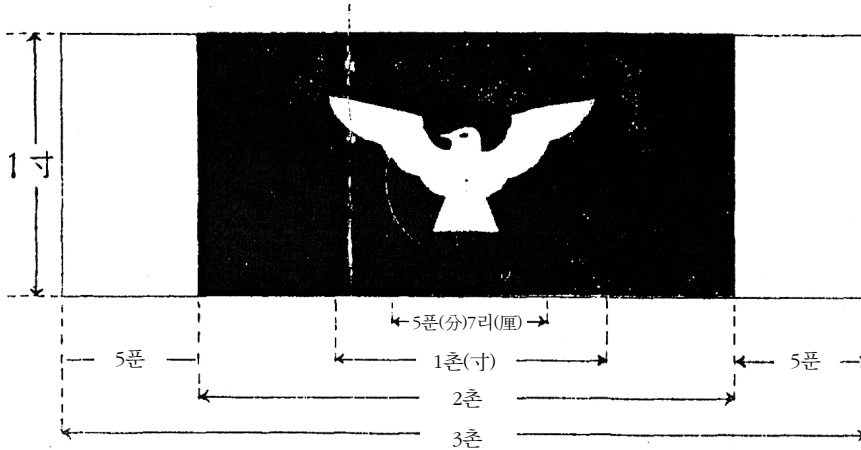


모자장식 의장도



실물크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역원장 의장도



의장설명: 붉은 테두리는 해를, 황색 새모양은 금빛 소리개를 표현한 것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표준복 기준

1. 모자(형상은 그림과 같음)
 - 가. 육군 전투 모자에 준한다.
 - 나. 지질 및 색상은 자유로 한다. 단 옷과 동일하게 한다.
2. 모자 의장(형상은 그림과 같음)
 - 가. 포제(布製)를 꿰멘다(치수 및 색상은 그림과 같음)

3. 옷(형상은 그림과 같음)
 - 가. 상의, 하의 모두 조선연합청년단복(표준관리복과도 같음)에 준한다.
 - 나. 재료 및 색상은 자유로 한다.
 - 다. 상의 □□ 및 상의 □□□의 유무는 자유로 한다.
 - 라. 하의는 보통 긴 바지이지만, 경우에 따라 짧은 바지로 대응할 수도 있다.
4. 휘장(형상은 그림과 같음)
5. 단추
 - 가. 재료는 비금속제품으로 하고, 형태는 2호형과 3호형 2종류로 한다.
 - 나. 2호형 : 상의 앞단추
 - 다. 3호형 : 상의 옆단추, 어깨, 소매
 - 라. 색상은 가능한 한 옷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6.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임원장(의장은 그림과 같음)
 - 가. 베로 만들어 평평하게 하여 왼쪽 어깨 상부에 붙인다.

경조의례휘장 기준

1. 경축휘장(형상, 색상은 그림과 같음)
2. 애도휘장(형상, 색상은 그림과 같음)
 - 가. 1과 2 모두 재질은 자유로이 한다.
 - 나. 1과 2 모두 왼쪽 가슴에 착용한다.

의복 형상도

금장(襟章)



의례경축장
(儀禮慶祝章)



6cm

상장(喪章)



상의
전면도



상의
후면도



폭 좁은
바지
(短袴)

폭 넓은
바지
(長袴)

〈부록〉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자료

1. 총독 고사(告辭), 담화 기타

1) 조선연맹 발회식에서의 총독 고사 〈요지〉 (1938년 7월 7일)

성전(聖戰) 여기에 1년, 황군의 위무(威武)가 이미 지나 전역을 제압하고 항일세력의 궁박(窮迫)은 날로 명백해져 응징의 거사는 바야흐로 그 절반을 달성하였다. 황군이 사방으로 나아가 국위를 중외에 떨치면서 혁혁한 전과(戰果)를 거두고 있어, 오인(吾人)은 감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변의 본질은 단순히 항일정권을 궤멸시켜 일시적인 평화를 호도미봉(糊塗彌縫)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나 민중을 과거의 학정으로부터 구하고, 제3국의 침략적인 화심(禍心)으로부터 지킴으로써 진정한 동양민족의 제휴협력을 통한 '동양인의 동양'을 건설하고 영원한 평화와 문화의 흥융(興隆)을 도모하는데 있다.

성업의 전도는 아직 요원 다난(多難)하여 우리 국민의 준비는 더욱 견확(堅確)을 기해야 한다. 사변 해결의 열쇠는 실로 우리 국민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제국은 거국일치, 물심양면에 걸쳐 총동원의 기획을 강화하여 전시체제의 완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반도에서도 또한 내선일체, 구체적으로 애국의 지성을 현현(顯現)하여 총후의 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은 안팎에서 모두 인정하는 바여서 마음 든든하다. 하지만 근대전의 특질인 사상전의 장래를 고찰하면, 동양민족을 지도할 사명을 지닌 황국신민은 지금 사상과 정신을 연성, 실천하는 국민운동에 철저히 않으면 유기적 전체로서 힘을 적시에 발휘하기 어렵다. 본직(本職)은 여러 번 국민운동의 조직 및 훈련의 급요(急要)를 강조해왔고, 이번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발회에 즈음하여 그 목적과 사명에 대해 만공(滿空)의 기대를 거는 바이다.

본일 여기에 각 방면의 유력자와 여러 단체가 모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동 경성연맹의 결맹을 하고 있다. 그 내건 취지는 개절(凱切)하고, 망라된 구성원은 광범하여 진정으로 반도의 총의를 반영한 것이다.

생각건대 방가(邦家)의 대사(大事)를 해결하는 길은 세세한 사정을 버리고 모든 차이를 없애면서, 대동단결의 본질에 의거하여 국책의 봉행에 매진하는 것에 있다. 현하 시국에 총후의 대임(大任)을 맡아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구성의 크기, 형식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그 정신의 강화행동의 웅경(雄勁)에 있다. 본직은 연맹원 각위가 진정으로 그 기백을 불태워 국가의 경륜에 책응(策應)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상 소회를 통해 고사(告辭)로 한다.

2) 국민정신총동원연맹 타합회에서의 총독 고사 〈요지〉 (1938년 9월 22일)

본일 이 자리에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여러분이 회동한 것을 계기로 본 운동에 관한 소회를 말씀드림에 앞서 먼저 시국 하에서 여러분의 진력에 깊이 감사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외람되게도 황실에서는 깊이 총후에 신경을 쓰면서 많은 인자함을 베풀고 계셔서 참으로 몸 둘 바 모르겠고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관민은 더욱 일치단결을 견고히 하여 봉공의 지성을 다하는데 유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이제 한구(漢口)의 함락도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능위(稜威) 아래 우리 충용한 황군은 가는 곳마다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국위를 세계에 발양했습니다. 위대한 공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일사군국(一死君國)의 마음으로 순국한 전몰장병의 영령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아국이 직면한 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달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국방, 외교, 산업, 경제, 교육 등 제반 사항에 걸쳐 정비 충실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 근저를 이루는 것은 황국정신으로 국민적 일대 결속을 이루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체관념을 명징하여 이를 일상생활 중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 양양을 도모하는 데에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중임을 맡은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국의 사명인 동양평화건설의 길은 먼저 우리 조국(肇國)의 이상인 팔굉일우의 대정신을 동아민족 사이에 알리 '동양은 동양인의 손을 통해서'라는 신념 아래, 동양의 모든 민족이 일본을 중심으로 화협일치(和協一致)하여 손을 굳게 잡고 공존동영(共存同榮)의 내실을 올리는 것에 있습니다. 다행이도 시국 하에서 우리 반도는 관민이 제후하여 시난(時難)의 극복에 매진한 결과, 총후를 지키겠다는 동포의 국민의식이 모든 조선에 널리 퍼져 황국신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변 발생과 동시에 총독부에서는 일반 민중에게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부여하고, 각오를 견고히 하고자 각종 시설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입니다.

본 운동은 이를 반복 실시하여 황국정신의 현양, 내선일체의 완성, 생업보국에의 매진, 총후의 후원, 사회풍조의 쇄신, 종산어촌의 진흥, 경제정책에의 협력, 생활의 혁신, 근로보국대의 결성 등 거국일치의 태세를 정비하는데 노력해오다가, 더욱이 그 효과를 응축시키기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결성하고, 내선일체라는 진정으로 국가의 대이상 현현(顯現)을 향해 용왕(勇往)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변의 항구화에 따라 본 운동의 취지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모든 국민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일어나는 순일(純一)한 정신에 의해 단결하는 집단적 행동훈련을 본체로 삼고, 또한 강력한 연락통제를 도모하여 국가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금년의 도지사회의에서도 본관은 3대 중요사항을 들어 훈시하면서 모든 조선의 관민협력을 요구했습니다. 그 하나는 국민운동의 통제조련입니다. 본 연맹의 결성은 즉 본 취지의 구상화(具象化)입니다. 본관은 특히 이를 중시하여 많은 관심으로 그 운영과 기능의 발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민운동의 통제훈련은 제반 관계상 조선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필요성도 강합니다. 따라서 본 운동도 내지와 기타 지역에 모범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정신총동원은 즉 일본정신의 총동원입니다. 일본정신은 단순한 마음자세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통해 구현됩니다. 또한 국민정신총동원은 국민 전반의 정신운동입니다. 한 정부, 한 관청, 일부 민간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 사이에 팽배하여 끓어오르는 관민일치 내선일체의

대(大)국민운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상의 취지를 양해하여 본 운동의 구체적 실시계획을 수립 실행함에 즈음하여 반도의 실정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책을 공부하여 본 운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3) 총재 추대식에서의 총독 훈시 <요지> (1938년 12월 6일)

이번 가와시마(川島) 대장 각하가 조선시찰에 오셨는데,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조직의 확충에 즈음하여 총재로 취임해주실 것을 간청한 바, 각하는 흔쾌히 대임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는 단지 조선반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황국 전체를 위해 정말로 경하를 금치 못하는 일로 깊이 축의를 표합니다.

지금 조선반도는 내선일체의 신념 위에서 2300만 동포가 일체가 되어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인고 단련하여 실력을 쌓고 생업보국의 정신으로 국력을 증진시켜 앞으로 동아의 장기 건설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본 연맹의 사명은 진정으로 중대합니다. 이번 가와시마 각하의 취임은 본 연맹의 이상 도달에 소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본 연맹은 각하의 강력한 지도와 통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맹 임원인 각하 및 여러분은 항상 총재를 잘 원조 지지하여 지도통제에 복종하고,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 연맹과의 연락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 조성(組成) 분자인 연맹원이 현하의 시국과 본 연맹에 관한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활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동아 건설의 성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정신운동으로 매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의 칙어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시체제 하에서 국민의 각오는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셨습니다. 국가의 총력은 즉 국민의 정신력과 경제력의 총력으로 귀착됩니다. 각 개인의 정신적 물자적인 모든 힘을 통합하여 이를 황국의 대의에 바치고, 일역의 황국신민은 일혼(一魂)의 열철(熱鐵)이 되어 황도를 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즈음하여 가와시마 각하는 본 연맹의 총재로 취임하시어 연맹의 중추조직을 정비하셨습니다. 400여만 명의 애국반원을 대규모 조직의 힘을 통해 지난 6월 22일 성명한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취지서'에 의거하여 황운부익의 대사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저는 실로 믿음직스럽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본 연맹의 힘을 통해 병참기지로서의 조선반도의 특종사명을 수행하고, 동아 건설의 성업 완수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만방일가 세계동포가 조국(肇國)이 이상으로 삼는 팔굉일우의 대이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소감을 훈시로 하겠습니다.

4) 연맹 지도자에 바라는 총독 담화 (1939년 3월)

성전 여기에 1년 9개월이 지났다. 동아의 사태는 폐하의 능위(稜威) 아래 황군 장사(將士)의 용맹과 총후국민의 충성을 통해 착착 전과를 올리고 있다. 황군의 점령 지구에서의 치안의 기초도 견고해졌고, 제국정부의 사변 선후처리에 관한 제반 시설 또한 잘 정비되고 있다. 사태는 드디어 제2단계인 동아신질서 건설의 대도(大道)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진정으로 경하할 일이다. 제국이 예전에 불

수 없던 큰 사변을 단기간에 오늘날과 같은 상태로까지 끌어올렸다. 제국의 위대한 국력에 감개무량을 금치 못하겠다.

물론 사변이 오늘로써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몰락한 장(莊) 정권은 여전히 잔여 패잔병을 모아 대륙의 오지에 할거하여 제국의 흥융을 바라지 않는 제3국의 원조를 바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최후의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戰局)의 전도에 상당한 곤란과 장애가 예상된다. 또한 구주의 최근 정세는 험악하여 언제 격심한 풍운이 불어 닥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나아가 작년의 장고봉 사건 이후, 소련의 동향 또한 결코 경시할 수 없다. 제국이 그동안 준비해온 진정한 실력의 발휘는 오히려 지금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전의 특징은 국력의 종합전(綜合戰)에 있다. 국력의 각 요소 가운데 무력과 경제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로 국민의 정신과 사상의 힘에 있다. 즉 전시 하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단호히 이를 돌파하여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위대한 정신력이야말로 전쟁의 최후 승패를 가늠하는 유일 최대의 요체이다. 이 요체는 동서고금에 통하는 만대불이(萬代不易)의 철칙이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특히 중요시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도에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작년 7월 이후 실천기관인 조선연맹 및 도부군도읍면부락연맹의 결성을 마치고, 겨울에는 가와시마 대장 각하를 총재로 추대하여 그 지도 아래 반도 2300만 민중의 견고한 결속을 다졌다. 마침내 신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변의 전도는 장기적으로 흐를 것 같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그 사명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지도자 여러분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음이 분명하다.

특히 오늘날 반도의 물심양면에서의 진보발달은 열성(列聖)의 성덕(盛德)과 수많은 이전 사람들의 고심경영으로 그 면모가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제국의 대륙정책기로서 모든 의미에서 국운의 소장(消長)에 중대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연맹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는 국제 및 국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중과의 제시(提撕)에 즈음하여 먼저 스스로 모범을 보이겠다는 각오 아래 실천궁행하여 사명달성에 매진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연맹활동의 기관지로서 연맹회보를 간행하게 된 것은 연맹의 금후 활동에 커다란 의의를 주는 것으로 정말로 경하할 일이다. 앞으로 건전한 발전을 바라고, 이번 기회에 한마디 희망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분려(奮勵)를 다짐하기 바라는 바이다.

5)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총독 담화 (1939년 4월 15일)

반도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작년 7월 사변 1주년을 계기로 경성에서 조선연맹을 결성한 이후, 모든 조선에 걸쳐 각 단위 단체를 결성하고 훈련 및 실천의 과정에 접어들었다. 실로 기쁜 일이다. 본 운동은 종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목 아래 대규모 조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본질상, 가능한 한 관내 모든 관민의 중의를 반영, 통합하여 본지의 철저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관계당국자는 그동안 기구를 정비하였지만, 이제는 이를 결정하고 실현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요점은 총독부 안에 관계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및 동 간사회를 설치하고, 총독부의

모든 부국이 기획 심의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 조선연맹에서는 관민대표를 망라한 기획 및 실시기관인 이사회와 참사회를 설치하고, 총독부의 위원 및 간사는 동시에 연맹의 이사 및 참사 자격으로 항상 총독부와 연맹과의 밀접한 연락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독부의 위원회, 간사회 및 연맹에 관한 사무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일부 국에 편중시키지 않겠다는 명분에서 종래의 학무국으로부터 관방 문서과로 이관시켜 업무를 담당시켰다.

또 기설 단체와의 관계는 농촌진흥운동의 기구는 이 운동과 함께 표리일체의 활동을 전개시키고, 기타 종래의 물심양면에 걸친 행정적 지도기구도 본래의 목적에 매진함은 물론 이의 확충강화에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그 정신적 지도에서는 연맹의 지도 원리와 목표로 귀일 순응시켜 혼연일체로서의 정신운동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요컨대 연맹의 운동은 모든 반도를 통틀어 일제히 계통적 세포조직으로의 확충을 도모하고, 내선일체 즉 반도 관민을 모두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정신의 양양에 철저하고, 거국일치의 태세를 견확(堅確)히 함으로써 성지를 따르고 만민보익의 내실을 올리려는 것이다. 그 누구라도 사심을 버리고 구관(舊慣)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대화대동(大和大同)의 대정신을 지니고 국민총력의 발휘에 매진할 각오를 지녀야 한다. 관내 모든 관민에게 진정 바라는 바이다.

6)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임원총회 석상에서의 총독 인사 (1939년 5월 30일)

오늘 이 자리에서 임사회동을 갖게 된 것은 저번에 제가 도쿄에 가서 내선일체에 관해 내지와 연계하게 된 개황을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와시마(川島) 각하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공사다망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동하여 주심에 충심으로 흔쾌하고 만족하는 바입니다. 도쿄에 간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각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선일체 그것은 반도통치의 최고지도목표입니다. 따라서 내선일체의 기초에 대해서는 온갖 기회를 통해 저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각하와 여러분도 그 취지를 체현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이 방침에 협력하고 각 기관을 지도하신 결과, 착착 유효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 전반을 위해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내선일체의 이념은 극히 고매(高邁)하고 장엄한 것입니다. 단지 한반도의 시설과 노력만으로 이를 수 있는 작은 범위에서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 그 어디일지라도 내선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내선일치의 취지가 철저해야 합니다. 각지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는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조선통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는 각하와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 반도에서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내선일체의 기초를 오늘날까지 쌓아왔습니다. 대체로 반도인이 '일본인이 되겠다'는 동향의 기초는 만들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견고하고 영구적으로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절한 시설은 물론, 민중 자신의 노력과 수양이 필요합니다.

지금 반도의 민심의 동향은 '우리 2300만 민중이 나아가야 할 길은 일본인이 되는 것이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신념은 단지 반도에서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내선인이 있는 곳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이야기 순서는 첫째, 내선일체의 신념을 실행하여 그 성과를 얻기 위해 오늘날까지 취해온 경과
의 개요, 둘째, 내지에 연락한 경과의 개황, 셋째, 내지에서의 개황, 넷째,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조치
등의 순서로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 자체의 정황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외국에 대한 조치는 착임 이후 만주는 물론,
재작년 사변 발발 이후 지나 및 구미 각국, 남양 각지에 있는 내선인의 지도보호감독에서 차별이 없
는 정부의 주지가 엄격하고 철저히 해외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교섭을 거듭한 결과, 작년 10월
12일자로 외무대신으로부터 구미 각국주재 일본대공사 및 해외에 있는 각 사신에게 적절하고 간절한
내선일체에 관한 훈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만, 종래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 동포인 반도인은 우리 재외공관을 의지하지 않았고, 재외공관 또한 애써 이들을 돌보려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누차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지 미국에서만 아니라, 남양이나 기타 각지에서
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있는 반도인은 더욱 일본인이라는 입장에서 떨어져났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무국적의 위치에 있었다는 상태입니다. 이는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드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이는 즉 선인 취급에 관한 훈령이 내려진 연유이기도 합니다.

동양에서 오늘까지 취해진 3~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주입니다만, 여기에는
약 100만 명의 반도 민중이 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건너간 자도 있고, 일한
병합 이후 일본의 정치를 싫어하여 건너간 자도 있습니다. 혹은 민족으로서 독립할 목적으로 간 자도
있고, 그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숫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만일체(日滿一體)의 관계가 되었을 때, 100만의 우리 동포의 신분 확정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지만, 이런저런 착종된 사정으로 인해 용이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만주국
정부 및 관동군과 2년 반에 걸친 다양한 교섭의 결과와 관동군, 만주국과 우리 중앙정부와의 교섭 결과,
최근에 이르러 확실히 그 취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즉 만주에 있는 내선인은 모두 대일본제국의 신민임과 동시에 만주건국의 민족협화 취지에 의거하
여 만주국의 인민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반도인의 신분결정의 기초입니다. 즉 한인(漢人), 몽골인, 만
인은 물론 만주국의 인민입니다만, 일본제국의 신민이 아닙니다. 만주국의 인민입니다. 만주국에 근무
하고 생활하는 자는 만주국의 인민입니다. 여기에 내선일체의 근본 취지는 만주국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직은 사변과 동시에 곧바로 북지를 탐방하고 몽골, 청도(靑島)에는 총독부로부터 각각 사
무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외무성 및 출정군사령부 등과 협의의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사무소의
사무관은 외무성의 사무관을 겸임이자 또한 군의 촉탁입니다. 왜 이러한 방법을 취했는지 말씀드리면,
반도 동포의 많은 수가 갑자기 북지 및 몽골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들의 소질은 양호하지 못해 오히려
가는 곳마다 악평을 받는 아주 불우한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드는 국책의 근본 의의에서 본다면, 이들은 같은 일본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도 항상 보호와 감독,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독부 관리가 가장 좋습

니다. 그들은 반도인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인에 대한 동정심이 깊고 인심의 추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대(對) 선인 사무를 실정에 입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외국에 있는 내선인은 모든 것을 외무성에게 맡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총독부의 예산에서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도 해결됩니다. 또 국제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에 있는 일본인은 모두 외무성의 감독 지도 보호를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다수의 반도인이 지나에 오더라도 그것은 외무성에서 일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특히 이번 사변이 불확대 방침에서 확대되어 결국 오늘날의 방대한 대사변으로 진전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선인에 대한 신분의 보호,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다수의 내지인이 건너가고, 그들을 감독, 보호는 일조차 아주 곤란한 사정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총독부는 지금과 같이 관제(官制)상으로는 외무성 겸임 처리 방식을 취하고, 군과는 촉탁의 형식을 통해 관리가 부족한 곳에 이들을 파견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선일체의 신념은 먼저 반도 자신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 신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인접한 우리의 형제국인 만주국 및 앞으로 더욱 친선관계로 손잡고 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려는 지나에 대한 공작은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끝났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발을 닿고 있는 조선 반도 및 지나와 몽골에는 이미 조치가 끝나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구미 각국, 남양 등에 대해서도 외무대신의 이름으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내지입니다. 내지에는 지금 약 80만의 동포가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곧 100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반도인이 내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선일체의 구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지 관민의 반도인에 대한 인식, 이들에 대한 시설, 지도와 80만의 반도인 스스로 '일본인이 되겠다'는 마음자세, 그에 대한 자제와 자숙, 수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보고서와 문서가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개관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직접 그들과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쿄에 갈 기회에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상 왜 내지에 내선일체를 연락했는지 그 기초적인 마음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지에 연락한 경과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각에서는 수상을 비롯해 각 대신 및 내각참의 전원의 회동 석상에서 조선통치의 현황을 설명했는데, 특히 역설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조선반도는 평시에나 전시를 불구하고 우리 제국의 전진병참기지라는 것, 그 병참기지라는 것은 우리 제국의 대륙정책을 실행하는 디딤돌을 의미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일지사변의 발발과 더불어 반도 민중의 열렬한 애국심의 발로가 모든 기회에 모든 방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 실정,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관민의 노력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다수의 반도인이 내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노동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학생문제는 국책으로서 국가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학생문제는 단순히 반도의 통치라던가 혹은 반도의 학생지원단체와 같은 것에만 맡겨둘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진정으로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기 위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서 국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것, 네 번째로는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의 실황에 대한 설명으로, 이상 네 가지 점에 대해 간담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특히 내선일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각 대신, 예를 들면 사회문제는 후생대신, 반도인의 사상이나 기타 동향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혹은 선도를 담당하는 내무대신, 학생의 지도에 대해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감독해야 할 문부대신, 국방의 견지에서는 이미 육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병제도와 그에 대한 장래의 예상과 해군의 본 제도에 대한 소견 등에 관해 개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후생성과 협화회(協和會)와의 합책(合策)에 따라 각지에서 협화사업 관계자 및 이에 종사하는 반도인의 주요 인사와 각지에서 간담회를 나누었습니다. 그 장소는 도쿄, 교토, 오사카의 3부를 비롯해 치바현(千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 미에현(三重縣), 기후현(岐阜縣), 아이치현(愛知縣), 나라현(奈良縣), 시가현(滋賀縣), 효고현(兵庫縣), 와카야마현(和歌山縣), 나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가는 도중에는 니가타현(新潟縣), 오이타현(大分縣) 등 3부 12현에 걸쳐서 이들 각 부현의 모든 협화회 이사장과 회합을 가져 간담을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학생이 많은 도쿄와 교토에서는 각 학교장 혹은 학교의 생도주사감과도 간담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은 반도 동포의 일상생활을 보기 위해 생활정도가 가장 낮은 지방을 시찰했습니다. 즉 도쿄에서는 후카가와(深川), 시바우라(芝浦), 오사카에서는 아마가사키(尼が崎)를 방문했습니다. 이상 여러 기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내지에 대해서도 바라는 점도 많아 이런저런 소감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이상 내지와 연락한 경과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지의 실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를 만드는 내선일체의 국시, 내지에 있어서 지식계급은 모두 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의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인에 대한 관념이 얽은 사람도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잘 이해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부와의 교섭 및 관민과의 시찰 연락 등에 따르면, 모두 내선일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고, 어디까지나 이를 지지한다는 것에 일치하였습니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선의 우리 관민은 모두 마음이 뿌듯할 뿐입니다. 내지의 반도인 문제는 그 질과 양에 따라 학생문제와 노동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학생문제가 더 중대합니다. 감히 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제 모두에 대한 대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 내지와 조선 양 당국 모두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선일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측 지식계급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일단 정부로부터 떨어져 민간이 실제로 접할 때, 조선반도가 병참기지라는 인식이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반도인에 대한 인식도 아직 뒤쳐져 있습니다. 동시에 내지에 거주하는 반도인이 ‘일본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 또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수양과 언어 등에서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는 쌍방 모두 정말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내선이 협력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문제에 대해서 보면, 지금 내지에 있는 학생은 1만 2000명이라는 다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쿄, 교토, 오사카에 있는 중학교 이상의 학생은 1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 학생의

동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학생이 건전한 사상과 실력의 발달을 거주어 우리의 후계자가 되어 진전 일본의 중견이 될 때는 일본이 크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반도의 진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 학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거나 사상의 중립을 잃고 생활소득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아진다면, 내선일체에 미칠 영향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심각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학생과 관계하는 학교당국 및 학생의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로 보았습시다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항상 회고했습니다.

자신의 체험이란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지나주둔군 사령관으로서 근무하던 당시의 일입니다.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에 평화조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19년에 제가 지나에 부임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마치 홍수와도 같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경제계 인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전 4년 만에 그들의 지나에 대한 경제력을 부활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장은 대전 중에 전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들이 세계대전에서 다수의 인명을 희생하고 다수의 재산을 버리면서까지 비로소 얻은 것은 황폐해져버린 그들의 본토와 참담한 자국의 민중생활이었습니다.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경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제력의 회복에는 구주에서는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결과, 이를 회복하는 것은 지나 대륙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나 대륙에서 회복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자국의 경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국의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모든 상품을 지나 대륙으로부터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축하는 데는 배일사상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은 연일 시장의 중앙에서 심지어는 일본인의 면전에서조차 기탄없이 배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제1선에 서서 목소리를 올린 자는 그 대부분이 일본에 유학한 지나 학생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사립학교에 가서 월사금을 납부하고 졸업하면 졸업증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면 국가가 그들을 맞이하여 관리가 된다는 공부 방법입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월사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식의 학교도 있습니다. 자제에 대한 정의(情誼)도 얕습니다. 하숙에서도 '짱골라'로서 바보취급을 당하고, 놀러가도 경멸당합니다. 제반 감정으로 인해 그들의 혐오의 마음은 일단 선동자가 나서면 이에 편승되고 맙니다. 어찌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저의 지나 3년간의 생활은 구미가 전력을 기울여 상권회복에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배일사상이 지나인 사이에 확대된 시기이자, 일본의 상품이 구축당한 시기였기 때문에, 유학생에 대한 취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반도의 학생이 설령 지나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 학생의 동향이 잘못된다면 정말 큰 일입니다. 지나는 외국이지만, 반도는 우리 일본입니다. 우리의 동포이자 형제입니다. 내지에서 모든 기관이 선인학생을 접할 때는 진실로 형제동포의 정의(情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학생은 앞으로 내선일체의 내실을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학생에 대한 시설 및 졸업 후의 취직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의 실정을 보면 정말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문제입니다. 반도인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내지에 도향했습니다. 사실 내지에서는 처음에는 노동력의 부족이라기보다 오히려 노동임금이 저렴하다는 관계에서 각 사업주가 그들을 사용했고, 결국에는 여러 곳에서 상호 인식의 부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친 결과, 반도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협화회가 성립되었습니다.

협화회의 근본방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우리 동포로서 취급하는 것에 있는데, 이는 인격의 향상을 도모하고, 무육(撫育)을 도모하거나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협화회 내부에 교풍회(矯風會)와 인보관(隣保館)을 설치했습니다. 교풍회의 주요 목표는 반도인으로 하여금 내지의 풍속 관습 언어 등을 습득하여 내선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가능한 한 내지화한다는, 말하자면 '시골에 가면 시골에 따르라'는 것이다. 반도인이 내지에 와서 생활하는 자는 내지의 생활, 내지의 언어, 내지의 풍속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교풍회의 근본방침입니다.

인보관은 교화, 구제, 상호구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친구나 노동 블로커로부터 내지에는 돈이 떨어져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온 사람, 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혹은 부양할 사람이 없는 노인, 고아의 보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처음 내지에 왔지만 의지할 친구나 친족이 없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또 취직을 알선하거나 병으로 쓰러진 자에게는 치료구호를 합니다. 혹은 자식이 커서 소학교에 들어가고, 소학교에 들어가면 당연히 내지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지어를 모르는 모친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내지어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소학교에 들어가면 불쌍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적어도 학령 1년 전에 보모가 내지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구제 보호지도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아직 정부로서 중앙에 그 기관이 없었습니다. 각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무성과 연락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만, 1936년에 정부는 국책으로서 협화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불하여 3부 28현 31개소에 협화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비로소 국책적 내선융화 기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협화회는 앞에서 말한 교풍회와 인보관 등의 활동을 통해 착착 반도인의 진전을 도모하면서 내선융화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저는 '내선융화'라는 표어를 여러 곳에서 정정해왔습니다. 지금은 융화의 시대가 아니라, '내선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협화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의 상경을 계기로 도쿄에 중앙협화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중앙협화회는 아직 발회식을 거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기구는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생각건대 중앙협화회가 성립된 근본 방침은 도쿄에 중앙협화회가 있고, 이 협화회가 내선일체의 지주(支柱)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지주의 출현을 열망하는 바입니다. 즉 본회는 각 성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후생성, 내무성, 문부성, 육군성, 해군성, 척무성과 같은 내선일체화에 관계 깊은 각 성과 직접 절충함으로써 항상 정부와 중앙협화회의 의사(意思)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협화회가 전국 31개의 협화회를 통제하여 긴밀불리(緊密不離)의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중앙협화회의 이사장인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는 각하 및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으로, 특히 조선과 인연도 깊고 반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격자입니다. 이는 반도를 위해 또 내지와 반도의 연결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와 이런저런 간담을 나누었습니다만, 이번 달 말에 세키야 이사장 자신이 앞의 각 성과 교섭한 결과를 가지고 조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커다란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시찰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날 내선일체와 관계하는 시설에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또한 상당히 구현되어 제 자신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즉 저의 관념을 솔직히 고백하면, 1930, 1931년 무렵 내선인(內鮮人) 사이에 감정이 가장 멀어졌을 때의 일이 머릿속에 남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10년 후인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부의 시설, 부현(府縣) 관계당국의 노력 및 반도인의 자각 자성 수양 등에 의해 아주 좋은 상태로 나아가고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하지만 이상의 사실은 좋은 점만 거론한 것으로,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내지인도 반도인 자신에게도 많습니다. 특히 시설과 노력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반 민중의 반도인에 대한 인식은 좀 더 깊이 방법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인이 일본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에도 불충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를 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선일체의 사상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식계급은 내지인과 선인 모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율(金聲律)의 「사실로 본 내선일체」의 소견이나 윤치호(尹致昊)의 「내선일체에 관한 소신」, 혹은 현영섭(玄永燮)의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과 같은 글을 보면 분명합니다. 이 글들의 논점은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내선일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로 본 내선일체」에서는 내선일체는 일한병합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대(神代)의 옛날부터 고대에 걸친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미 내선일체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선일체는 오히려 옛날로 돌아간다는 논의입니다. 또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에서는 내선일체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풍속 등에서 바꿀 것은 단호히 바꾸고, 나아가 조선의 언어도 폐지해야 한다고 거론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윤치호의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는 것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겉으로 내선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과 입장에서 내선일체를 논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논의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이라는 것으로 동일하게 귀착하여 내선일체의 의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선일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선을 대비하여 생각한다는 것이 대금물(大禁物)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비하여 생각하면 내지인의 입장에서는 “반도인은 권리만을 말하고 책임질 줄 모른다”거나 “반도의 오늘이 있는 것은 우리 내지인 선각자에 의해 얻어졌다는 것을 잊고 있다”라고 공격합니다. 이에 반해 반도인은 “내지인은 어디까지나 불평등하고 우월감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극된 견해가 표출되는 이유는 내선을 대비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로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드는 주지에 따라 “반도인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일본인이 될 수 있을까”라던가 “내지인은 어떻게 하면 반도인과 일체가 되어 성지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념에서 비로소 내선일체는 가능합니다. 내선일체를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혹은 동양의 현상세계의 환경에서 논할 수 있지만, 그 귀착점은 필히 천황을 중심으로 내선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선일체라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정의에 입각한 통치는 세계 각국에 유례가 없는 숭고한 도의적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만주국이 형제국이 되었고, 지나도 장래에 제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역설하는 것은 '내선일체'는 상호 손을 잡는다거나 형태가 융합되는 것과 같은 미지근한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잡는 사람은 손을 놓으면 또 이별이고, 물과 기름도 무리하게 섞으면 융합한 형태로 되지만 그래서서는 안 됩니다. 모양도, 마음도, 피도, 몸도 모두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하 세계정서의 획기적 변화를 계기로 전향할 자는 빨리 전향해야 하고, 시국인식이 부족한 자는 인식을 깊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는 길은 목전의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선일체의 강화 구현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신질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만주국을 형제국으로 만든다거나 지나와 제휴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선은 융합도 아니고, 약수도 아닙니다. 심신 모두가 진정으로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선의 연락은 도쿄의 중앙협화회를 통해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중앙협화회와 정부 및 내지 31개 부현의 협화회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것은 총독부에서도 직접 정부와 연락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문제, 족적(族籍)문제, 풍속 습관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민이 스스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드리면, 오늘 회합에 오신 여러분은 모든 방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공사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내지를 왕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필히 내지의 협화기관에 가거나 와서 단 한곳의 장소일지라도 좋으니 그곳에서 조선의 상황을 전하고, 그들의 실태도 듣고 돌아와 조선에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말하기 쉽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말하기 쉽고 행동하기 어려운 것은 많습시다만, 이것은 마음 하나만 신경 쓰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지사회의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리로서 관령(官令)에 따라 내지에 갈 경우에는 필히 갈 때나 돌아오는 도중, 한 곳에서 직접 협화사업에 관계하는 사람과 회동하여 상호 의사를 소통하라고 말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단 한 곳에서 행하는 일일지라도 반복하면 널리 전파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조선반도에 대한 내지인의 이해는 과거 20수년간 당사자의 모든 노력에 필적할만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즉 재작년 출정하여 조선을 통과한 시일은 1개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1년간 반도 민중의 열성적인 환송영에 대해 장병 모두는 충심으로 감격하고, 이를 그들의 부형에게 전했기 때문에 내지의 부형은 모두 “조선이란 그런 곳이었구나”라고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급력의 위대함은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내지의 조선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오늘날 내선일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모든 기회에 내지의 협화사업과 관련된 사람과 연락하여 의사를 소통하고, 서로 피아의 상황을 알려 개선할 점에 노력한다면 그 성과가 클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지사회의에서 관리의 실행을 요망했던 것입니다. 이는 각하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저에게도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연맹 성립 시에도 지사회의에서도 저는 “이번 연맹의 중앙기관이 성립하였다. 덕망 있는가와시마 각하를 총재로 추대하여 그 기초가 더욱 강고해졌다. 앞으로 총독부의 관리도 그렇지만, 지방의 관리도 각지를 순시할 때는 그 본래의 공무와 더불어 연맹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라도 좋다. 단 한사람

이라도 좋으니 필히 그들을 접하여 실황을 듣고 연락해야 한다. 즉 이것이 연맹운동을 철저히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요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내지여행 시에 협회회원과 접촉하라는 것도 이러한 주지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활동입니다. 현하의 활동상황은 내각에서도 말해두었습니다. 다만 연맹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하면, 2300만 민중을 총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총량한 황국신민, 그것은 진정한 일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인이란 천황중심주의의 만민부익(萬民扶翼)의 황도(皇道)에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연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선일체의 완전한 구현에 있습니다. 연맹의 활동목표는 항상 여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특수지대의 의의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한국병합 이후 오늘날까지 불과 30년, 내지와 같이 30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녀온 국민성과는 인정, 풍속, 습관 등에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는 바는 동성동근(同性同根)에 가깝고, 더구나 천 수백 년 전에는 125년의 오랜 시일에 걸쳐 내선일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현하의 내선일체는 복고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국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단순하고 짧은 목표가 아니라, 영구지속적인 것입니다.

내선일체의 최후는 내선 무차별 평등에 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상생활 중에 포용하여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연맹의 행동은 추상적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론에 집착하여 민중의 꿈무니를 두들겨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직무는 총독입니다만, 재선(在鮮) 주민으로서 애국반의 한사람입니다. 저의 애국반은 제 가정과 운전수, 정원사 등의 가정 및 경무국장과 비서관의 가정으로 반장은 경무국장입니다. 매일 아침 항상 먼저 궁성요배하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운 다음, 매일 1일에는 신사를 참배합니다.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근로봉사를 합니다. 스스로 청소하거나 정원의 풀을 뽑기도 하고 하수를 청소하는 등 필히 실행합니다. 또 매일의 공직무 및 가정행사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날 조선연맹은 애국반 31만 3천여 개, 그 반원 수 425만여 명입니다. 이들은 우리 반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내지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 참배, 국기의 존중, 국가의 합창, 근로종사, 농산어촌의 진흥운동 등의 장려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순응하기 위해 생산력 확충에 노력하고 저축의 장려, 폐물이용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맹정신에 의거한 것입니다. 연맹의 목표는 너무 많아 곤란할 정도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내선일체의 구현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맹의 활동은 내선일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본 운동의 확대강화가 내지로 전개해 나간다면, 여기에 내선 두 곳을 통해 내선일체의 인식이 확고부동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국은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와의 연계를 통해 방공협정을 강화하여 구주에서의 신건설에도 간접적으로 원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대일본제국은 지금 세계에서의 신질서 건설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세계의 추세는 신건설을 이루려는 사상과 예전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상으로 확연히 구별

되어 사상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력전에서도 또한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습니다. 사상과 무력 양자를 포함해 개전(開戰)한 것은 세계에서 단지 일본뿐입니다. 이러한 주요(樞要)한 위치에 있는 일본에서 우리는 삶을 누리고, 세계 중심의 일원으로서 신건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필경 이러한 것들의 핵심은 내선일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내선인은 비상한 각오, 소위 필사(必死)의 각오를 품어야 합니다. 또한 진지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국일치하여 멸사봉공해야 하고, 서로 분려(奮勵)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반도 2300만 민중이 이번 시국을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오늘 모이신 각하와 여러분의 노력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면서 분려와 협력을 간절히 절망하는 바입니다. 이상 지성(至誠)을 피력하여 저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7) 기원 2600년 기원절에 즈음한 총독 담화

오늘 기원 2600년을 기념하는 기원절을 맞이하여 반도 2,300만 동포와 더불어 삼가 황실의 영원한 번영을 받들고 국운의 융창을 기원한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오늘, 신무(神武) 천황은 국내를 평정한 다음, 야마토(大和)의 가시하라미요(橿原宮)로 즉위의 대례를 거행한 다음, 조국(肇國)의 정신에 따라 팔굉일우의 마음으로 국가의 초석을 견고히 세웠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는 이미 황조(皇祖) 천조대신(天照大神)이 내려준 나라이고, 우리 국체는 천양무궁(天壤無窮)의 신칙(神勅)과 더불어 확립되었다. 신무천황은 황조의 신칙을 봉체(奉體)하여 천업(天業)을 회홍(恢弘)하고, 국위의 진장(振張), 만민의 안무(安撫)에 마음을 쏟으셨다. 이후 연면한 황통과 더불어 국운이 부단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은 정말로 만방무비(萬邦無比)이자 황국이 존엄한 연유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신무천황의 위업은 효덕(孝德) 천황 대의 대화(大化) 개신, 명치천황 때의 명치유신과 더불어 역사에서 가장 빛난다. 지금 홍아유신에 직면한 우리 국민이 신무천황의 위업을 우러러 찬양(讚仰)의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기념해야 할 기원 2600년의 가절(佳節)을 맞이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의 섭리를 느끼고 무한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정세는 극히 혼돈스럽다. 열국 모두가 귀추(歸趨)에 헤매고 있을 때, 동아의 천지에는 운무(雲霧)가 걷히고 밝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 지나사변이 발발한 지 2년 반, 황군은 미증유의 전과를 거두었다. 지나 민중은 홍아유신의 정신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고, 배공(排共) 친일을 강령으로 한 새로운 지나 중앙정부의 수립이 목전에 다가왔다. 경제적으로는 일만지(日滿支)의 연계도 착착 그 태세를 갖추고, 선린우호, 공동방위, 경제협작의 기운이 날로 견고해지는 상황이다. 기원 2600년인 금년, 정말로 팔굉일우의 정신을 발양하여 우리 조국(肇國) 이래의 웅도(雄圖)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도달하였다. 국민은 이러한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지 말고 총력을 발휘하여 일로매진해야 한다. 성업에 즈음하여 동아의 천지에 도의를 내세우고 황도를 선포해야 한다. 금년을 가장 의의 있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 조선은 제국의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업에 대해 부여된 사명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나 내선일체가 되어 그 책임을 다하여 조국의 정신을 회홍하고 신무천황의 위업을 응당 받들겠다는 불퇴전의 각오가 필요하다.

8) 국민정신총동원 전매연맹(專賣聯盟) 지도자 강습회에서 정무총감 훈화 (1939년 5월 4일)

국민정신총동원 전매연맹의 지도자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 저의 소회를 밝힘으로써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소위 선전포고 없는 전쟁, 강화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번 사변의 특징입니다. 용공 항일정권을 퇴치함과 동시에 그 배후에서 동아의 화란(禍亂)을 이용하려는 제3국의 책모를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 점령지구의 양민을 안무(安撫)시키고 그 정권을 원조하여 새로운 지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만주, 지나의 세 국민의 친선제휴를 통해 동양인에 의한 동양의 자주적 평화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소위 동아신질서의 건설입니다. 이는 동양의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대사업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대의 우리 국민은 위로는 폐하의 능위(稜威)를 받들어 전쟁터와 총후의 국민 모두가 일체가 되어 영광스러운 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경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고, 총후는 결속되어 있습니다. 장개석 일파와 이를 지원하는 제3국인이 '일본은 개전 반년도 되지 않아 내쟁(內爭)과 경제의 파탄으로 인해 장기전에 견딜 수 없을 것이다'는 사전의 관측은 착오로 끝났습니다. 제국이 차분한 여유로 장기전과 장기 건설에 임하고 있음에 서로 간에 진정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그렇지만 사변의 건설공작은 아직 중도에 있습니다. 전국(戰局)이 널리 확대된 결과, 대규모 병력의 전투는 줄어들었지만, 적은 '4월 공세'라고 칭하면서 드디어 전투의 본령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격해짐에 따라 전선의 장사(將士)의 노고는 정신적으로 커질 것으로 상상됩니다. 그리고 패배하여 오늘날 궁경(窮境)에 빠진 장(莊) 정권이 아직도 관계하는 제3국과 함께 요행을 기대하는 것은 장기전 계속으로 인한 일본국민의 권태와 일본경제의 파탄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국민이 고유의 정신력과 강인한 경제력을 더욱 발휘하는 것, 즉 칙어에 공포된 '국민정신의 양양과 국가 총력의 발휘'라는 2대 명제를 국민생활에서 강력히 시현(示現)하는 것만이 패잔정권의 공허한 기대를 일축시켜 시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 자원과 물자를 전쟁 목적으로 집주(集注) 통제하려는 물자총동원계획이 수립 실행되었고, 또 한편으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체제가 조직 실천되어 물건과 마음 양 방면으로부터 전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전시태세를 물건과 마음 두 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건을 지배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에 의해서입니다. 물건이 인간의 생활을 결정지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사가 생활을 결정하고 물건을 지배합니다. 사변 발발 이후 점차 강화된 경제의 통제도 국가국민의 최고 의지에 따르겠다는 입장에서 국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전쟁수행상의 필요 때문에 규제한 것입니다. 즉 다름 아닌 국민의 의사, 정신력이 정치를 넘어 물건과 경제를 지배한 것입니다.

지금 국가는 전력을 기울여 이전에 볼 수 없던 대규모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지와 목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국민 사이에는 아직도 성전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즉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국에 대해 상당한 인식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장기전의 이행에 따라 일종

의 권태감이 생겨 사변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관찰에 빠져 총후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자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지난 세계대전에서는 구주의 교전 국민이 개전 1년 이후 무렵에 이미 상당한 식량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변 하에서는 우리 국민 사이에 아무런 식량의 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후의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지속되는 전쟁에서의 승리 소식과 더불어 국민의 긴장을 느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사변은 마치 빙산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수중에 가라앉은 것처럼, 그 본질과 근저는 표면에 나타난 부분에 비해 몇 배 정도 깊고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 전야를 방불케 하는 최근의 세계정세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앞길에는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완만한 민심을 긴장시켜야 합니다. 국민생활을 국가의 의사에 적응시켜 일사불란한 결속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인식과 결의를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국책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관민일치의 형태로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작년 7월, 사변 1주년을 계기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한 이후, 모든 조선에 걸쳐 계속해서 각 단위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가와시마(川島) 대장 각하를 총재로 추대하여 관민이 모두 하나가 된 중앙 기구도 완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년도를 맞이함과 동시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를 살려서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맹 관계자의 노력과 정진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의 본 운동이 목표하는 바는 모든 반도동포가 황국신민으로서의 심경에 철저히 내선일체를 깊이 깨달아 가는 것, 이러한 심경에 따라 함께 전시하의 중요국책에 협력함으로써 성전의 수행과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환연한다면 미나미 총독이 견지하는 시정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민 그 누구도 빠짐없이 몸으로 실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중대 국책이 국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말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말하면 일반대중이 관여하는 것으로서는 첫째로 생산력의 증강, 둘째로 소비의 절약과 저축의 장려입니다. 이는 사변 발생 이후 많은 기회에 강조된 것입니다. 일반의 상식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하지만, 사변 3년째인 본년도는 내지와 외지를 통해 모두 예산이 팽창되어 물가와 화폐의 균형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더욱 신중히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여 증산과 절약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물가문제는 곤란해지고 국가재정과 국민생활은 그 유례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총후국민으로서의 강한 정신을 발휘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목표는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용맹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도에서의 내지인,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관공리와 반도인 중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민심을 지도할 책임이 아주 큼니다. 연맹의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솔선하여 스스로 실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의 자각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맹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전매연맹이 일찍이 결성되어 통제된 행동을 하고 있음에 경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

로서의 입장에서 더욱 지도정신을 연마하고, 모든 연맹에게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9) 국민정신총동원 지방연맹대회 총독 고사

(1)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북도연맹 지도자 대회에서의 총독 고사 (1939년 3월 1일)

오늘 본도에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지도자대회를 개최함에 즈음하여 연맹운동의 지도자인 여러분에게 소회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국가총동원의 근원은 국민의 지성(至誠) 단결에 있습니다. 국가는 전쟁목적의 관철을 기하고 국가총력의 원활하고 강력한 발휘에 최후의 보장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과 기타 각종 비상시국법을 통해 전쟁에 필요한 자금, 물자, 기술, 노동력 등의 동원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국민 각자입니다. 국가의 법이나 관의 명령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궤도(軌道)이고, 최후의 목적 달성은 결국 국민의 지성에 의거한 자발적 협력단결의 추진력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지성이란 다른 말로 한다면 일본정신 그 자체이자, 황운부익(皇運扶翼)의 충성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다름 아닌 흥아의 대사업에 대한 강력하고 열렬한 희생봉공의 지성입니다. 이러한 지성에 의거한 정신력이야말로 모든 국력의 근본이 됩니다. 국가총동원체제에서 국민정신총동원의 사명은 일반에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바로 여기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여러분은 특히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평소의 지도에 임해야 합니다.

둘째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서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은 각자의 본무를 충실히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맹이 해야 할 일은 각자의 직장이나 가게, 부업에 있고 또는 이웃을 돕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국 국민각자 남녀노소의 목전에 펼쳐져있는 본무를 시국국책에 적응하도록 진심으로 강력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연맹 지도기관의 발동(發動)은 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부여하고 이를 유효히 통합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한 연맹원으로서 각자의 본업이 있습니다. 그 본업에 최선을 다함과 더불어 지도자로서 다른 연맹원에 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책무도 있습니다. 이 책무야말로 이번 미증유의 성업에서 중대한 부서를 담당한다는 무상(無上)의 영예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더욱 자중과 분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국가총력의 영속적 발휘의 필요입니다. 국민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주어진 각자의 본무에 정려(精勵)함과 더불어 긴장을 언제까지나 계속해나가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사변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그 규모의 광대함으로 보아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완전한 종결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사태는 지나와 소련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반일 열국은 일본의 경제력과 긴장력이 결국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몰락하는 장(蔣) 정권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끝없이 기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이들 반일제국이 완전히 동양에 대한 간섭과 야심을 포기하기까지 이 사변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난(時難)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후의 보장(保障)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충성, 즉 일본정신에 의거한 국가총력의 불퇴불굴의 지구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말한 바를 다시 생각하면, 연맹이 충분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맹원 각자의 열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중요합니다. 국민 각자는 아무튼 자기 일신(一身)의 사정에 지배되어 국가의 대국을 잘못 바라보기 쉽습니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열의를 갖고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국력 안으로 통합시키는 일은 지도의 적부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항상 스스로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지방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여 연맹원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싸움은 필히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미증유의 비상시에 즈음하여 광휘(光輝)하는 황국의 역사적 중대 시국을 떠안고, 위로는 천황폐하의 성모(聖謨)를 보익하여 받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성용무(忠誠勇武)한 조선(祖先)의 유업을 계승하면서 자손에게 교훈을 남겨줄 수 있는 중책을 생각하면, 이상한 긴장 속에서도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의 용솨음을 느낍니다. 연맹운동은 연맹원의 자발적 의지에 의거하여 총재의 통제 아래 연맹자체의 힘으로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관에서도 이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극력 원조에 노력할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 황도부익의 대도에 관민 일치하여 매진함으로써 조선이 지닌 특수사명을 완전히 다하는 것입니다.

(2)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남도연맹 대회에서의 총독 고사 (1939년 6월 3일)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남도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소회를 말하고자 한다. 지나사변이 발발한 지 1년 11개월이 지났다. 제국의 위무(威武)는 팔굉(八紘)에 빛나고, 동아신질서 건설의 대업은 착착 진전을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경축해마지 않는 바이다. 삼가 천황 폐하의 능위(稜威)를 받들어 모심과 함께 현지에서의 황군의 고투에 감사하고, 더불어 전몰 장사(將士)의 영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지금 사변은 동아의 전국(全局)으로 파급되어 풍운 속에 쌓인 서구의 정세와 결부되고 있다. 제국을 둘러싼 제반 사태는 더욱 험악해져 국민의 각오는 한 순간도 이완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은 제국의 현하 사태를 고려하여 특히 반도로서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병합 당시의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내선일체의 이상을 철저한 구현할 것
2. 지나사변의 전과를 확보하여 신동아건설의 성업을 관철시킬 것
3. 제국 전통의 황도를 세계에 선포하여 세계 각 민족의 공존공영의 신질서를 건설할 것

이상 세 가지의 강화철저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장래의 세계혼란의 시대에 대처하려는 제국이 모든 동아의 대중과 함께 자주안녕을 다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책이다.

유래로 전라남도 반도의 식량자원이 풍부하고 또한 해저의 천산(天産)이 풍요로워 대륙병참기지로서의 반도의 사명의 중요한 부분을 떠안고 있다. 또 매 기마다 지원병의 채용에 있어 항상 우위를 나타내는 좋은 성적을 보였다. 더욱이 매년 다수의 노동력을 서북선 및 만주국 방면에 공급하여 그 개발에 협력하고 있어 가장 마음이 든든한 곳이다. 제국의 금후 사태에 즈음하여 이들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공급확보는 더욱 그 중대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은 제반 상황과 장래의 동향을 감안하여 관민협력과 내선일치를 통해 충분히 본 운동의 진정한 의의를 이해하고, 단호한 불퇴전의 결의로 시난(時難)의

극복에 매진함으로써 황국신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이상을 고사로 한다.

(3)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 정읍면연맹 이사장 대회에서의 총독 훈시 (1939년 6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 정읍면연맹 이사장 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소회를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성전이 2년을 앞두고 있다. 황사(皇師)는 당당히 세계를 경탄시킬 정도의 전과를 거두었고, 신질서건설의 사업 또한 착착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는 모두 능위(稜威)에 의한 것으로 국민은 감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항일세력은 여전히 대륙 오지에 준동(蠢動)하고 있어 건설의 전도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사변의 본질상 지나의 국공당군(國共黨軍)을 기만하면서 동아의 혼란을 틈타 적화침략을 일삼거나 혹은 지나를 경제적으로 반(半)식민지화하려는 제3국의 화심(禍心)과 야망을 봉쇄하여야 한다.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전야를 연상케 할 정도의 세계정세의 격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일본국민의 전력 저하를 기다리면서 열세를 만회하고, 공동간섭을 기회로 삼으려는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우리가 성전의 목적을 관철하고 성업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국민정신의 양양과 국가총력의 발휘이다.

작년 사변 1주년을 계기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반도에서 일어났다. 내선일체와 관민일치로 조짐을 모든 조선으로 확대하고, 충후보효(銃後報效)의 일성(一誠)을 합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시국의 전도는 더욱 어려워 국민정신 양양의 필요성이 더욱 긴급(緊切)해졌다. 이번에 반도통치의 중추지 경성을 포함해 선구자적인 지위에 있는 경기도에서 정, 읍, 면동맹의 수뇌자의 분기(奮起)를 통해 시무를 천명하고 결속협력의 내실을 기하여 나아갈 바를 하나로 하였다. 나는 여러분의 굳센 뜻과 성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여러분, 부디 본 대회의 의기(意氣)를 살려 향토 인심을 고무시키고, 국책준수의 내실을 거두어 경기도 내의 연맹활동의 축적이 모든 조선의 규범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4) 국민정신총동원 강원도 군읍면연맹 지도자 대회에서의 총독 고사 (1939년 6월 25일)

국민정신총동원 강원도 군읍면연맹 지도자 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소회를 말하고자 한다.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황군의 무위(武威)는 지나 전역을 뒤덮고, 신질서건설의 대업도 착착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다. 동아의 천지가 현저히 명랑해진 것은 모든 아시아 대중을 위해 경축해마지 않는 바이다. 삼가 천황 폐하의 능위(稜威)를 받들어 모심과 함께 현지에서의 황군의 고투에 감사하고, 더불어 전몰 장사(將士)의 영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사변 발발 이후 우리 반도는 대륙병참기지로서 제국 국방의 제1선에 섰다. 반도가 보유하는 풍부한 자원과 고유의 지리적 요건은 국책의 수행에 기여하는 바가 실로 커서 마음 든든하다. 병합 29년간 선인(先人)들의 고심 경영의 자취를 추회(追懷)하니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사변의 장기 이행에 따라

지금은 동아의 신질서를 확립하려는 제국과 장개석을 원조하면서 이를 방해하려는 제3국과의 대립항쟁이 점차 표면화하고 있다. 황군 점령 지구에서의 각종 공작과 더불어 사변의 전도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후 반도의 책무는 더욱 중가(重加)되고, 총후국민의 긴장은 한 순간의 유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관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황국전통의 국민정신을 양양하고, 이를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실천하고 구체화하는 것에 있다. 즉,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반도통치의 최고지표인 일시동인의 성지를 철저히 하고, 내선일체의 이상을 실현하는 반도 현하의 가장 중요한 급무이다.
2.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지나사변의 관철을 기하고, 그 전과를 확보함과 더불어 모든 동아신질서를 건설하는 유일무이한 방책이다.
3.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세계에서 제국의 자주적 입장을 확립하고, 황도를 세계에 선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세계 각 민족에게 진정한 질서와 평화를 밝히려는 제국 부동의 방침이다.

지도자 여러분은 제반 정세를 살펴 본 운동의 의의와 사명에 관해 더욱 인식을 깊이 해야 한다. 특히 비상시의 국민생활의 확립 철저에 노력하는 데 뜻을 두면서, 중서(衆庶)를 이끌어 반도 총후에서의 진용의 강화철저에 노력하고, 오늘에 이른 반도통치에 관한 선인들의 고심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상을 고사로 한다.

(5)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북도연맹 대회에서의 총독 고사 (1939년 6월 30일)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북도 연맹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소회를 말하고자 한다.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2성상(星霜)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천황 폐하의 능위(稜威) 아래 총렬한 황군의 용무(勇武)와 견고한 총후국민의 결속은 세계 전사(戰史)에서 미증유의 전과를 거두었다. 황위를 팔굉에 발양하고 있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삼가 황군의 절대적인 훈공에 감사하고, 더불어 이경(異境)에서 전몰한 호국의 영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지나사변 발발 이후 우리 반도는 대륙병참기지로서 제국 국방의 제1선에 섰다. 반도의 풍부한 자원과 고유의 지리적 요건은 국책의 수행에 기여하는 바가 실로 커서 마음 든든하다. 병합 29년에 걸친 선인(先人)들의 고심 경영의 자취를 추회(追懷)하니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사변의 장기 이행에 따라 지금은 동아의 신질서를 확립하려는 제국과 장개석을 원조하면서 이를 방해하려는 제3국과의 대립항쟁이 점차 표면화하고 있다. 황군 점령 지구에서의 각종 공작과 더불어 사변의 전도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후 반도의 사명은 더욱 중가(重加)되고, 국민의 긴장은 한 순간의 유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우리에게 부여된 시국 담당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황국전통의 국민정신을 양양하고, 이를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실천하고 구체화하여 국가총력전의 내실을 발휘하는 것에 있다. 즉,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반도통치의 최고목표인 내선일체의 이상을 현현(顯現)하고, 일시동인의 성지를 철저히 하는 반도 현하의 급무이다.
2.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지나사변의 관철을 도모하고, 황군 병사의 벽혈(碧血)에 의해 얻은 전과를 확보하면서 동아에서의 신질서 건설을 도모해야 할 시국 하의 불가결한 방책이다.
3.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세계에서 제국의 자주적 입장을 확립하고, 황도를 우내(宇內)에 선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세계 각 민족에게 올바른 질서와 평화를 밝히려는 조국(肇國)의 이상을 실현하는 황국전통의 방침이다.

여러분은 제반 정세를 살펴 본 운동의 의의와 사명에 관해 더욱 인식을 깊이 해야 한다. 특히 비상시의 국민생활의 자숙철저에 노력하는 데 뜻을 두면서 중서(衆庶)를 이끌어 총후반도를 견고히 지키고,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향해 매진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상을 고사로 한다.

(6)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남도연맹 대회에서의 총독 고사 (1939년 7월 14일)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남도 연맹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소회를 말하고자 한다.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2성상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천황 폐하의 능위(稜威) 아래 충렬한 황군의 용무(勇武)와 견고한 총후국민의 결속은 세계 전사(戰史)에서 미증유의 전과를 거두었다. 황위를 팔괘에 발양하고 있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삼가 황군의 절대적인 훈공에 감사하고, 더불어 이경(異境)에서 전몰한 호국의 영령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지나사변 발발 이후 우리 반도는 대륙병참기지로서 제국 국방의 제1선에 섰다. 반도의 풍부한 자원과 고유의 지리적 요건은 국책의 수행에 기여하는 바가 실로 커서 마음 든든하다. 병합 29년에 걸친 선인(先人)들의 고심 경영의 자취를 추회(追懷)하니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사변의 장기 이행에 따라 지금은 동아의 신질서를 확립하려는 제국과 장개석을 원조하면서 이를 방해하려는 제3국과의 대립항쟁이 점차 표면화하고 있다. 황군 점령 지구에서의 각종 공작과 더불어 사변의 전도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후 반도의 사명은 더욱 중가(重加)되고, 국민의 긴장은 한 순간의 유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우리에게 부여된 시국 담당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황국전통의 국민정신을 양양하고, 이를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실천하고 구체화하여 국가총력전의 내실을 발휘하는 것에 있다. 즉,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반도통치의 최고목표인 내선일체의 이상을 현현(顯現)하고, 일시동인의 성지를 철저히 하는 반도 현하의 급무이다.
2.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지나사변의 관철을 도모하고, 황군 병사의 벽혈(碧血)에 의해 얻은 전과를 확보하면서 동아에서의 신질서 건설을 도모해야 할 시국 하의 불가결한 방책이다.
3.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세계에서 제국의 자주적 입장을 확립하고, 황도를 우내(宇內)에 선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세계 각 민족에게 올바른 질서와 평화를 밝히려는 조국(肇國)의 이상을 실현하는 황국전통의 방침이다.

여러분은 제반 정세를 살펴 본 운동의 의의와 사명에 관해 더욱 인식을 깊이 해야 한다. 특히 비상시의 국민생활의 지속철저에 노력하는 데 뜻을 두면서 중서(衆庶)를 이끌어 총후반도를 견고히 지키고,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향해 매진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상을 고사로 한다.

(7) 국민정신총동원 함경남도연맹 대회에서의 총독 고사 (1939년 9월 11일)

국민정신총동원 함경남도 연맹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소회를 말하고자 한다.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2성상이 경과되었다. 황군의 전과(戰果)는 실로 위대하다. 하지만 복잡하고 심각한 제3국 관계를 반영하여 아직 수습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신질서 건설의 대업은 여러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직 그 전도가 다사(多事)하다.

사변의 배경이 된 세계정세를 살펴보면, 독일과 폴란드의 개전을 계기로 구주정국은 파란이 중첩되고 있다. 시시각각의 변동은 어떤 시태(時態)를 초래할지 전혀 예단할 수 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독소 불가침조약의 체결은 극동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국정부는 수반을 갱신하여 자주 독주(獨住)의 외교책을 견지하면서, 그 누구의 패반(霸權)에도 기울이지 않고 기존의 방침인 동아신질서 건설의 대도(大道)에 매진한다는 방도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와 불발(不拔)의 방침은 자력으로 도의를 철저히 실천하려는 우리 제국만이 고집할 수 있는 바이다. 국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철석(鐵石)과 같은 의사를 연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즉 우리 제국이 동아에 수립하려는 성업의 달성을 방해하려는 제3국으로 하여금 신속히 그 의도를 철회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실로 우리 국민의 결의와 실력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태세의 정비 위에 더욱 준비를 견고히 해야 한다.

일억일심(一億一心)으로 국가의 총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전개와 그 철저에 있다.

우리 반도에서 본 운동이 개시된 지 벌써 2년여가 지났다. 지금은 모든 조선에 걸쳐 그 실천망을 확대하고, 내선일체와 총후보효(銃後報效)의 기치 아래 상호 결속하고 있다. 신흥 북선의 웅도(雄道)인 함경남도의 관민 여러분 또한 분기하여 오늘날의 태세를 갖춘 것에 본관은 실로 마음이 든든하다. 본 대회를 계기로 시국의 재인식을 통한 국민적 자각을 심화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유감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상을 고사로 한다.

(8) 한해극복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남도연맹 대회에서의 총독 고사 (1939년 10월 29일)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남도 연맹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2년 4개월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천황 폐하의 능위(稜威) 아래 황군은 커다란 전과(戰果)를 올렸고, 적(敵) 정권은 궁지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흉아대업의 전도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 구주동란의 영향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거국의 관심을 하나로 응집시키고 물심양면에서 전시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만난을 극복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생각건대 세상의 모든 사물,